

2021
Nowon
Moonlight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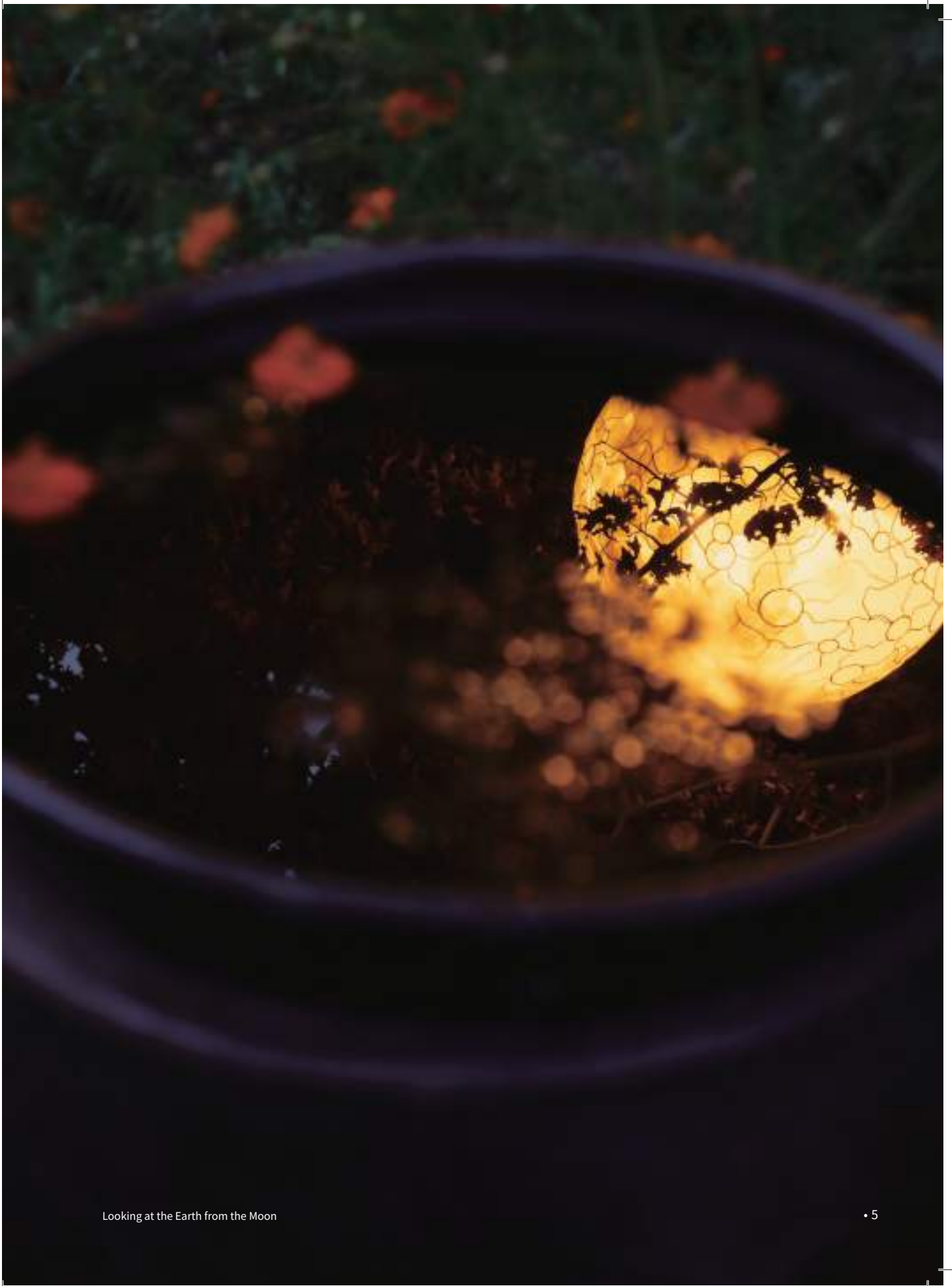
누
운
달
로
빛
산
책
7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달에서 지구를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에서 달을 보아왔지만,
이번엔 달에서 지구를 봅니다.

달에서 본 지구는 지구에서 본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고귀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달에게 소원을 빌 듯 달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지구에게 빌어 봅니다.
오래오래 아주 오랫동안 우리 가족과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노원의 정체성을 담은 노원달빛산책,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문화축제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2020년 첫 ‘노원달빛산책’을 마치고 올해 새로운 150여 점의
야외전시 작품들로 두 번째 ‘달빛산책’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거리두기는 올해도
빛났고, 이웃한 자치구에서도 많은 시민이 관람하러 우리
노원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달빛산책’은 올해도 잔잔한
예술체험으로 큰 힘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축제 모델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달빛산책’, 내년에는 더 참신한 모습으로
선보이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노원의 새로운 문화브랜드, 노원달빛산책

장기적인 코로나 블루로 인한 지친 일상 속에서 그동안 노원구민에게 위로와 주고 힐링이 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여유와 즐거움을 준 문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노원달빛산책’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성상 점점 고립되어가는 현실속에서,
다양한 작품이 가을꽃과 불빛 아래 어우러진 ‘노원달빛산책’은
이제 노원구를 상징하는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노원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며, 노원구의회도 문화로 행복해지는
노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의장 최 윤 남

구민을 위한 ‘힐링 산책’ 두 번째 발걸음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나,
돌아보면 천천히 살기, 여유를 갖기,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되찾아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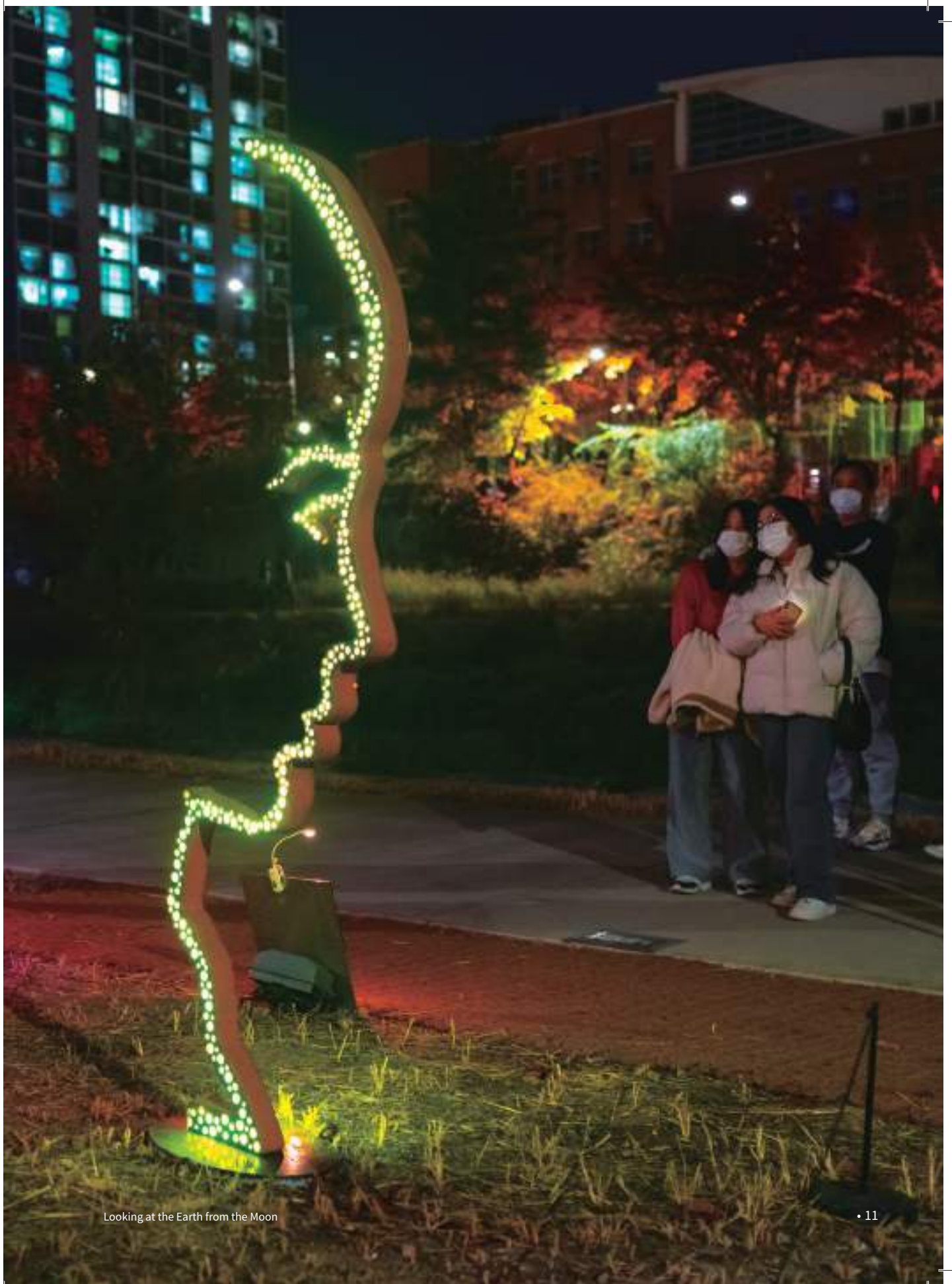
올해 두 번째 ‘노원달빛산책’은 작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힐링의 예술체험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희망, 위로, 힐링, 여유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현천을
산책 삼아 걸으며 느낀 달빛산책의 작품들이 진정 여유로움과
잔잔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새로운 달빛산책을 기대합니다.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 승 국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2021 Nowon Moonlight Walk

노원달빛산책의 상징이 되는 글자체를 사용한 홍보판이다.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행사의 대형 알림판(노원달빛산책)을 제작하였다. 도시의 화려한 광고판이 환경적, 시각적 공해가 되어가는 지금,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작가의 사려 깊은 뜻이 담겨 있다.

This is a promotional board for the exhibition written with the signature calligraphy for Nowon Moonlight Walk. Recycled materials were used to produce this huge sign board. With flashing neon signs becoming eye-sore nowadays, this board shows the creator's thoughtfulness toward environment and nature.

전영일 | Jeon Yong-Il
stainless steel, steel wire, plastic bottle caps, lighting / 7500x3000mm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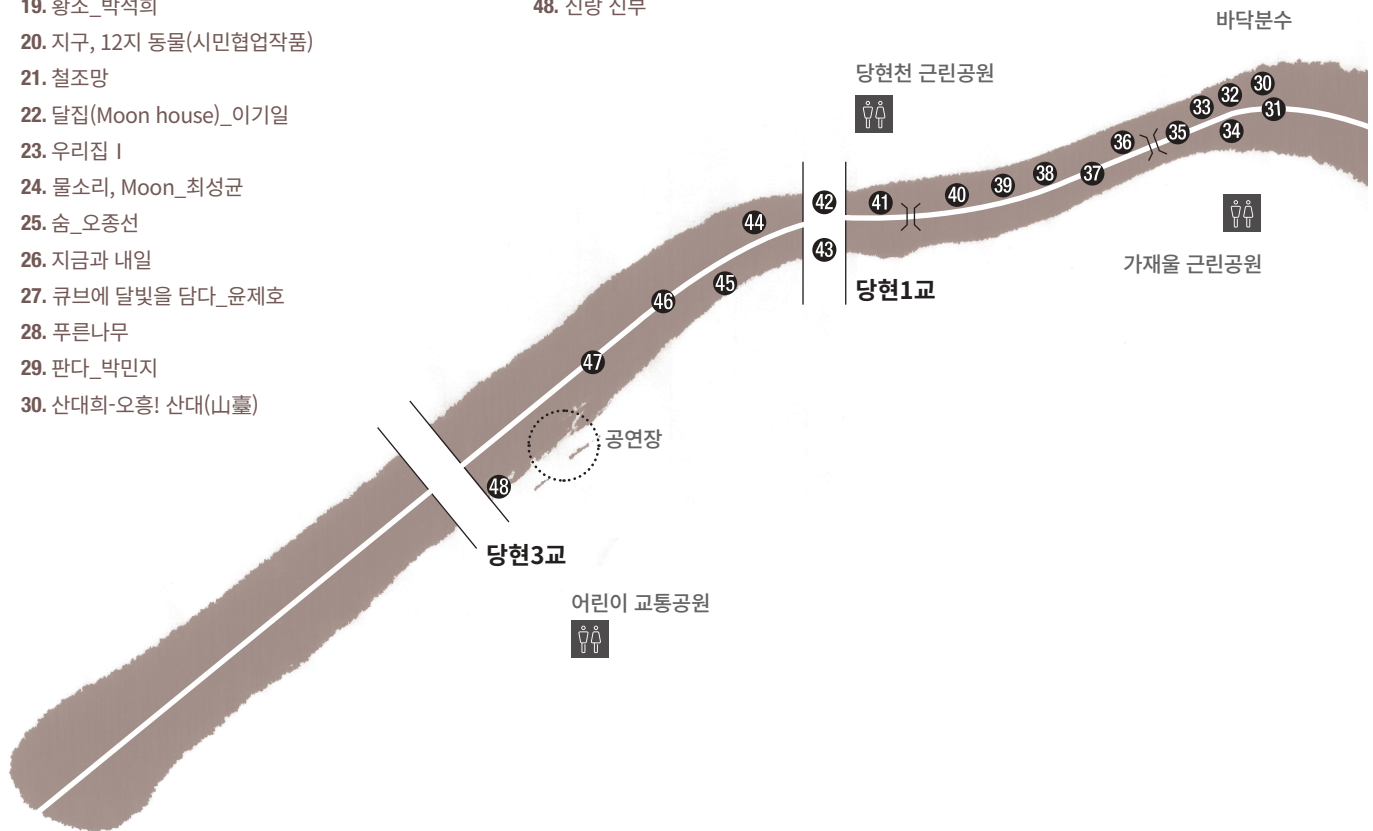
작품설치 장소

10.20. PM 6:00

노원달빛산책 오픈

1. 수학의 이모티콘_권민우
2. 물속에 뜬 도시와 달_김현준
3. Redcide2018_인송자
4. 물고기들
5. 조화
6. 꽃피다_인송자
7. 혼돈, 균형_인송자
8. 자전거 탄 아이들_인송자
9. Flat Earth, Moonlight Garden_유대영
10. 산_전영일, 박민섭
11. 반딧불이_김현준
12. 경계의 생명
13. 촛불과 보름달
14. 자전거(stand)
15. 달, 희망을 노래하다
16. 문 밖의 학_현재열
17. 자전거(hanging)
18. 나무가족
19. 황소_박석희
20. 지구, 12지 동물(시민협업작품)
21. 철조망
22. 달집(Moon house)_이기일
23. 우리집 I
24. 물소리, Moon_최성균
25. 숨_오종선
26. 지금과 내일
27. 큐브에 달빛을 담다_윤제호
28. 푸른나무
29. 판다_박민지
30. 산대화-오홍! 산대(山臺)

31. 고래가족
32. 소우주(Mikrokosmos, 小宇宙)
33. Quadruped, December_조영철
34. 2021노원달빛산책
35. 달빛풍선
36. 희망의 관점
37. 물속세상
38. 바람의 울림-소리나무, 달빛 속의 울림
불의 울림_성동훈
39. 치유의 꽃
40. 우리집 II
41. 월인천강
42. Moonlight-그림자 놀이_유대영
43. 산보, 석양
44. 세 개의 빛, 하나의 집
45. 도깨비불
46. 도시 I
47. 달과 우주인
48. 신랑 신부



10.24. PM 3:00—5:00

노원달빛산책 세미나

노원구와 공공예술에 관한 이야기

한국적 공공예술에 대한 고민

(전영일, 노원달빛산책 예술감독, 조각가)

확장하는 지역문화 담론 속 공공과 예술의 쟁점과 대안

(신민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

모두의 문화 향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접근권

(변재원, 전장연 정책국장)

판데믹의 시대, 공공예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진한나, 국제보건전문 의사, 극단 구심구도 기획)

하나가 아닌 공공

(권태현, 독립 큐레이터)

사회: 손이상 (노원달빛산책 세미나 기획자)

시민해설사 프로그램 및 작가와의 대화

www.nowonarts.kr



018_코로나 시대의 미술행동
019_2021노원달빛산책—달, 지구를 보다

Part 1

작 품 소 개

024_치유의 꽃
028_희망의 관점
032_지금과 내일
034_조화
036_물고기
038_고래 가족
040_물속 세상
042_산
044_철조망
048_경계의 생명
050_나무 가족
052_푸른 나무
054_월인천강(月印千江)
058_산보, 석양
062_세 개의 빛, 하나의 집
064_촛불과 보름달
066_달과 우주인
068_문밖의 학
070_도깨비불
072_도시 I
074_황소
076_판다
078_신랑 신부
080_자전거
084_달빛 풍선
086_소우주 小宇宙
088_오홍!산대(山臺)

Part 2

초대전 작품 소개

092_큐브에 달빛을 담다
096_달집
098_바람의 울림-소리나무
100_불의 울림
101_달빛 속의 울림
102_Quadruped / December
106_평면 지구 / 달빛 정원
108_달빛-그림자놀이
110_반딧불이

Part 3

특별전 작품 소개

114_숨
116_Redcide 2018
118_혼돈, 균형
120_꽃피다
122_자전거 탄 아이들
126_수학의 이모티콘
128_물속에 뜬 도시와 달
130_물소리, 문

Part 4

시 민 참 여 전

- 134_ 지구와 12지 동물
- 138_ 우리 집 I
- 139_ 재미있고 솔직한
- 142_ 달, 희망을 노래하다

Part 5

달 빛 산 책

- 148_ 비평글: 밤에 우리 영혼은 ... _김수정
- 156_ 작품설치
- 164_ 달빛해설사
- 166_ 작가와의 대화

Part 6

세 미 나

- 170_ 노원달빛산책 토론회 기초발제_손이상
- 172_ 하나가 아닌 공공_권태현
- 174_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화 향유를 위한 접근성_변재원
- 179_ 팬데믹의 시대, 공공예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_진한나
- 181_ 확장하는 지역문화 담론 속 공공과 예술의 쟁점과 대안_신민준
- 187_ 한국의 공공미술에 대한 견해_전영일

Part 7

사 람 · 사 람 들

- 196_ 달빛해설사가 말한다
- 198_ 2021 노원달빛산책과 함께한 사람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2021노원달빛산책>의 주제는 ‘달, 지구를 보다’이다. 지구에서 달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했던 2020년 전시 주제와 연결되는 흐름이다.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미술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2021노원달빛산책>은 창의적 방식으로 공공미술의 영역에서도 미술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2021노원달빛산책>은 한지 빛조각을 중심으로 하여 11명의 미술가와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야외 전시회다. 시민의 높은 참여 수준을 이끌어내면서도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본부 운영, 거리두기 준수 팻말 진행요원 투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시를 운영한다. 작품은 사회적, 의료적 관점에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접 상황을 피해 관람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였다.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작품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의료적 관점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며 예술적 공감과 휴식을 경험하면서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전체 2km의 전시 동선은 운동량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한 산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들의 공간 속으로 침투한 작품들은 쉽고 편안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작가들은 미적 공감대를 우선시 한 예술의 언어로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내용을 작품에 담았다. 한지를 사용하여 한국적이고 따뜻한 빛을 뿜는 작품들과 조각, 미디어아트,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특별전과 초대전 작품들이 시민들의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치유의 꽃>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발생한 공동체의 위기가 해결되는 ‘희망적 미래’를 제시한다. 꽃봉오리와 꽃잎 형상의 세 개의 작품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데, ‘미래’의 지점에서 보면 세 작품이 겹쳐지며 하나의 꽃이 된다. 완성된 하나의 꽃은 다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미래를 약속한다. 그 밖에도 현 상황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이 빛을 발산하며 공동체의 공간을 가득 채울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소중해진 가족을 다룬 ‘우리 집 만들기’ 프로젝트는 가족 간의 대화를 만들어보는 작업이다. 전시 전에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시민 참여자와 함께 나무를 자르고 한지를 붙여 집을 만든다. 집이 완성되면 가족단위의 참여자들이 진행자에게 모바일 기기를 맡기고 15분 동안 머물다 나오면 된다.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을 남기면 작품이 완성된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야간야외전시 <2021노원달빛산책>은 공공미술로써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021노원달빛산책－달, 지구를 보다

10월 20일부터 19일간 수학문화관에서 당현3교에 이르는 당현천 2km 구간에서 <2021노원달빛산책>이 개최된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노원달빛산책>의 이번 주제는 ‘달, 지구를 보다’이다. 작년 전시에서 지구에서 달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전 지구적 현실을 ‘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현재와 미래를 통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1노원달빛산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영일 예술감독의 한지 빛조각을 포함한 11명의 미술가의 50작품 150여 점을 평균 50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2021노원달빛산책>의 주요 작가이자 예술감독인 전영일은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후 전통등 기술을 전승받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기술을 현대적 재료와 결합한 빛조각으로 우리 등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전영일 예술감독은 야간에 열리는 야외전시에 예술성을 더하기 위해 조명과 빛을 이용한 조각, 미디어아트, 키네틱아트, 설치미술 등 수준 높은 공공미술 작품 전시를 기획하였다. 시민들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시민참여 빛조각 만들기, 세미나,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첨단 언택트 IT 기술을 접목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 작품은 전영일 작가의 빛조각인 <치유의 꽃>이다. 세 개의 독립적인 꽃봉오리와 꽃잎 형상의 작품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데, 한 지점에서 보면 세 작품이 겹쳐지며 완성된 하나의 꽃이 되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가 곧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밖에도 같은 메시지를 담은 <희망의 관점>, <지금과 내일>과 같은 작품뿐 아니라, 당현천 양쪽을 연결하는 <경계의 생명> 등이 도시의 밤을 빛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권민우, 김현준, 오종선, 인송자, 최성균 등 5명의 예술가들은 올해 전시를 위해 준비한 작품을 ‘특별전’에 출품한다. 수학문화관 앞 권민우 작가의 키네틱(움직이는) 조각 <수학의 이모티콘>을 시작으로 슈퍼미러를 활용한 김현준 작가의 <물속에 뜬 도시와 달>이 전시된다. 작년에 <푸른 달의 노래>로 주목받았던 인송자 작가는 새싹교 아래 <Redcider2018>와 함께 <흔돈, 균형>, <꽃피다> 등 세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당현2교 아래에는 빛과 거울을 이용한 최성균 작가의 <물소리, Moon>, 다음은 오종선 작가의 거대한 벌룬 작품 <생명>이 전시될 것이다. 전시 기간 중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작가와의 대화도 개최된다.

올해는 <노원달빛산책>의 예술성을 더하기 위해 초대전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국제적 명성의 한국 조각가 성동훈 작가의 대표작인 <소리나무>연작 중 한 점과 <불의 울림>, <달빛 속의 울림> 세 작품이 달빛 아래 전시된다. <바람의 울림-소리나무>는 철로 만든 고목(古木)에 달린 작은 풍경들이 바람이 불 때마

다 우리의 청각적 심상을 자극할 것이다. 조각가이자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는 이기일 작가는 빛으로 된 탑을 쌓아 달에서 본 지구의 도시 풍경을 구현한다. 그 밖에도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김현준의 설치 작품, 유대영 작가의 영상 매핑 작품과, 조명으로 그림자 효과를 만드는 미디어 설치 작품, 조영철 작가의 태양광전지로 켜지는 조명 동물 조각, 윤제호 작가의 음향과 빛을 이용한 미디어 큐브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작품들은 미술관 이상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들로 시민과 함께한다. <희망지구 만들기>, <희망의 집짓기> 프로그램은 사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제한된 인원의 구민들과 함께 공공미술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한다.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질 이 작품들은 지구의 환경과 미래를 참여자와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희망을 완성된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달빛해설사>는 작년에 시도하여 좋은 반응은 보여주었던 시민참여 도슨트 프로그램이다. 도슨트 자원자들은 3회의 교육을 거쳐 <2021노원달빛산책> 방문객들이 작품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 동안 매일 7시에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다.

<2021노원달빛산책>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언택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당현천 바닥수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로 당현천에 뜬 달과 지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비대면 영상으로 현장감 있게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 미디어인 등과 현대적 IT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를 한곳에 모아 기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의 전망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10월 24일에는 도시의 야간전시를 학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는 2030세대를 대변하는 문화운동가이자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손이상 작가가 기획하였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춘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여 진행한다. 전영일 예술감독을 포함해 문화예술위원회 신민준 현장소통위원, 서울대 의과대학 진한나 연구원, 권태현 큐레이터, 변재원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코로나시대의 문화예술, 노원구의 지역성 뿐 아니라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주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도시의 야외미술전시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조망해 본다.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작품 소개 ❶

치유의 꽃

A Flower of Healing

이 작품은 미래에 대한 소중한 희망을 상징한다. 장미꽃을 연상케 하는 꽃은 현재 고립된 우리의 모습처럼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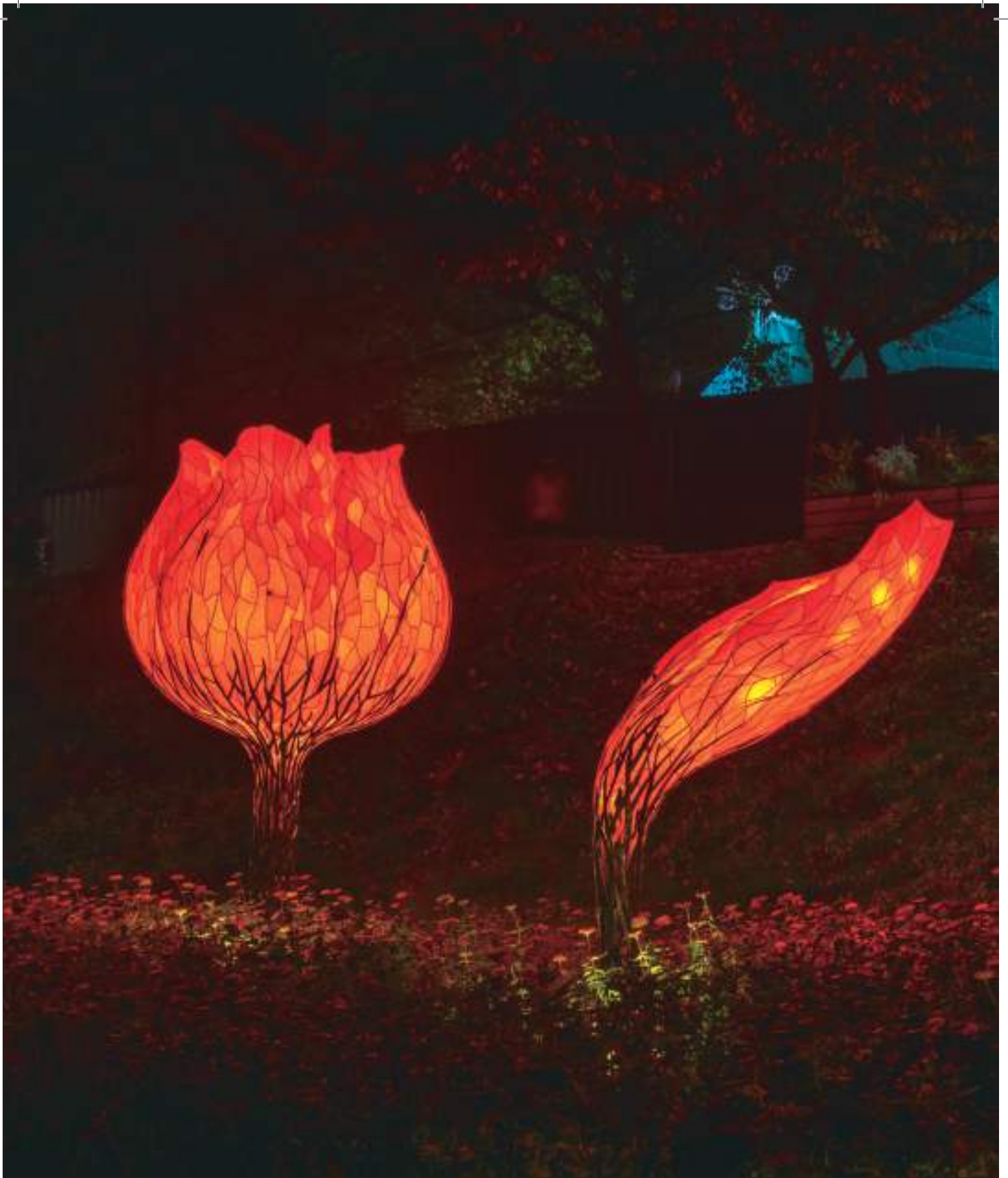
각각의 위치에서 독자적인 조형미를 갖는 세 개의 꽃은 코로나 시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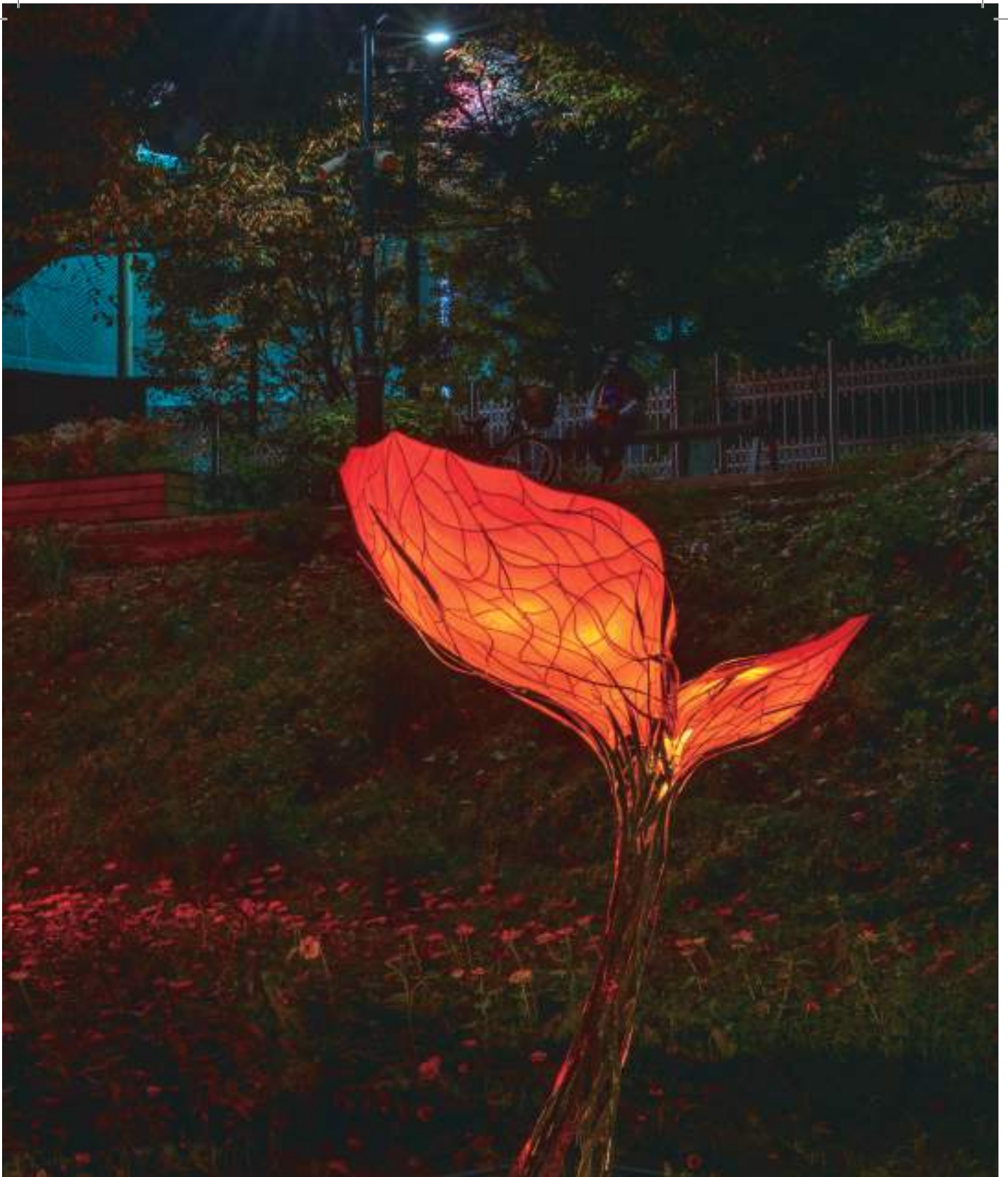
세 개의 꽃잎들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미래'라는 위치에서 보면 하나의 '꽃송이'가 된다. 관람자들은 흩어진 꽃잎들이 하나의 꽃으로 만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곧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게 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This work symbolizes the cherished hope for the future. A flower reminiscent of rose is currently divided into three pieces, just like us in isolation due to COVID-19. Each one unique with formative beauty but separated as we are now, the three lumps become one huge and graceful 'flower' when seen from the Future's standpoint. Through enjoying the scattered parts becoming one flower, the viewers can imagine a future when we will soon meet again after overcoming our hurdles.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3 pieces with heights 1800mm-4000mm / 2021







희망의 관점

The Perspective of Hope

두 그루의 단풍나무가 화려하게 서있다.
가을날의 당현천을 빛나게 하는 2021개의
단풍잎들을 보면서 시선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나무는 새의 형상으로 변한다.
그 지점에는 '미래'라는 관람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2021명의 노원구민이 적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한지로 만드는
시민참여 작품으로 계획됐지만, 방역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표현하는 재치 있는
문구를 볼 수 없게 되어 아쉽다.

Two maple trees are standing with
splendor. As the viewers shift gaze
from 2,021 autumn leaves that give
sparkle to Danghyeongcheon, the
trees are turned into the shape of a
bird. At that point, the ground that
the viewer is standing on is marked
as 'Future'. Originally this project
was planned to be composed of
Hanji works with messages of
hope written by 2021 citizens of
Nowon-gu, but had to be regretfully
cancelled due to stricter regulations
related to COVID-19.

전영일 | Jeon Yong-il
wooden stylobate,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5000x3000x2300mm / 2021







지금과 내일

Now and Tomorrow

등을 돌리고 있는 남녀, 코로나 시대의
고립된 사람들을 상징한다.
지치고 고달프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고독을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코로나19로 고립된 남녀가 시일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등을 돌린 남녀가 함께하게 될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거울 속 특정한 시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 보도록 하였다. 뒤돌아선
남녀는 ‘지금’을, 남녀가 만나는 거울 속
위치는 우리가 곧 마주할 ‘내일’을 의미한다.

A man and a woman with their backs
turned to each other, they symbolize
the isolated people during COVID-19.
Weary and fatigued, but they are
the ones who silently persevere in
solitude to overcome this crisis. The
artwork delivers a message that the
parted man and woman will be able to
meet again after some time. For
that promise of future, the separated
and turned profiles are face-to-face
in the reflection of the mirror placed
between them, when seen at a certain
angle. ‘Today’ they cannot see each
other, but the reflection suggests that
‘tomorrow’ they will, which will be
soon.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mirror / height 2000mm / dimensions variable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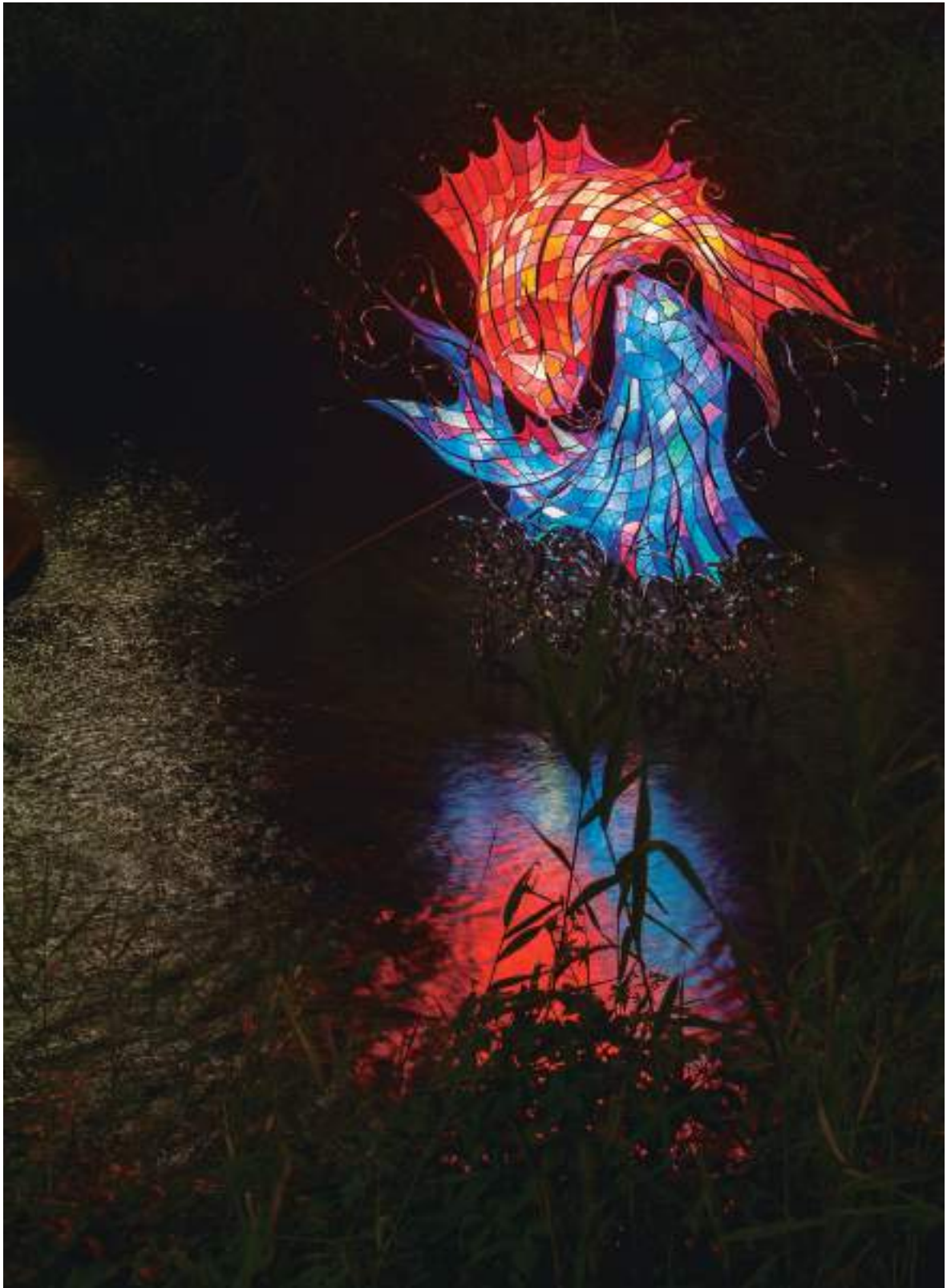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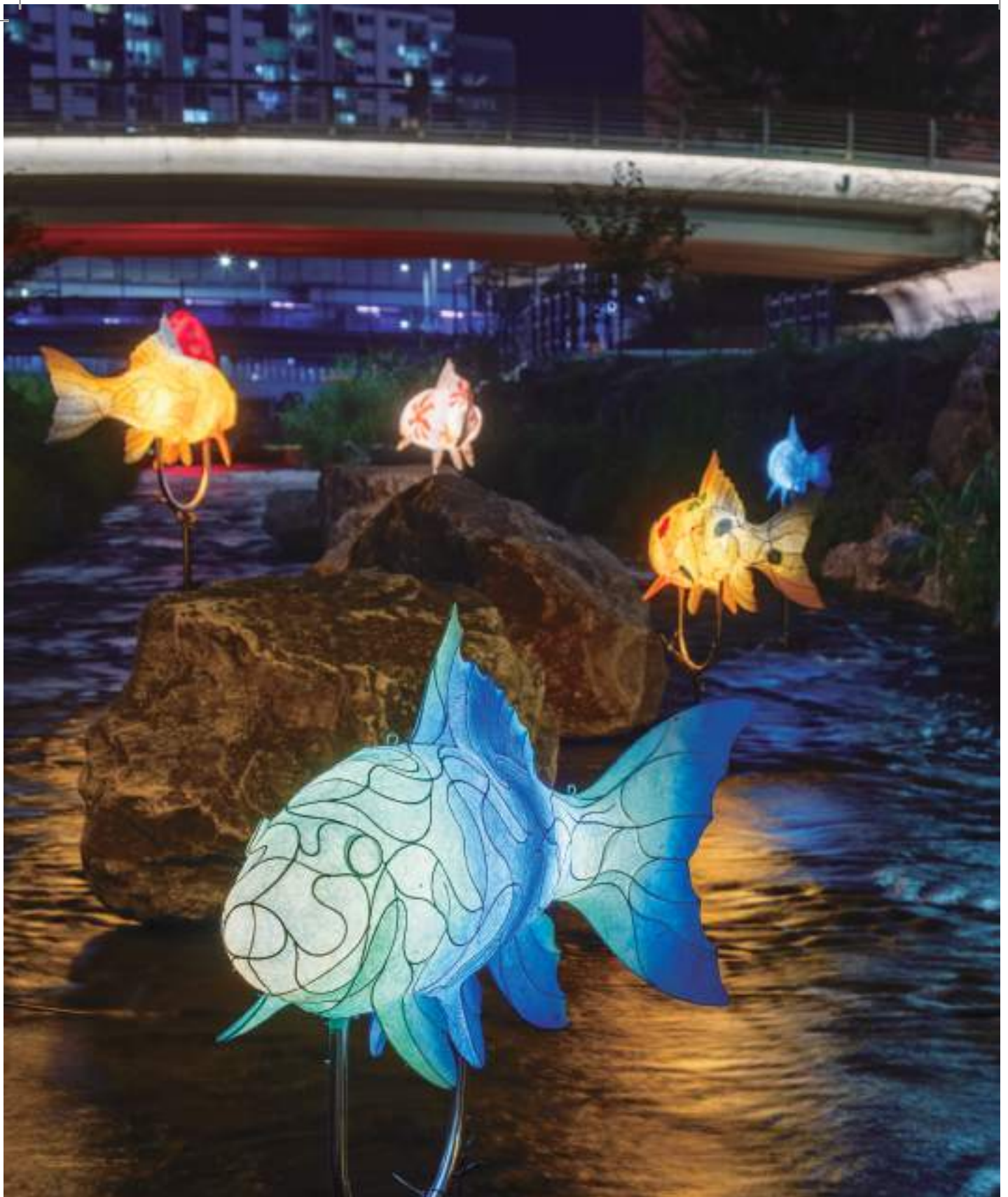
조화

Harmony

조화란 각자의 개성들을 유지한 채 반목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상태를 말한다. 붉고 푸른 물고기는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의 음과 양처럼 서로 다른 색이 순환하며 하나를 이루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말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 나아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조화로운 공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The state of harmony is when separate beings are not in clash, but agreeable with each other. One fish red and another blue, by swirling together they form the shape of Yin and Yang in Korean flag. On an individual level, this artwork depicts harmony among those with different thoughts and feelings, and on the national level, the integration of politically and socially conflicting ideas. Moreover, the piece is conveying the message of symbiosi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the country still remains as the last one divided in the world.







물고기

Fish

강에서 유평하는 물고기들

Fish leisurely swimming in the river

고래 가족 The Whale Family

맑은 당현천은 바다로 흘러간다. 당현천 위를 나는 고래 가족은 어느 날 어떤 향기에 취해 넓은 바다에서 한강을 거슬러 당현천에 오게 되었다. 새끼를 보호하는 엄마 아빠 고래가 앞뒤로 유명하고, 귀여운 아기 고래는 즐겁게 지느러미를 젓는다. 고래 가족들은 당현천의 아기자기함에 맞추어 실제의 고래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지만, 고래를 재미있게 표현한 디테일이 시각적 즐거움과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The clear water of Danghyeoncheon (stream) flows into the sea. One day, a whale family flying over the stream was mesmerized by a certain aroma and swam up from the sea all the way to Danghyeoncheon. Mother whale and father whale swim in the front and back to protect their baby, and an adorable baby whale is joyfully moving its fins. Although smaller than the actual size, fun details of the whale sculptures stimulate the viewers' visual pleasure and curiosity.



전영일 | Jeon Yong-Il
stainless steel, steel, Hanji, lighting / width 4000mm, 3000mm, 1800mm (3 pieces) / 2021





물속 세상

The World under the Water

강을 가로지르는 물고기들과 수초.

Fish and water plants crossing the 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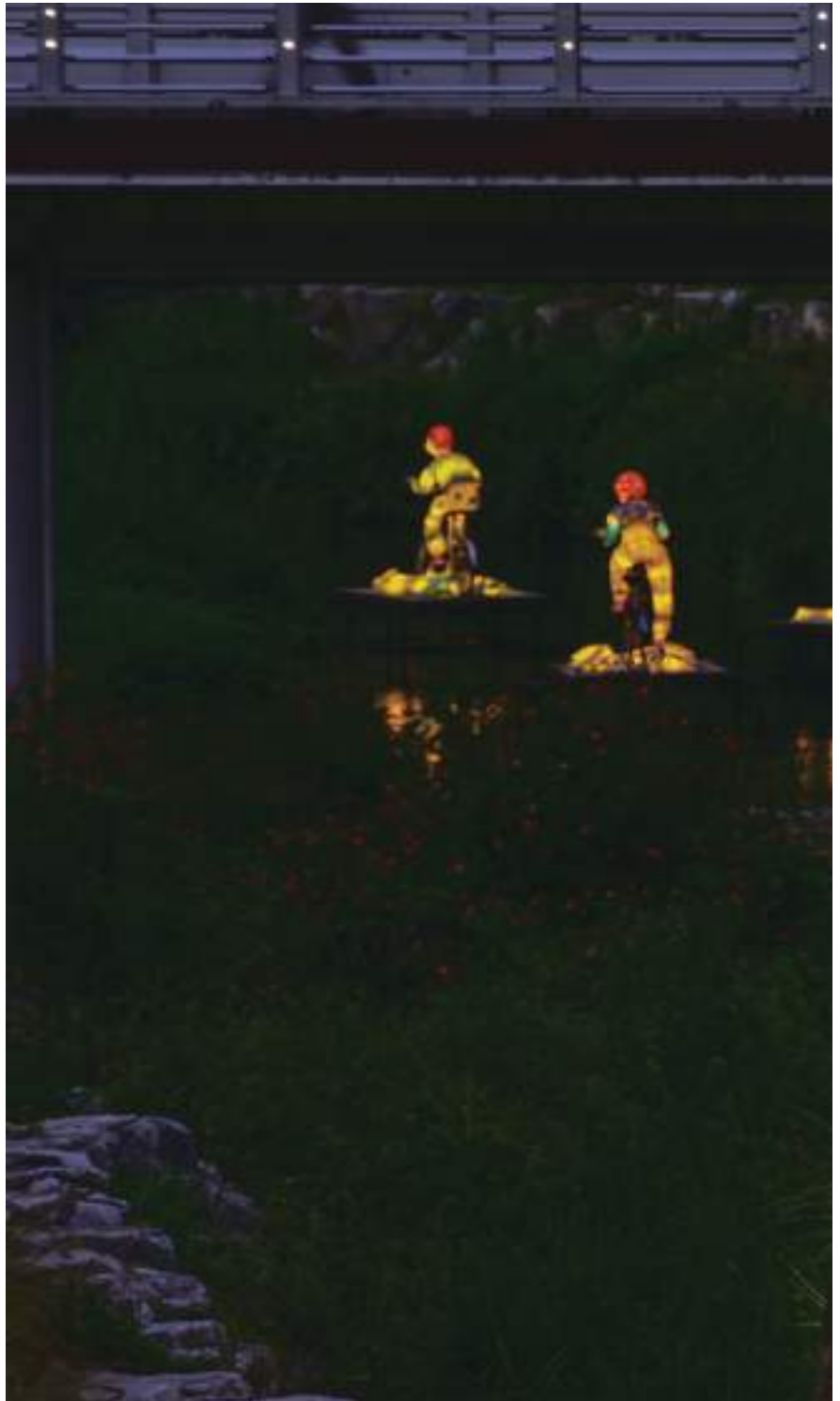
환경 조성 작품 | Ornamental Object for Environmen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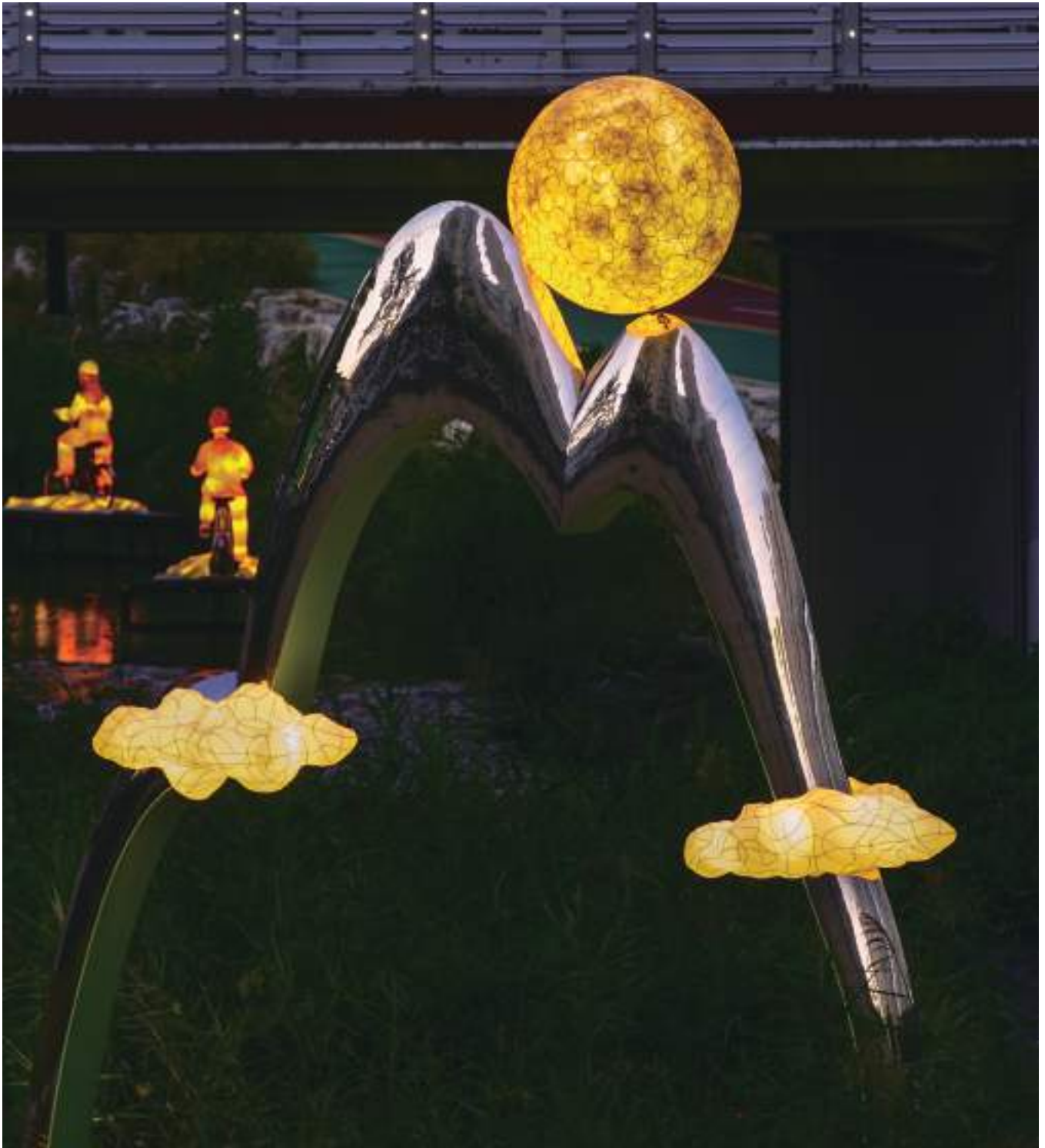
산 Mountain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이미지의 산은 박민섭 작가가, 산에 걸린 달과 구름은 전영일 작가가 협업하여 제작하였다. 한지의 따뜻한 기운이 차가운 금속 슈퍼 미러에 반사되어 달과 구름이 산에 비친 듯한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슈퍼 미러는 거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주변 요소를 산의 형상에 따라 왜곡하되 사실적으로 반사한다. 피로감에 젖은 코로나 시대에 위안을 주기 위해 제작된 조각 작품이다.

A collaborative work of two artists: A stainless steel mountain in traditional shape is by Min-sub Park, and the moon and the clouds on the mountain are by Yong-il Jeon. The warm characteristic of Hanji is reflected by the frigid metallic super mirror, making the moon and the clouds to appear as if shining on the mountain. Since the super mirror undoubtedly functions as mirror, the surrounding elements are reflected in distortion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mountain. It is a sculpture created to comfort the minds that are weary from COVID-19.



전영일 | Jeon Yong-il, 박민섭 | Min-sub Park
stainless steel, steel, Hanji, lighting / 3500x4000mm / 2021



철조망

Wire fence

천이 흐르는 것은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흐르는 물은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주변은 수많은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빈부와 이념 갈등 등 일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철조망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작품은 당현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철조망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물고기, 철조망에 걸려있는 동물들, 그 위에서 노는 새들을 포함한다. 철조망이라는 차가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설치작업이다.

A stream is a beautiful landscape created by nature, but the flowing water also becomes the boundary that divides the land. And, there are countless dividers in our lives; the rich and the poor, conflicts of ideology, etc., that we may as well be living with so many dominating wire fences. This artwork, which is installed across Danghyeon stream, has fish swimming past it, animals caught by it, and birds frolicking above it. The compilation brings the viewers to acknowledge that there are such bleak dividing fences among us.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dimensions variable / 2021







경계의 생명

The Life crossing the Border

당현천이 가로지르며 나누어진 양쪽을
가로질러 연결하는 작품.

작가의 신화적 상상력은 당현천이 생기면서
갈라져 멀어진 어떤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언젠가부터 강 양쪽으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자라면서 두 마을이
다시 차이와 반목이 사라지고 화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This artwork crosses Danghyeon
stream and connects both sides.
The artist's mythic imagination
created a story about a village that
split and parted as Danghyeon
stream was formed. However, as
a tree started to grow in between
with its roots spreading to both sides
of the stream, the divided village
came back together - overcoming
differences and conflicts.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3500x4500mm / 2021



나무 가족

A Tree Family

한 가족을 네 개의 나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각 작품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듯,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동세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나누게 되지만, 여가시간이 줄고 갈등도 생겼다. 그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각자 독특한 모습과 색을 가진 <나무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고 넉넉하다.

A family is described by four shapes of trees: Each piece stands with a certain distance from one another, but look as if they are conversing with each other, or swaying in the wind. A family going through the pandemic days tend to spend more time together than before, but there is less time for entertainment and more conflicts have risen. Perhaps mutual respect and being considerate of one another is more crucial than merely being together.

<A Tree Family>, each member with a unique shape and color, shine brighter with a full heart when they are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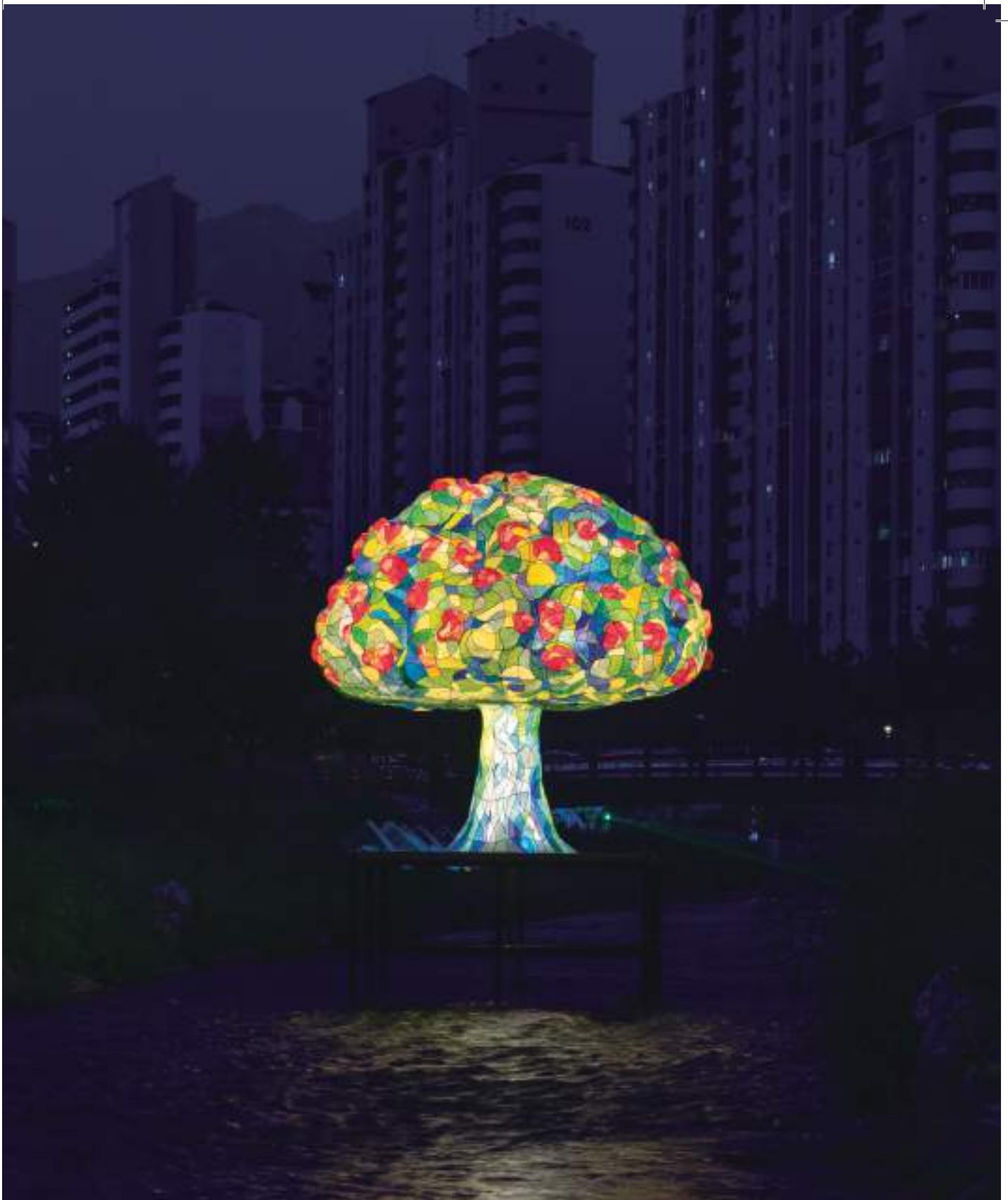
푸른 나무

A Green Tree

이 작품은 ‘무우수나무’를 형상화 한 작품이다.
‘무우수’란 ‘근심 없는 나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마야부인이 잡은
나무로 전해진다. 생명력 넘치는 붉고 화사한
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푸르고 싱그러운
나뭇잎이 풍성하게 자라난 ‘푸른 나무’는
활기찬 도시, 건강한 노원구가 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This artwork is about the tree of sans
souci. ‘Sans souci’ means ‘without an
anxiety’, and is said to be the tree that
Queen Maya of Sakya held onto while
giving birth to Gautama Buddha. The
tree with vibrant red flowers and fresh
green leaves speaks for the artist's
wish for Nowon-gu to become a lively
and flourishing district.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3500x3500x4000mm / 2020



월인천강(月印千江)

One Moon reflected on a Thousand Rivers

오래전 우리의 어머니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새벽에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
받아놓고 달에게 소원을 빌었다. 이 작품은
빛의 각도와 작품의 위치를 정교하게 설계
하여 둥근 하늘을 담은 항아리 뚜껑 속에 물을
담아 그윽한 달빛이 반사되도록 했다.
고양이가 장독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귀엽게 묘사한 <고양이와 장독대>, 그 옆에는
“취하지 않고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의 <불취무귀(不取無歸)>라는 글귀가
적힌 항아리도 함께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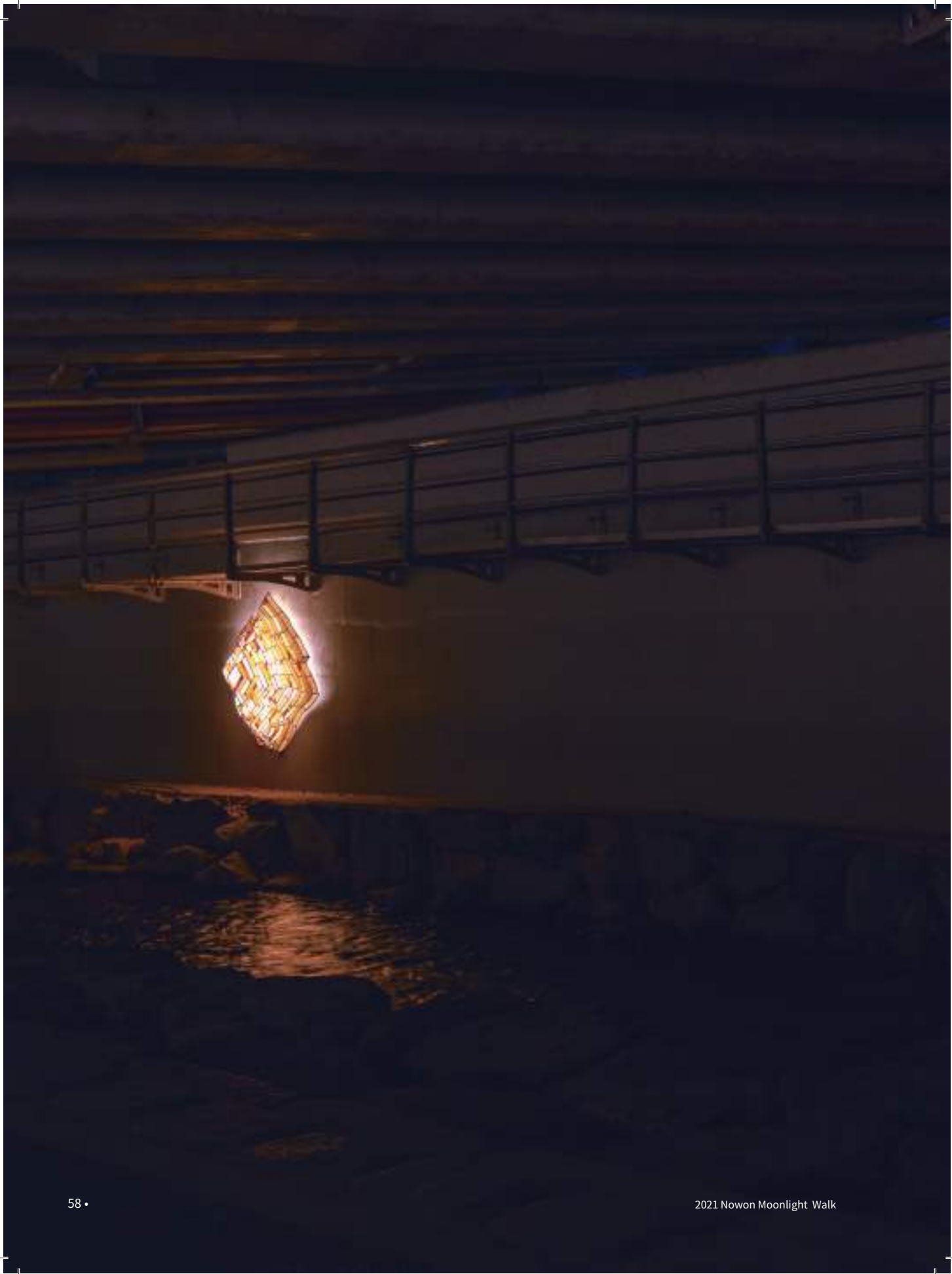
A long time ago, when our mothers
had a desperate wish, they would
fill a bowl with clean water from a
well and pray upon the moon. By
elaborately placing several crocks
under the sculpture of full moon, its
peaceful reflection can be found afloat
on the surface of water contained in
each one. <A Cat and Jangdokdae>
is an adorable depiction of a cat at the
place for crocks, and next to it is a jar
with the phrase <不醉無歸: Bul-chwi-
moo-gui> inscribed on it, meaning
“You cannot go home without getting
drunk.”

전영일 | Jeon Yong-Il
Korean traditional crocks,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dimensions variable / 2021













산보, 석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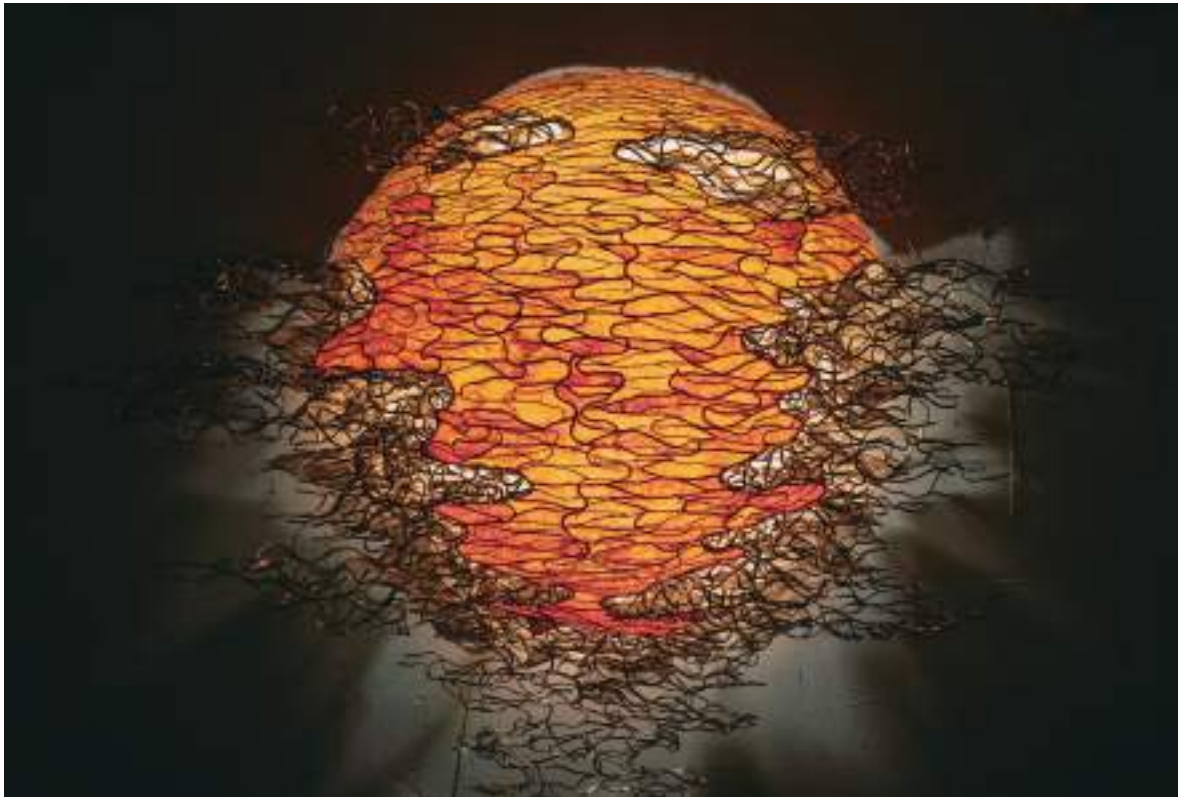
Sanbo, Sunset

<산보>는 전통적인 조각보 문양과 한국농촌의 계단식 논밭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작품이며, <석양>은 석양이 질 때 구름에 걸친 태양의 형상을 전통적 재료인 한지와 현대적 재료인 스틸로 재미있게 구현하였다.

<Sanbo> is a formative reinterpretation of the pattern found in Korea's traditional wrapping cloth, combined with paddy fields of Korean farms.

<Sunset> is a playful implementation of the Sun's shape against clouds during sunset, created in combination of a traditional media (Hanji) and a modern media (steel).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2021



세 개의 빛, 하나의 집

Three Lights, One Home

외부를 감싸는 하나의 불꽃은 안에서
발산하는 빛에너지를 통해 존재하는 의미
있는 공동체이며 한데 어우러지는 집과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며 하나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으로 표현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우리의 집은 그 의미를 더욱 강렬하게
갖게 된다.

Through emitting light energy from
within, a flame that covers its inside
represents a meaningful community
and harmonious household.
The burning flame is the various
citizens coming together to form a
community while carrying out each
of their roles in respective positions.
By acknowledging and respecting
diversity among us, our home becomes
to have a stronger meaning.







촛불과 보름달

The Candle lights and the Full Moon

촛불 사이에 보름달이 뜬 설치작품이다.
사람들이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자신을
태우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빈다. 달과 촛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빛들이다.

An installation work depicting the rise
of full moon among candle lights.
People make wishes upon the moon
and candles that exhaust themselves
as they burn light. These are the
illuminations of hope to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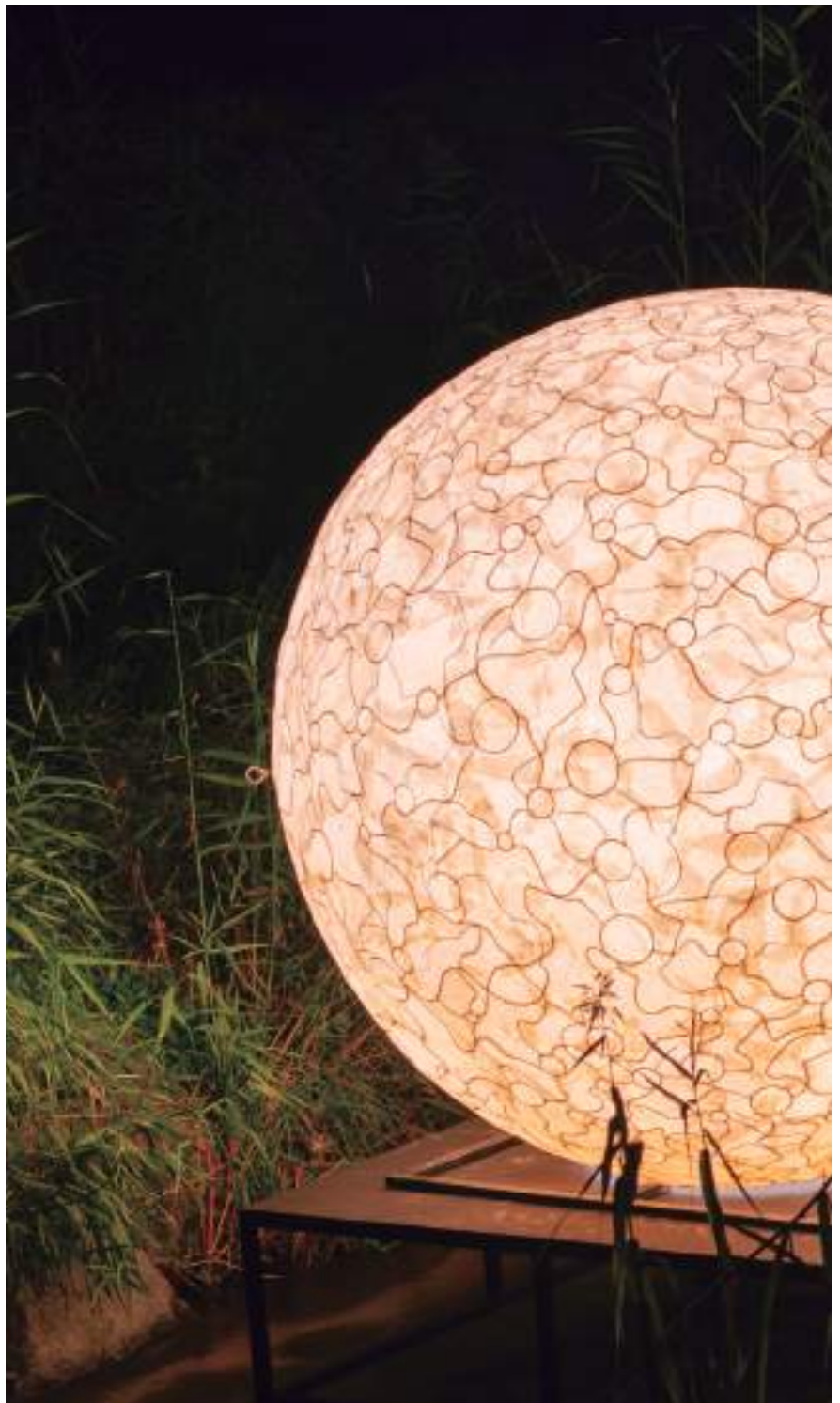
달과 우주인

The Moon and an Astronaut

이 작품은 <보름달> 작품과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달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구의 밤을 비추어 왔다. CCTV처럼 한결같이 지구를 관찰하는 달이 본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달을 방문한 우주인을 소환해 본다. 과연 우주인은 달이 간직한 지구의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This artwork connects to the one titled <Full Moon> and completes a narrative. Throughout the history, the moon has always shed light upon the night of the Earth. How would the Earth seem to the moon, that ever observes our planet like a CCTV? To answer this question, the artist summons an astronaut who has visited the moon. Would an astronaut be able to find the memories about the Earth that the moon holds?



전영일 | Jeon Yong-Il

steel wire,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2000ømm, 1150x1050x1600mm / 2019-2020





문밖의 학

The Crane outside the Door

한국 전통가옥의 문살에 조명을 설치하여 학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다. 학이 노는 운치 있는 장면을 문틀 안에 표현함으로써 전통의 멋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Lights are installed for the doorframe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to cast the shadow of cranes. The exquisite silhouette of a crane which has softly landed outside the door combined with traditional architecture delivers a classic beauty.

환경 조성 작품 | Ornamental Object for Environment / 현재열 | Hyun Jae-yeol
steel, Korean traditional doorframe, Hanji, lighting /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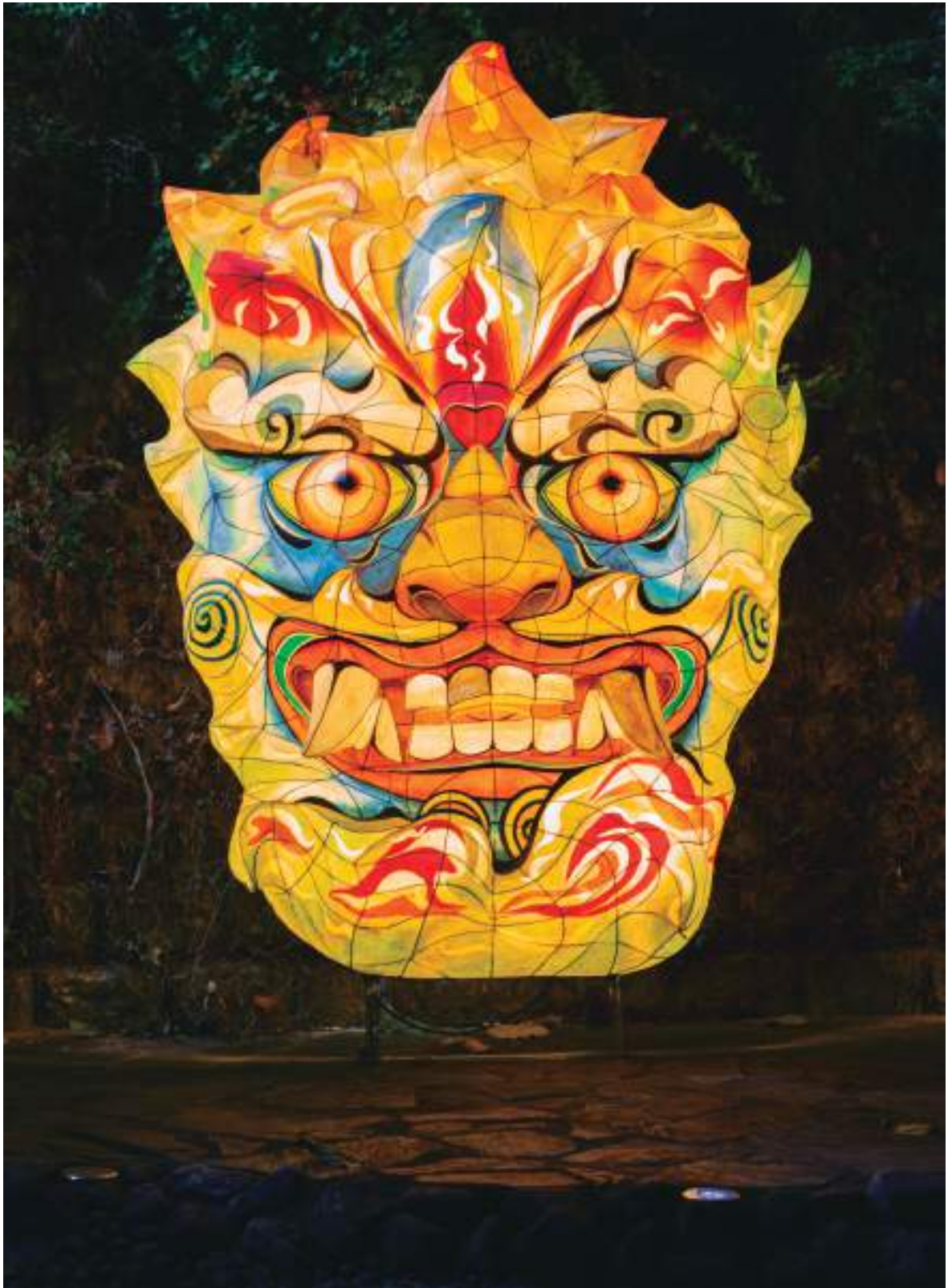


도깨비불

The Goblin Light

귀면기와의 도깨비를 모티브로 하여 설화
속에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불을 형상화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도깨비불이 나타난다.
하나가 여럿으로 흩어져 돌다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다시 합쳐졌다가 쫓아가면 이내
사라져버린다. 도깨비불은 일반 불빛과는
달리 파란색이나 노란빛의 푸르스름한
차가운 빛을 띤다고 한다.

The goblin from Gwi-myeon-gi-wa
(a goblin-faced traditional roof tile)
as the motif, its light described in
folktales has taken shape in this
artwork. On a day with drizzly rain,
a goblin light emerges from a deep
mountain. A single light scatters to
pieces, fly to all directions then merge
together, but quickly disappears when
you try to chase it. The goblin light is
said to be in extraordinary hue of
blue or ye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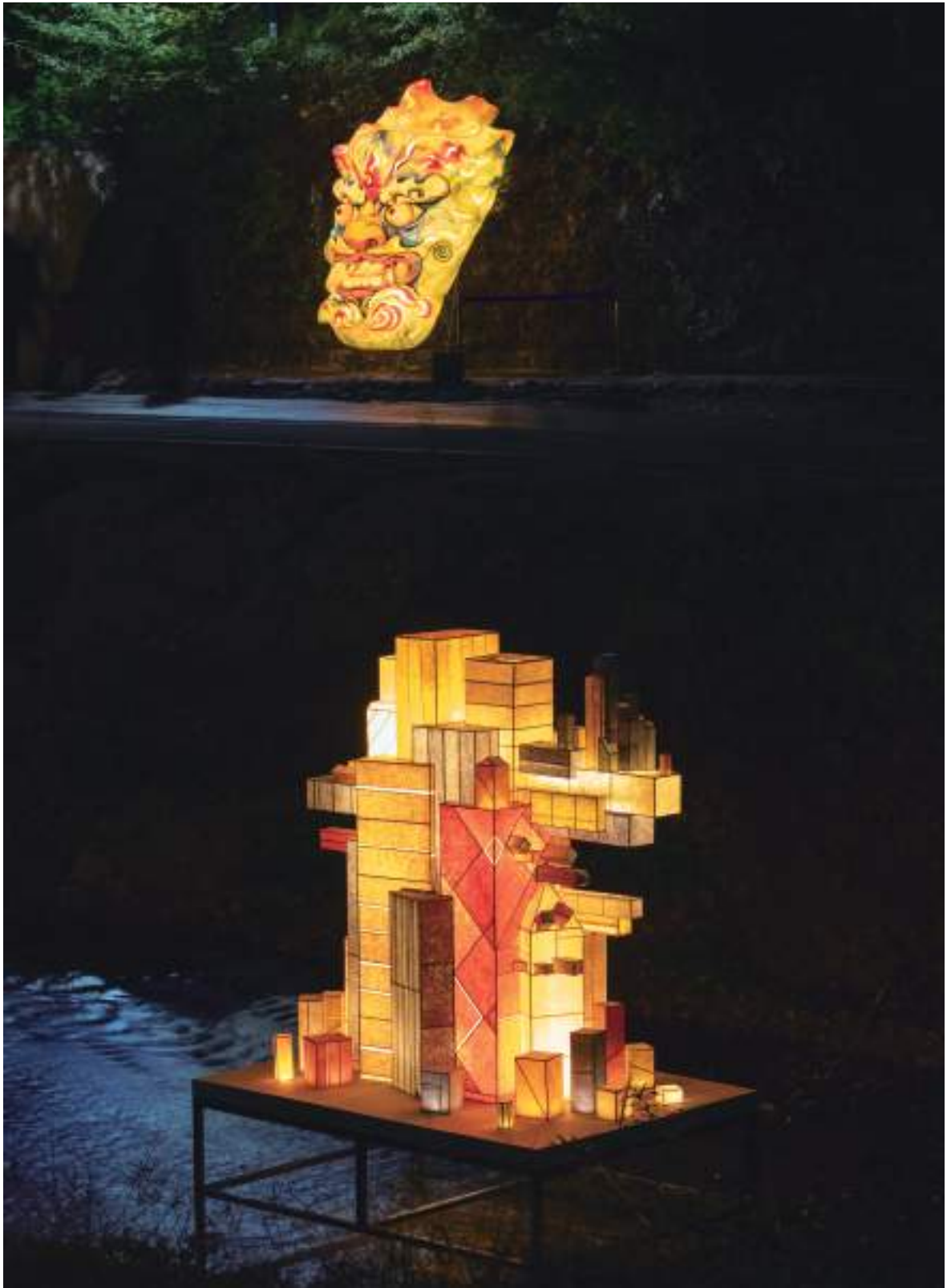


도시 I City I

이 작품은 도시를 표현한 작품 시리즈 중 하나로 우뚝 솟은 도시의 빌딩들을 표현하였다. 도시가 살아서 자라나듯 빌딩 숲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도시가 탄생하여 성장하는 모습이다. 끝없이 커지는 인간의 욕망을 도시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This artwork is one of the series about the city, described in the image of the towering buildings. A new small city comes to birth among the forest of buildings, then survives and grows. The irrepressible human desire is depicted symbolically.

전영일 | Jeon Yong-I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1800x1220x1800mm / 2015







황소 A Bull

한국의 누렁소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을
먹선이 가진 묵직한 경쾌함으로 표현하였으며
운동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동세는 민족적
기상을 보여준다.

The tough impression of a Korean
yellow cow is cheerfully expressed
through heavy ink lines, and their
strong sense of movement represents
the national spirit.



판다
Panda

귀여운 엄마 판다와 아기 판다

An adorable mommy panda and
a baby panda

환경 조성 작품 | Ornamental Object for Environmen / 박민지 | Min-ji Park
wooden stylobate,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신랑 신부

Bride and Groom

이 작품은 전시 관람을 마친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는 신랑과 신부이다. 어린 신랑과 성숙한 신부의 모습은 전통혼례에서 자주 등장한다. 고려 시대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된 조혼 풍습은 이후 빨리 대를 이을 자식을 보기 위해 이어져 왔지만 슬픈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꼬마 신랑과 신부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A bride and groom bid farewell to those who have come to the last piece of the exhibition. "A youthful groom and mature bride" was often the case in traditional weddings. The early marriage custom which began in Goryeo dynasty to prevent young virgins from being taken to Yuan dynasty of China, had succeeded in order to bear children early to maintain the pedigree.



자전거 Bicycle

자전거 바퀴를 재조립하여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한지조명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친환경적 운송수단인 자전거를 재활용
하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
당현천의 시민들이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는 환경과 건강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The reassemble of bicycle wheels
to give light to dark lanes at night.
By recycling the waste bicycles, the
completed artworks lead the viewers
to think about the environment.
Also, they encourage the activity of
riding bicycles along Danghyeoncheon.
A cherished means of transportation
by citizens, these bicycles help
us reconsider the meaning of
environment and health.

환경 조성 작품 | Ornamental Object for Environmen
stainless steel, bicycle, Hanji, lighting /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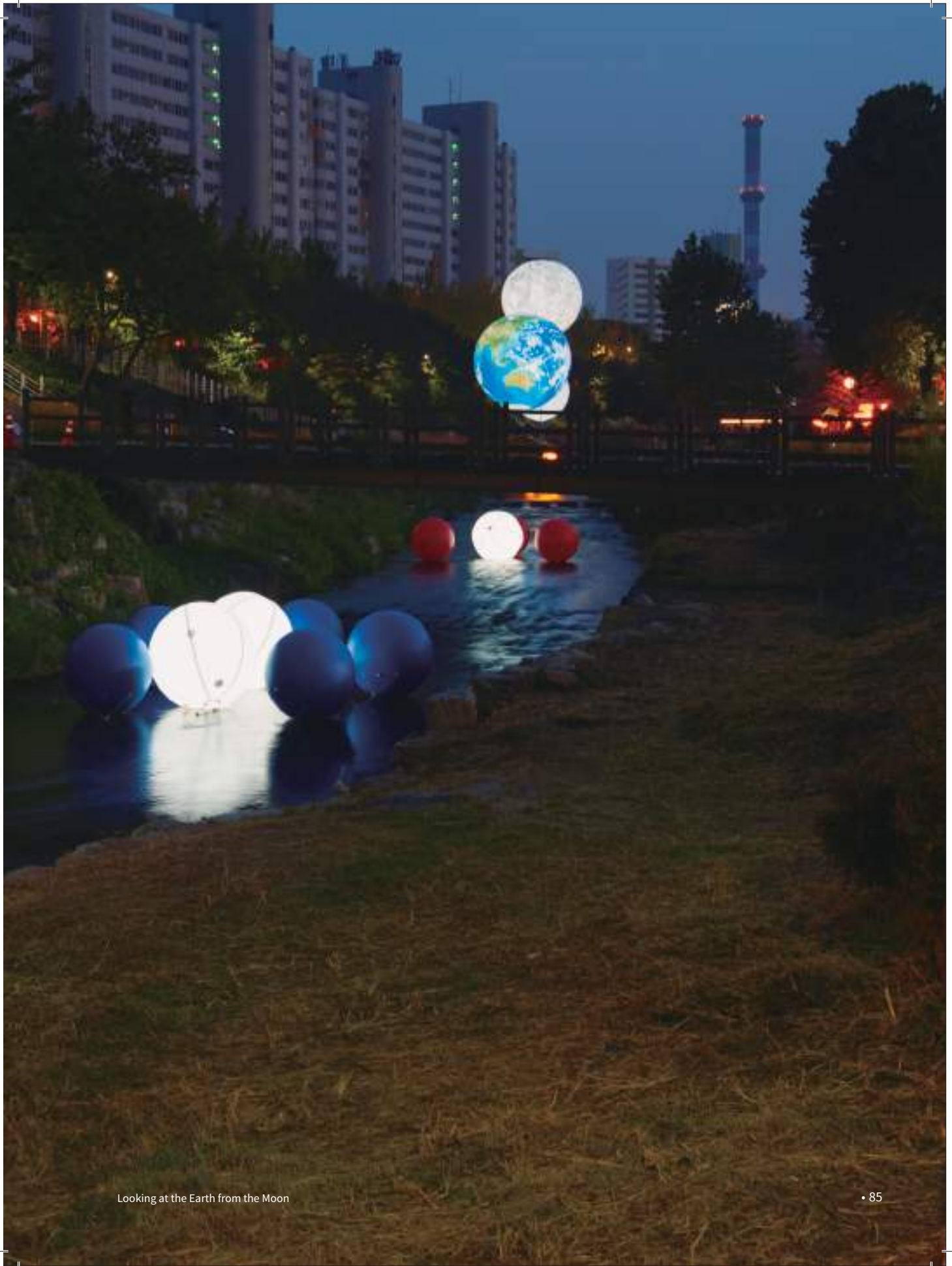


달빛 풍선
Moonlight balloons

달, 별, 지구를 형상화한 애드벌룬.

Ad balloons representing the moon,
a planet and the Earth.

환경 조성 작품 | Ornamental Object for Environmen
Ad balloons / dimensions variable / 2021





소우주 小宇宙 Mikrokosmos

<소우주>는 현실 속에 가상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이 적용된 체험형 콘텐츠다. 노원구 당현천 지역에서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실제 지구, 달, 화성의 모습을 3D로 관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현대인에게 도시의 밤하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행성들을 가까이에서 관측하고 경험하는 이벤트를 선사한다. 행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 우주를 담아볼 수 있다.



<Mikrokosmos> is built with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at offers 3-dimensional virtual observation of the moon, Earth and Mars when viewing the sky of Danghyeoncheon region with a smart phone application. The planets that are difficult to spot in urban sky are brought near to us even more vivid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rough taking photos next to them, a bit of universe comes into our daily life.

오홍!산대(山臺)

Oh-hong! Sandae(mountain-shaped stage)

산대희의 한 축이었던 예산대(曳山臺-이동형 무대)를 모티브로 한 백호 형상의 모형이다. 전통문화의 복원을 넘어 상징적인 요소들을 동시대에 맞게 재창작하였다. 백호는 때로는 친근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정기를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으로 일상 속으로 다가온다. 산대희가 이루어질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과 지금 만들어질 산대희를 보고 느낄 감정, 그리고 고유문화를 지켜내고 발전시킬 미래의 시민들의 감정이 복원을 통해 공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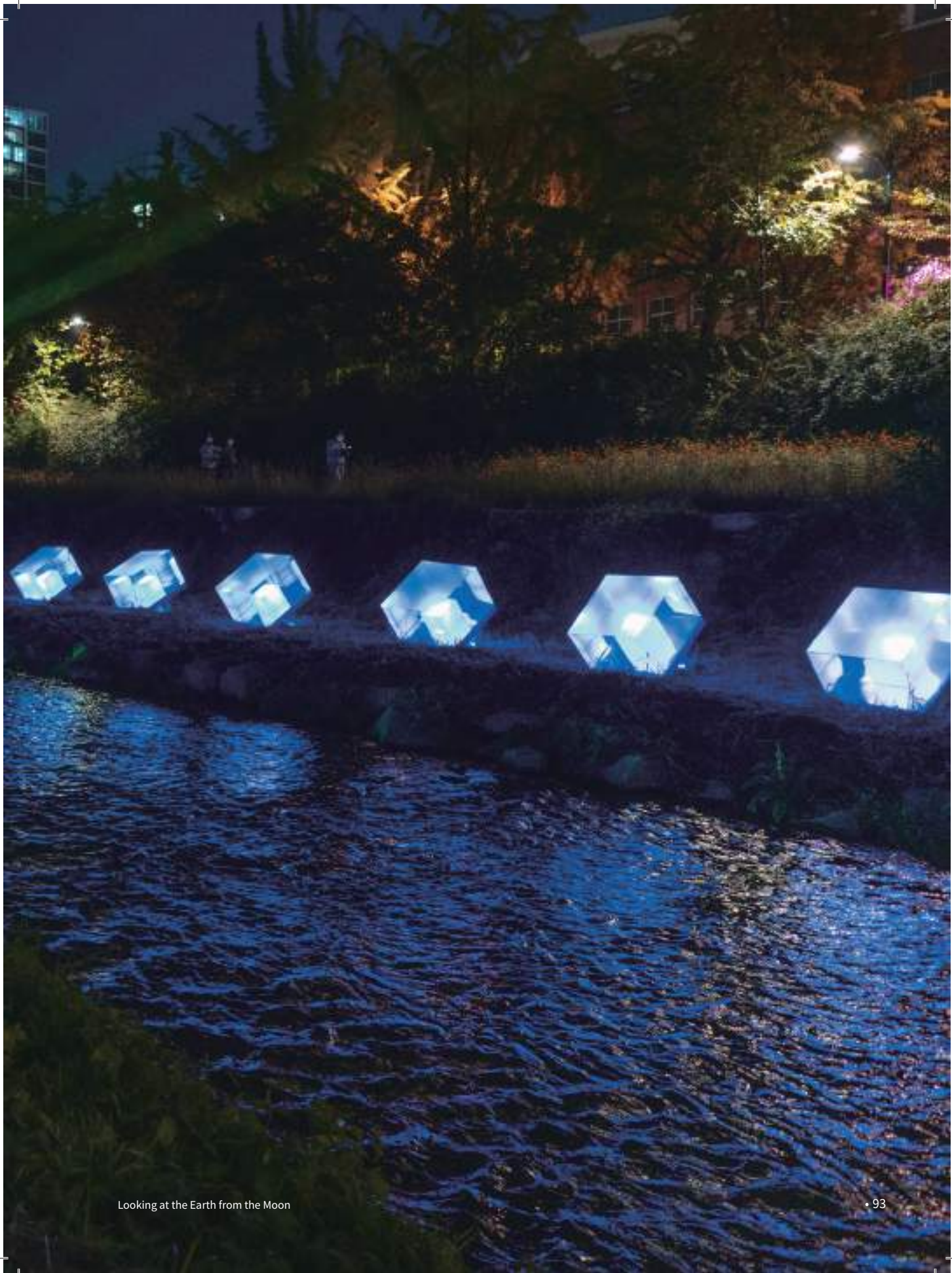
This work is in shape of a white tiger from motif of Yesandae(mountain-shaped portable stage), previously the signature of Sanhaehee. Beyond the mere restoration of traditional culture, symbolic elements were recreated to be more suitable for the contemporary era. The white tiger approaches us in the image of a friendly animal, but also as guardian who protects our spirit. Through this restorative sculpture, the emotions felt by the viewers of Sandaehee when it was performed back in history, emotions felt by the viewers of this work now, and what the future citizens may feel as they protect our culture and develop - They all come into co-existence.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큐브에 달빛을 담다 Moonlight in the Cube

아크릴 큐브 속에 빛이 변화하며 레이저 이미지와 어우러지게 한 작품이다. 달빛을 닮은 빛이 당현천 변에서 빛난다. 조명의 색과 레이저를 컴퓨터가 제어하며 기술적 신비로움을 더한 뉴미디어 설치 작품이다.

The changing lights inside the acrylic cubes go well with laser images shot simultaneously. The light resembling the moonlight shines about Danghyeongcheon. This is a new media installation with technological wonder as the laser and the color of lights are controlled by a computer.

윤제호 | Yun Jeho
reflective film, 10 transparent acrylic cubes, iron frame, LED par light, computer, laser, sound devices /
800x800x600mm 10 acrylic cubes / dimensions variable / 2021



달집

Moonhouse

‘달. 지구를 보다’라는 전시의 부제처럼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을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의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건물의 상층부에는
달에 살고 있다는 토끼가 앉아 있다.

Just as the theme of the exhibition.
the Earth seen from the moon
is symbolically expressed as the
inextinguishable city light of buildings.
On the top of the building, there sits
a rabbit which is believed to reside on
the moon.





바람의 울림-소리나무
Vibration of Wind - Sound Tree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불의 울림
Vibration of Fire

성동훈 | Sung Dong-Hun
iron, ceramic bell / 3500x2800x3700mm / 2014



달빛 속의 울림
Vibration in the Moonlight

성동훈 | Sung Dong-Hun
iron / 1400x1100x1550mm / 2014

<바람의 울림-소리나무>는 철을 소재로 묵직하고 깊이 있는 사유를 전달하는 조각가 성동훈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철로 만든 나무에 세라믹 풍경(風磬)을 달아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이 흔들리며 철이 주는 강인한 질감과 함께 싱그러운 풍경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달을 물려고 힘차게 비상하는 거북이를 표현한 <달빛 속의 울림>, 불속에서 부드러워진 철의 질감을 느끼며 앉을 수 있도록 한 <불의 울림>을 함께 전시하여 시각, 촉각, 청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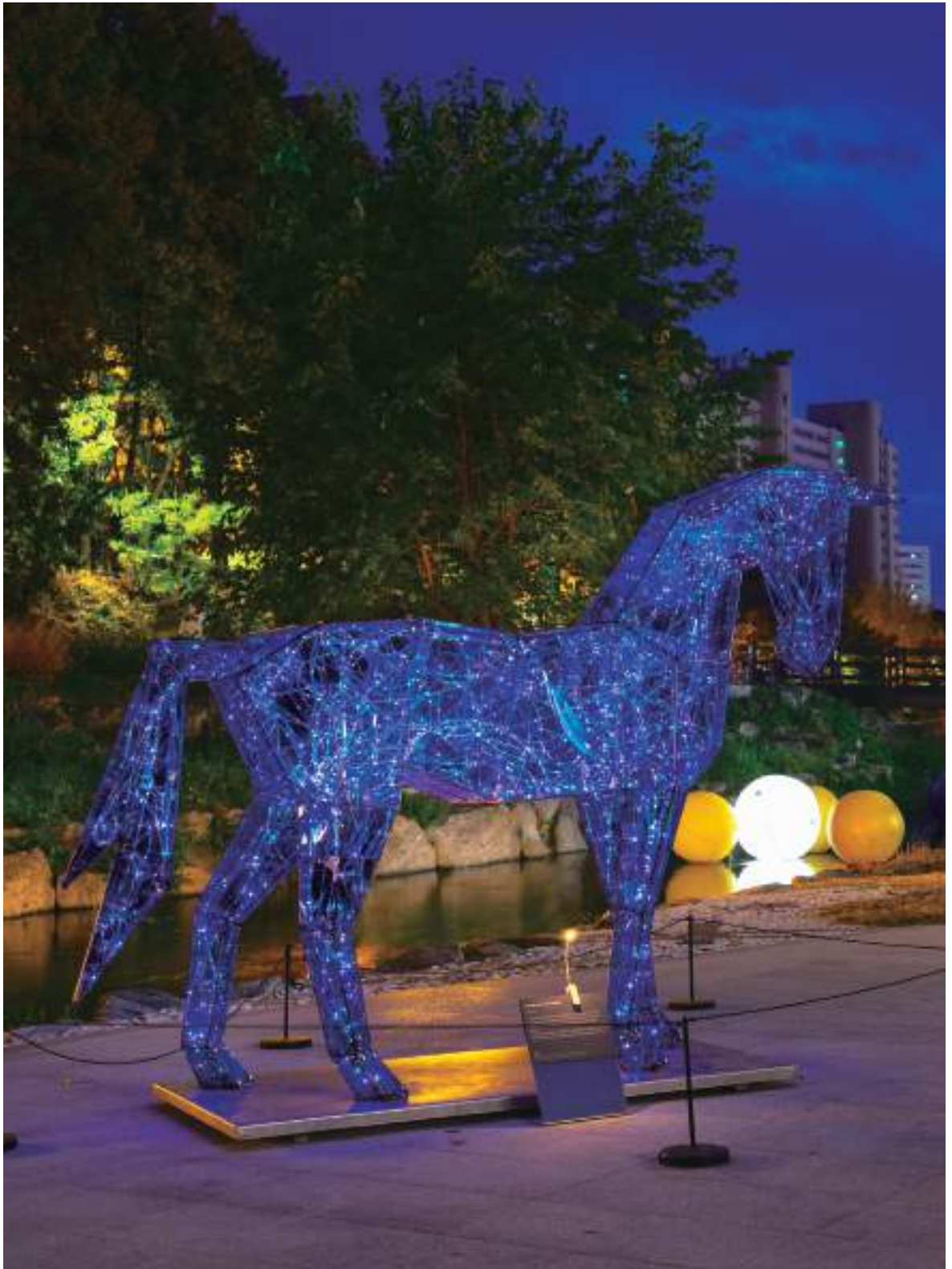
<Vibration of Wind - Sound Tree> is Dong-Hun Sung's signature work created in iron that conveys a deep contemplation. While carrying a sense of vigor from the texture of iron, the ceramic wind chimes hanging from the iron tree deliver a delightful bell sound whenever the wind blows. <Vibration in the Moonlight> depicts a turtle soaring boldly to bite the moon, and <Vibration of Fire> offers a seat to feel the softened iron from fire: Sung's works provide you with visual, tactile and auditory satisfaction.

Quadruped / December

‘도시를 위한 네 발 짐승’이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철 작가의 작품들이다. <Quadruped>는 네 발 짐승이라는 뜻으로 밤에는 조명으로 빛나는 말 조각상이다. 태양광 전지로 빛을 내는 작품으로 에너지의 미래와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두 마리의 순록을 형상화한 <December>는 산타의 썰매를 끄는 순록들을 연상케 한다. 사슴 루돌프의 코처럼 서로 다른 패턴으로 변화하는 조명으로 이들을 알아볼 수 있다.

Cho Youngchul has been creating works in the theme of ‘four-legged animals for the city’, and his sculpture titled <Quadruped>, meaning a four-legged animal, is in shape of a horse and lights up at night by solar energy that had been accumulated during the day. Such method of lighting leads the viewers to consider the future of energy and environment. In the form of two reindeers, <December> reminds the viewers of Santa's sleigh, and just as Rudolph's nose, the lighting that keeps changing patterns enables them to be recognized.

조영철 | Cho Youngchul
stainless steel, polycarbonate, solar-power LED lighting / 2000x1000x2600mm / 2021





December







평면 지구
Flat Earth

달빛 정원
Moonlight Garden

지구의 자연을 이상적으로 형상화한 프로젝션 매핑 영상설치작품이다. <평면지구>는 흰 원반형 부조 조형물 위에 영상을 매핑 한 작품이며, <달빛 정원>은 흰 원반형 부조 위에 이끼와 나뭇잎을 장식하여 영상을 매핑 한 작품이다. 낮에는 조각 작품으로 보이지만 밤에는 그 위에 신비로운 자연이 영상으로 보인다. <평면 지구>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하늘에 떠 있는 섬 라퓨타의 이미지를, <달빛 정원>은 태고의 자연을 상상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Seemingly white relief sculptures during the day, the video clip of magical nature is projected on the pieces at night - ideally describing the nature of the Earth. <Flat Earth> has the image of Laputa (a legendary island floating in the air), while <Moonlight Garden> is about an imagination of the ancient nature.

The work here is <Moonlight Garden>, and <Flat Earth> can be found at the opposite pier.



달빛-그림자놀이

Moonlight-Shadow Play

달빛에 비친 신선의 세계. 소나무와 사슴,
학 등 동물(십장생)들이 달빛 아래 노닐고
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색상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CMYK 조명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만든
작품으로, 자연의 형상을 한 모빌을 설치하여
교각 벽면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든다.
빛은 달빛의 상징이며, 그림자는 달빛에
드러나는 세상을 의미한다.

유대영 | Dizi Riu

CMYK lighting on Danghyeon 1 Bridge for shadow effect / dimensions variable / 2021



The world of gods revealed by the moon: Trees and animals such as deer (from 十長生: Ten Symbols of Longevity) are frolicking under the moonlight. The mobiles in shapes from nature are installed upon a bridge and the CMYK lightings create their shadows in various colors. The lighting represents the moonlight, and the color shadows are the world revealed by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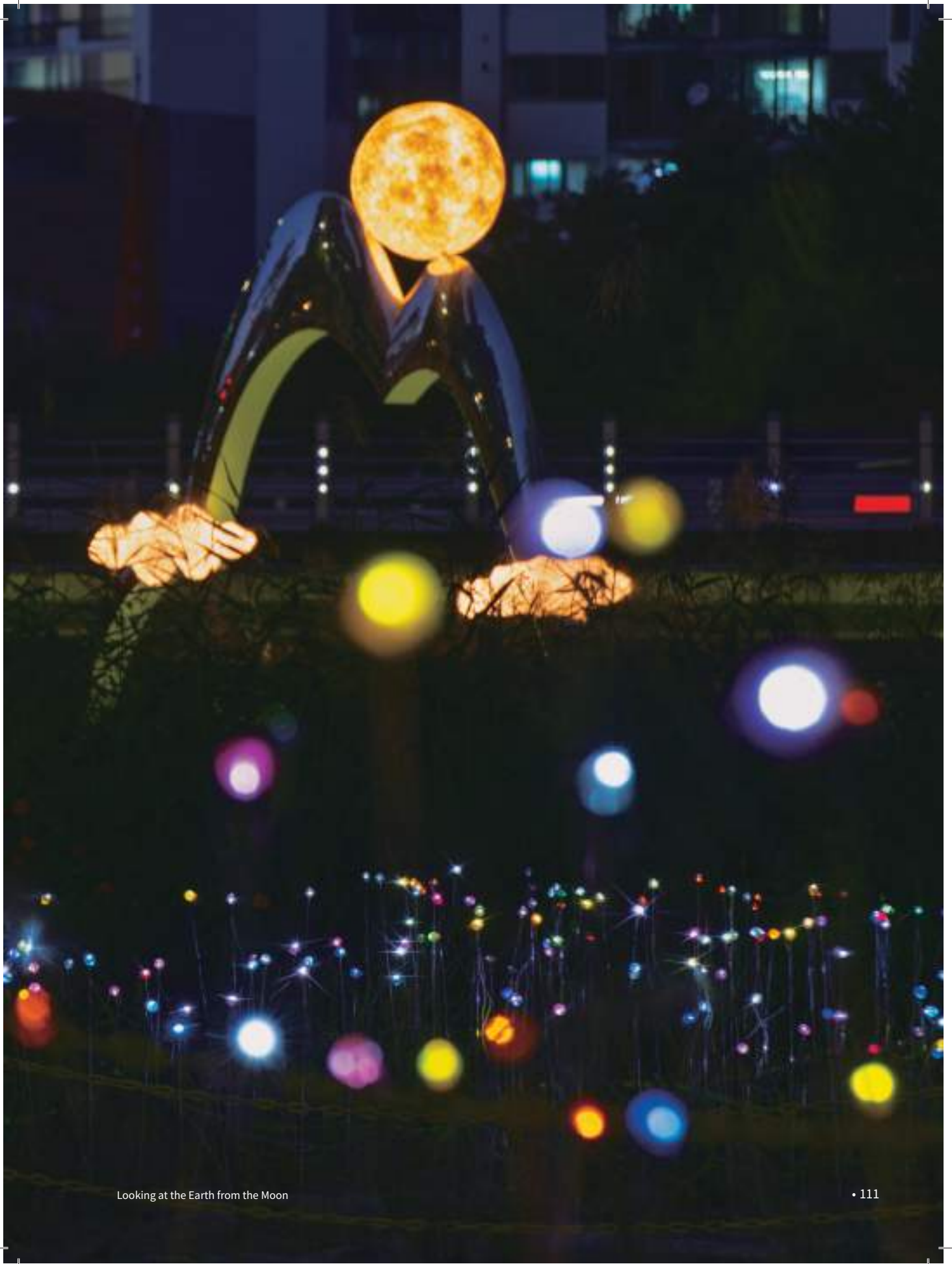
반딧불이 Fireflies

강가 풀숲에 500여 개의 빛나는 구슬이 반딧불처럼 반짝인다.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반딧불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을 작품으로 옮겼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풀 속에서 흔들리는 빛들은 자연이 주는 감동을 재현해 준다.

250 dots are twinkling at the river grass; It is an exquisite sight of fireflies that cannot be spotted in a city. The lights that stir gently upon the wind move our hearts as if touched by nature.

김현준 | Kim Hyunjun

LED lights, resin, stainless steel / 500 pieces, height less than 1 meter / dimensions variable / 2021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작품 소개 ③ — 특별전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숨 Breath

생명을 상징하는 알의 형상과, 푸른빛으로 채색한 거대한 벌룬 작품이다. 거대한 알은 수축하고 팽창하며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생명력을 전한다. 밤에는 변화하는 조명이 투과되어 태고의 신비로운 생명의 빛으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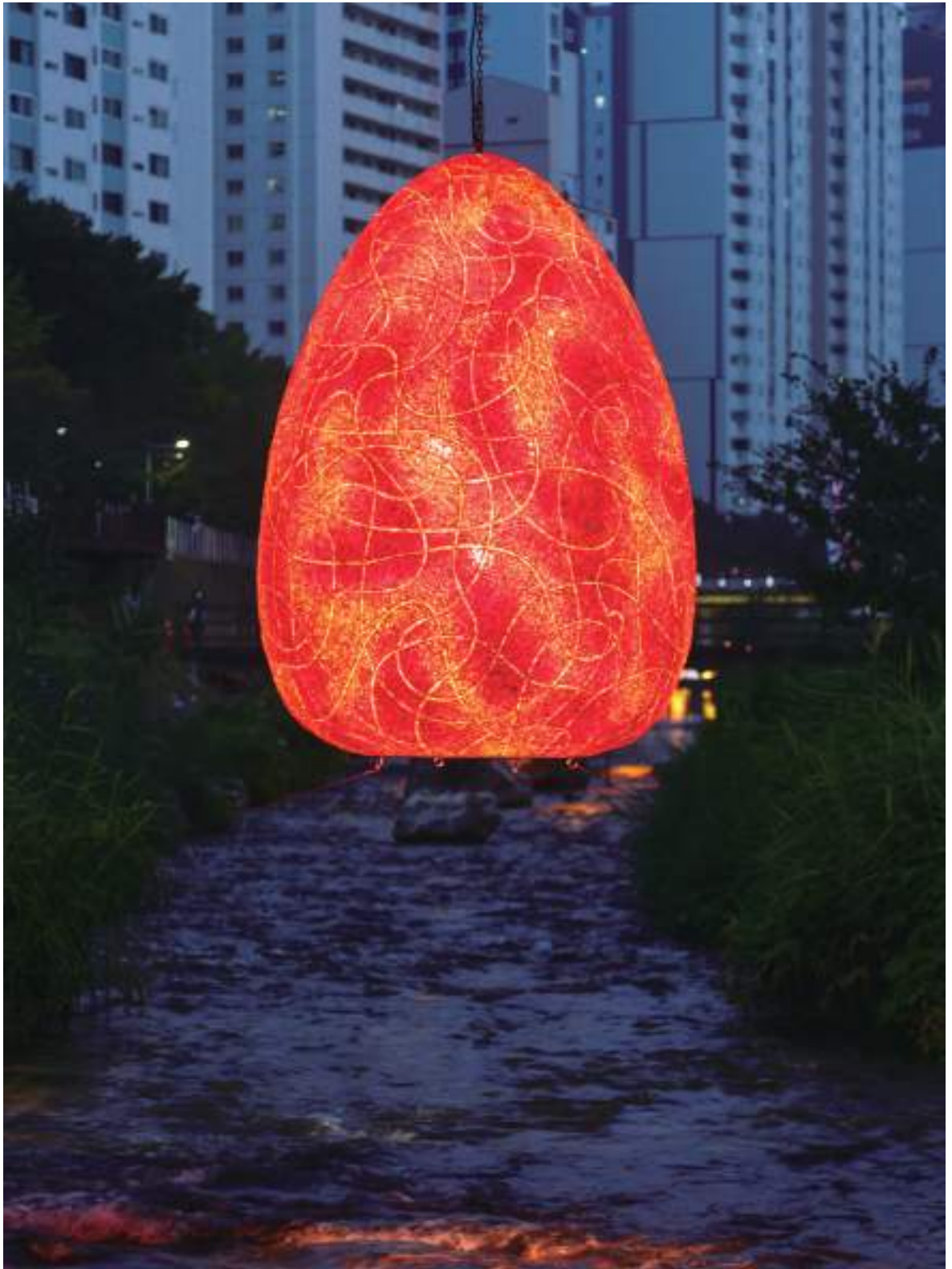
These are blue-colored gigantic balloons in the shape of eggs, symbolizing life. With the continuing slight movements, they seem to be alive and breathing. At night, the light installations inside keep changing, giving the eggs a mysterious primitive ambience.

Redcide 2018

이 작품은 붉은빛으로 에너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강렬한 ‘붉은색’은 우리를 재단하고 구속하는 강력한 기준을 의미하며 붉은 틀을 비집고 나오는 불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틀을 깨고 나오는 희망을 의미한다. 붉은 심장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은 한계와 속박을 넘어서는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창조적인 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This artwork describes energy with red light; the color suggests a firm standard that judges and shackles us, and the light seeping out the red frame stands for hope that breaks free from despair. Even resembling a heart, it is about passion that overcomes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r a creative spirit hatching from an egg.

인송자 | Yin Song-ja
stainless steel, Hanji, LED lighting / 1300x1300x1800mm / 2021





혼돈_균형

Chaos_Balance

이 작품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복잡하게 얽힌 형상을 담은
육면체가 위태롭지만 균형을 이루며 서있는
형태는 코비드19가 가져온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해내는 상황을 표현한다.

인송자 | Yin Song-ja
mixed media, installation of inner lighting / 2pieces 2120x2120x2800mm(including pedestal) / 2021



This artwork is about human beings living through the pandemic era. Two hexadrons are standing precariously but in balance, representing all of us in this time of turmoil caused by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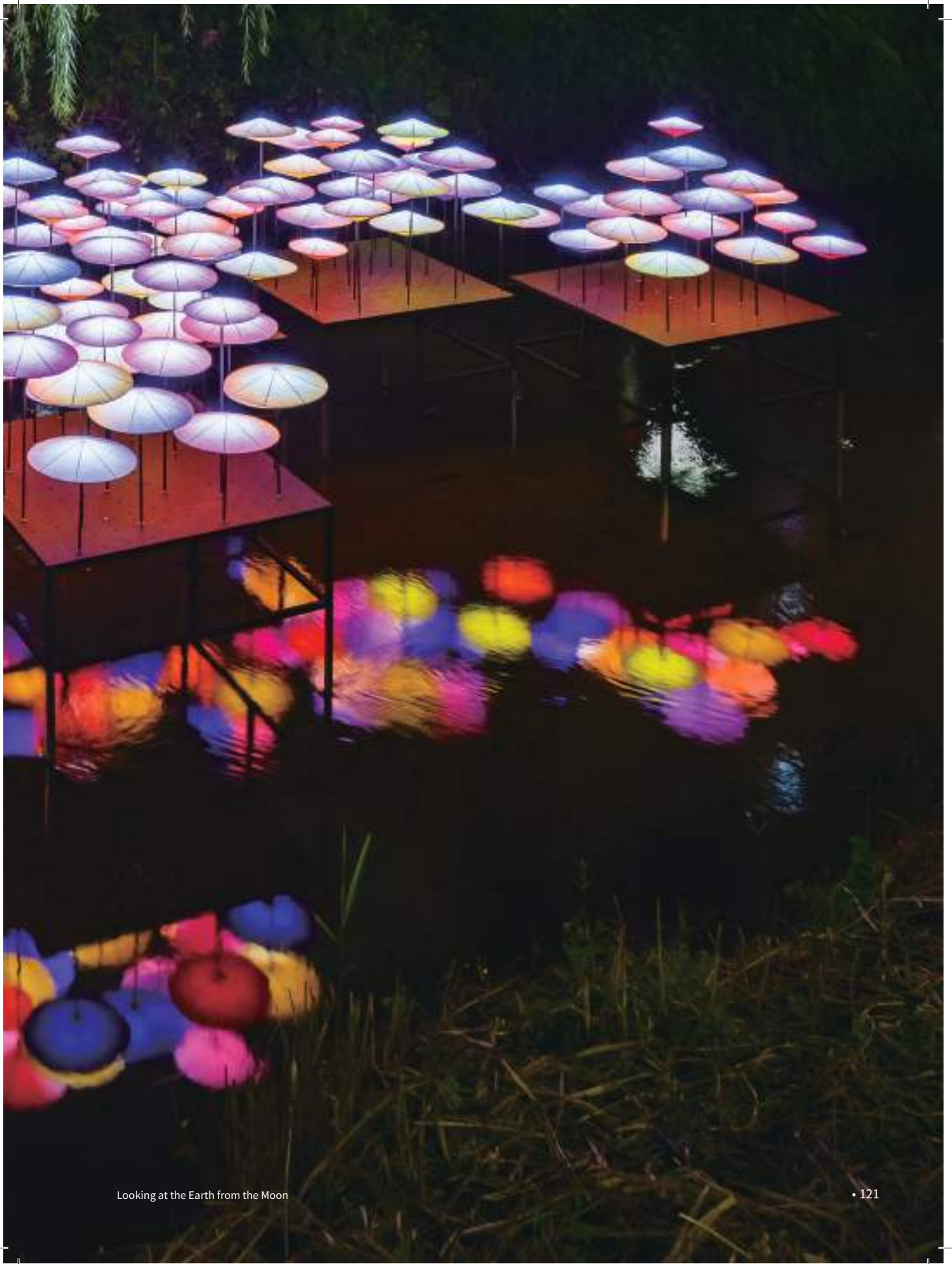


꽃피다 Blooming

코로나19 시대에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작지만 강인한 들꽃처럼 피어나 어둠을 밝히는 꽃송이들은 팬데믹 이후 꽃피울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약속한다.

This artwork is about hope for the future in the era of COVID-19. A promise of hope for the new generation that will blossom once the pandemic subsides, it invites you to enjoy the illuminated flowers that are sustaining like the wild plants.

인송자 | Yin Song-ja
mixed media variation / 6pieces 1200x1200mm / dimensions variable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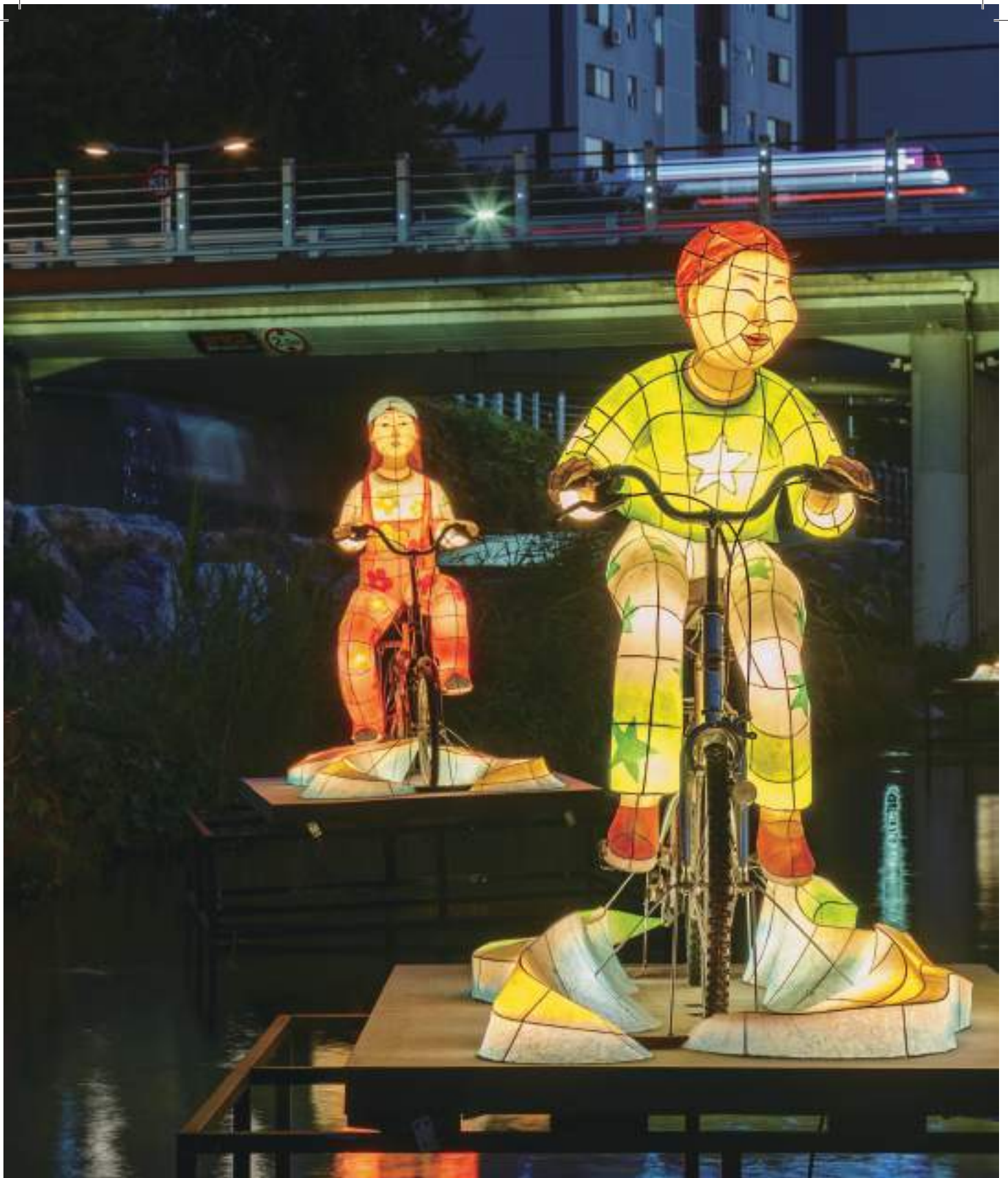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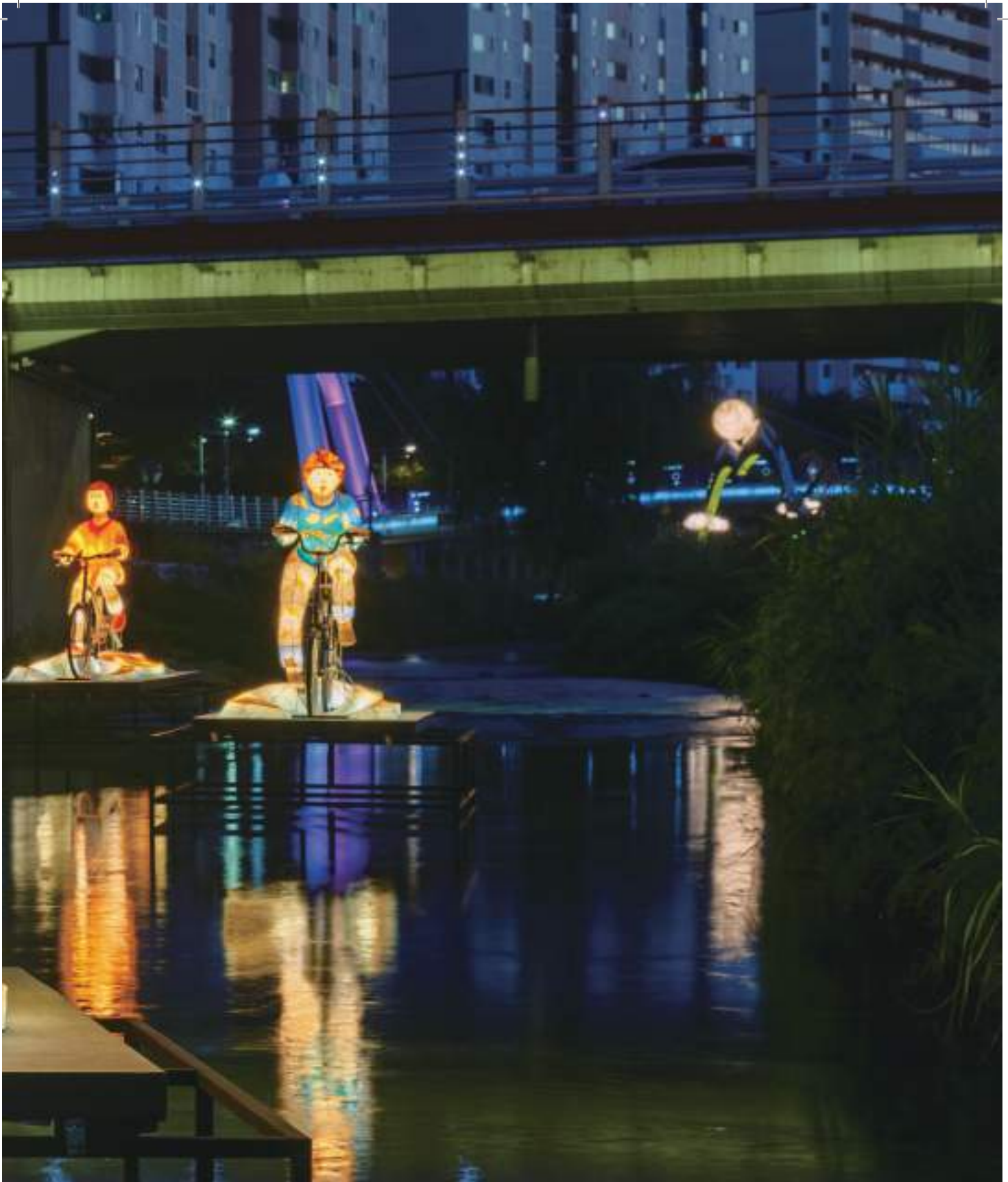
자전거 탄 아이들 Kids riding on Bicycle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관람객과 함께한다.
The citizens walking along Danghyeon
Stream are joined by the delightful
kids on bicycle.

인송자 | Yin Song-ja
wooden stylobate, bicycle, galvanized iron wire, lighting / 1700x2000x1800mm / 2015







수학의 이모티콘

The Emoticons of Mathematics

부등호, 집합 기호, 곱셈기호가 둥근 톱니바퀴 판 위에서 제각각 돌면서 다양한 감정의 이모티콘을 만들어낸다. 회전하는 기호에 조명을 공급하는 전선들이 꼬이지 않도록 슬립링을 장착하고, 전체 움직임을 아두이노 코딩으로 제어하는 등 첨단 매체와 전자제어 기술을 사용했다. 형태적으로는 기술을 상징하는 톱니바퀴를 노출하여 이모티콘의 표정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An inequality symbol, a set symbol and a multiplication sign rotate on a round cogwheel independently, creating emoticons of various feelings. The state-of-the-art media and electrical technologies are used; Slip ring to prevent entanglement of wires that supply lighting to rotating symbols, and Arduino coding device to control the artwork's entire movement. As for its appearance, the cogwheels – often the symbolic image of technology – are disclosed to show the production process of emoticonic expressions.





물속에 뜬 도시와 달

A City and the Moon afloat on the Water

수학문화관 앞에 집합 도형 형태의 슈퍼 미러
7개를 당현천 수면 위에 띄워 주변의 환경을
반사하도록 만들었다. 작품의 제목처럼
거울 속에 도시의 풍경이 비치도록 했고
밤에는 각도에 따라 달이 뜬 모습도 발견할
수도 있다. 거울에 비친 주변의 풍경은
당현천의 시점이라는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김현준 | Kim Hyunjun
super mirror, stainless steel / 2pieces 1810x1890mm, 2pieces 2362x2263mm,
1piece 1985x1203mm, 2pieces 2640x1600mm / dimensions variable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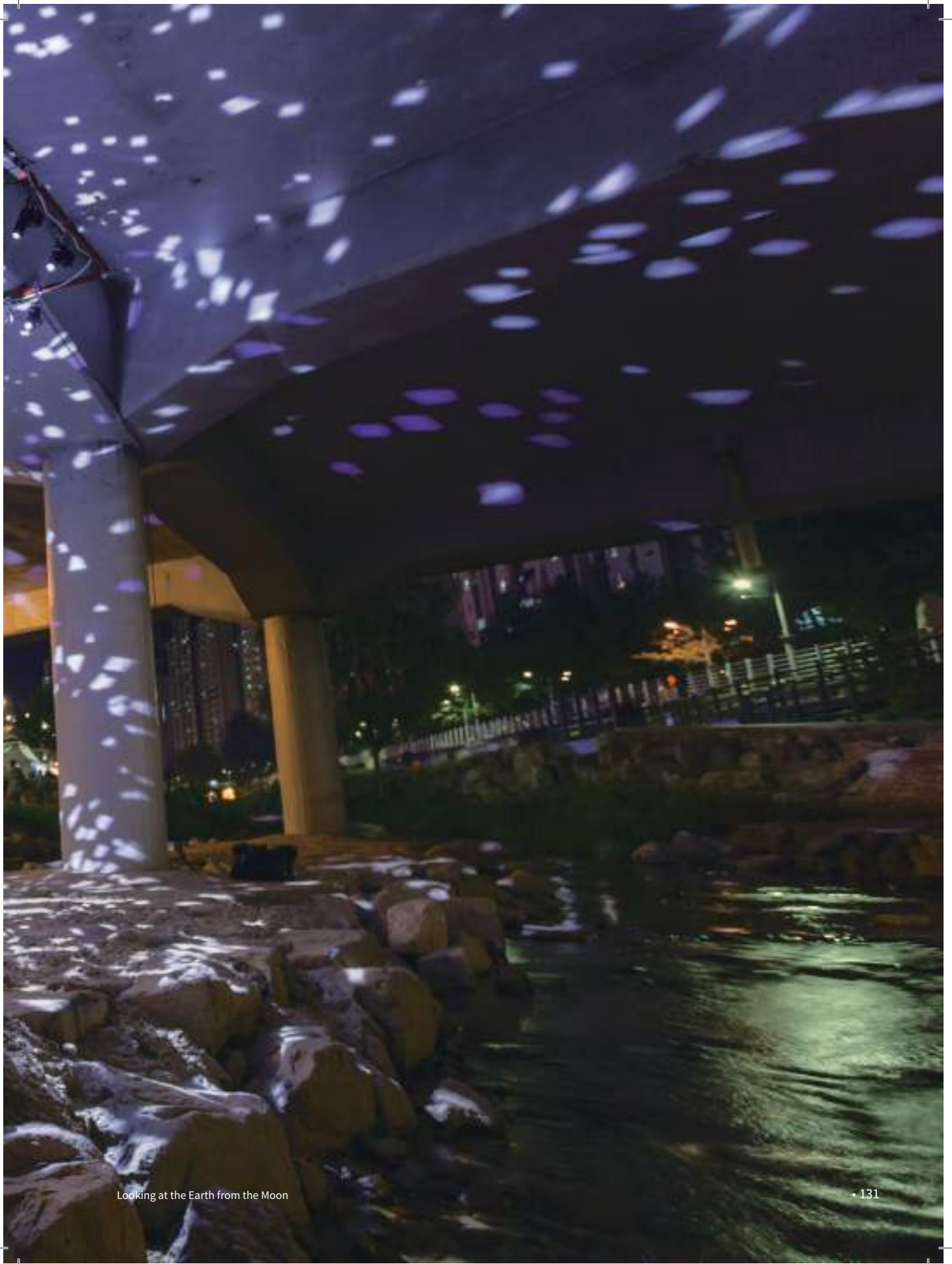
Seven super mirrors –in the form of set figures– are afloat on the surface of Danghyeon stream in front of Nowon Mathematics Museum to reflect their surroundings. Just as the title of the work, the urban landscape is reflected in the mirror, and depending on the angle, the moon can be seen on them at night. Such reflection of the area leads us to gain a new perspective of our surroundings with Danghyeon stream as the viewpoint.

물소리, 문
Sound of Water, Moon

재개발 지역에서 수집한 콘크리트 조각, 거울 조각 등 산업사회 잔해들로 만들어진 사회적인 함의를 담은 작품이다. 재료와 모자이크 기술은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모티프로 사용된다. 모자이크 방식으로 붙여진 거울 조각은 빛을 반사하며 어두운 다리 주변에서 수많은 별빛처럼 빛난다.

This artwork is made with debris of wastes found at brownfield sites such as fragments of mirror and concrete. The materials and the mosaic technique hold a personal meaning to its creator, while they are used as a motif to light up the grim side of our current society. As pieces of mirror that are put together in mosaic method reflect light, they sparkle like countless stars about a dark bridge.

최성균 | Choi Sung-kyun
silver mirror mosaic, 20 LED pin lightings / 1200x1000mm / 2021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작품 소개 ④ — 시민 참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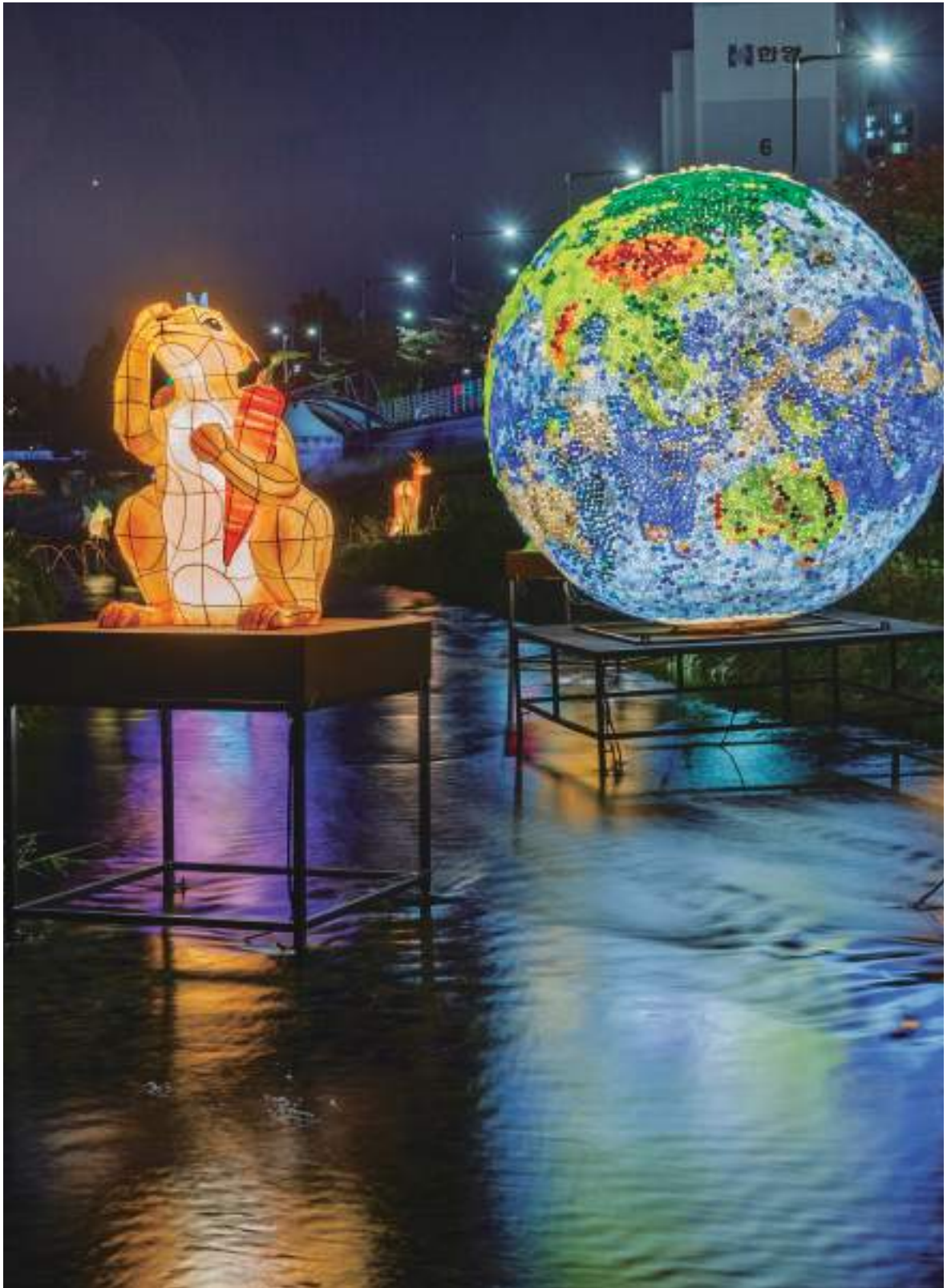
지구와 12지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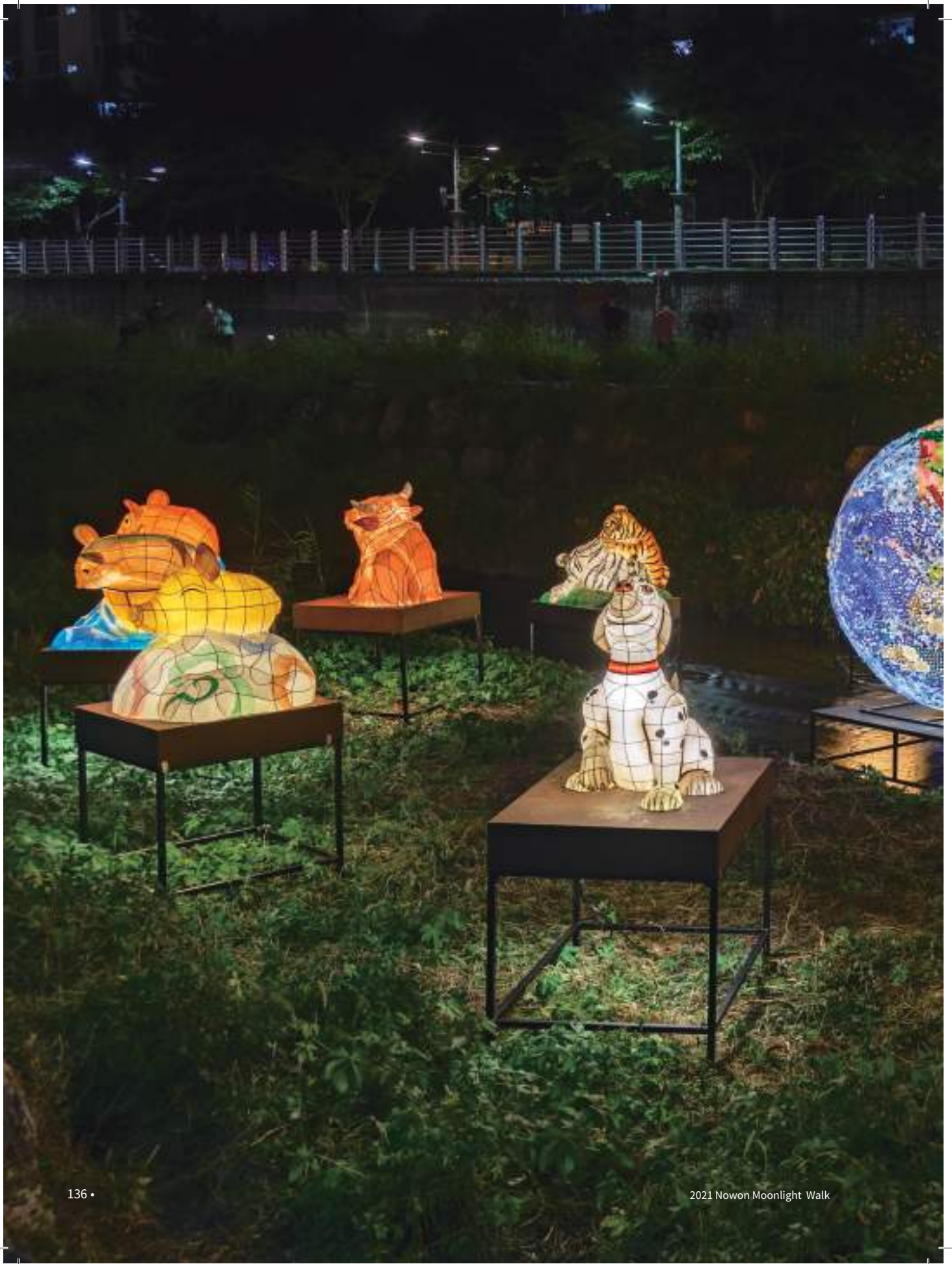
The Earth and the 12 Zodiac Anim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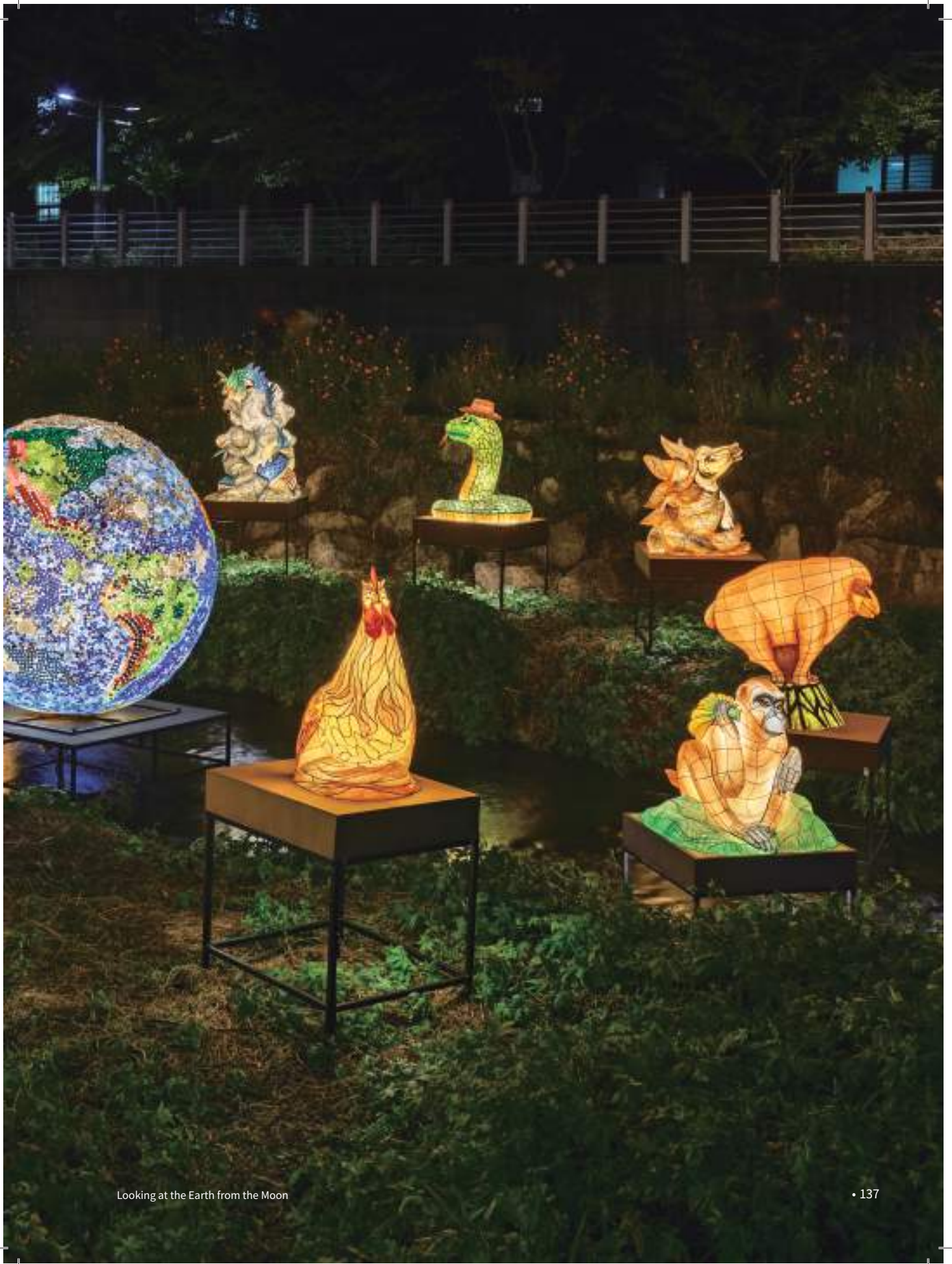
구민들이 협업하여 만든 지구와 12지 동물을 함께 전시한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로 이루어진 12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각각 목, 화, 토, 금, 수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며 우주 만물의 특성을 대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를 12지가 감싸며 보호하고 있다.

The planet Earth and the 12 zodiac animals were created together with the citizens of Nowon-gu.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sheep, monkey, chicken, dog, and pig are not simply just animals, but each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of wood, fire, earth, gold, and water, and can represent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They are surrounding and protecting the Earth in agony due to COVID-19.

노원구민 참여 작품 | Citizen-collaborative work
steel, stainless steel, Hanji, lighting / 2500 ø Earth & 12 light sculptures in variable installations / 2021









우리 집 I Our House I

노원구민이 참여하여 만든 작품이다. 밤에는 내부에 조명이 들어와 외부에서 보면 집 형태의 조명 설치작품이 된다. 재료는 충북 괴산의 삼림 가구기로 벌목된 나무와 한지조명이다. 작가는 TV, 스마트폰, 밤까지 계속되는 학업과 업무로 대화가 줄어드는 가족이 집 들어가 스마트폰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집의 이름은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었는지에 따라 다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방역 관리 문제로 <우리 집 II>만 운영하였다.

This work was created in participation of Nowon-gu citizens. At night, the inside of the structure is lit up that outwardly it becomes an illuminated installation artwork in the shape of a house. The materials used are Hanji lighting and logs harvested through forestry activity from Goesan of Chungcheong province. Art director Yong Il Jeon designed it for a group of family to enter the structure without cell phones and rekindle conversation that has ceased due to watching TV, using smart phones, studying and working late into nights.

The original plan was for the house to be renamed according to the most discussed topic, but, only <Our House II> was operated in concern of COVID-19.

재미있고 솔직한 Fun and Candid

노원구민이 참여하여 집처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조형물이다. 밤에는 불이 들어와 집 형태의 대형 조명 설치작품이 된다. 충북 괴산의 삼림을 가꾸기 위해 벌목한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친환경 작품이다.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밤까지 계속되는 학업과 업무 등으로 대화가 줄어드는 가족이 집 안에서 스마트폰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 집 II>이었는데, 전시 기간 중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에 따라 제목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시가 끝난 후 이 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한 단어인 <재미있고 솔직한>으로 제목을 정하였다.

This work was created in participation of Nowon-gu citizens. At night, the inside of the structure is lit up that outwardly it becomes an illuminated installation artwork in the shape of a house. The materials used are Hanji lighting and logs harvested through forestry activity from Goesan of Chungcheong province. Art director Yong Il

Jeon designed it for a group of family to enter the structure without cell phones and rekindle conversation that has ceased due to watching TV, using smart phones, studying and working late into nights. The title of the work was originally <Our House II>, but the plan for the project was to rename it according to the most discussed topic of conversation that took place inside the structure. When the exhibition ended, the title was chosen to be <Fun and Candid>; the two most mentioned words by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offered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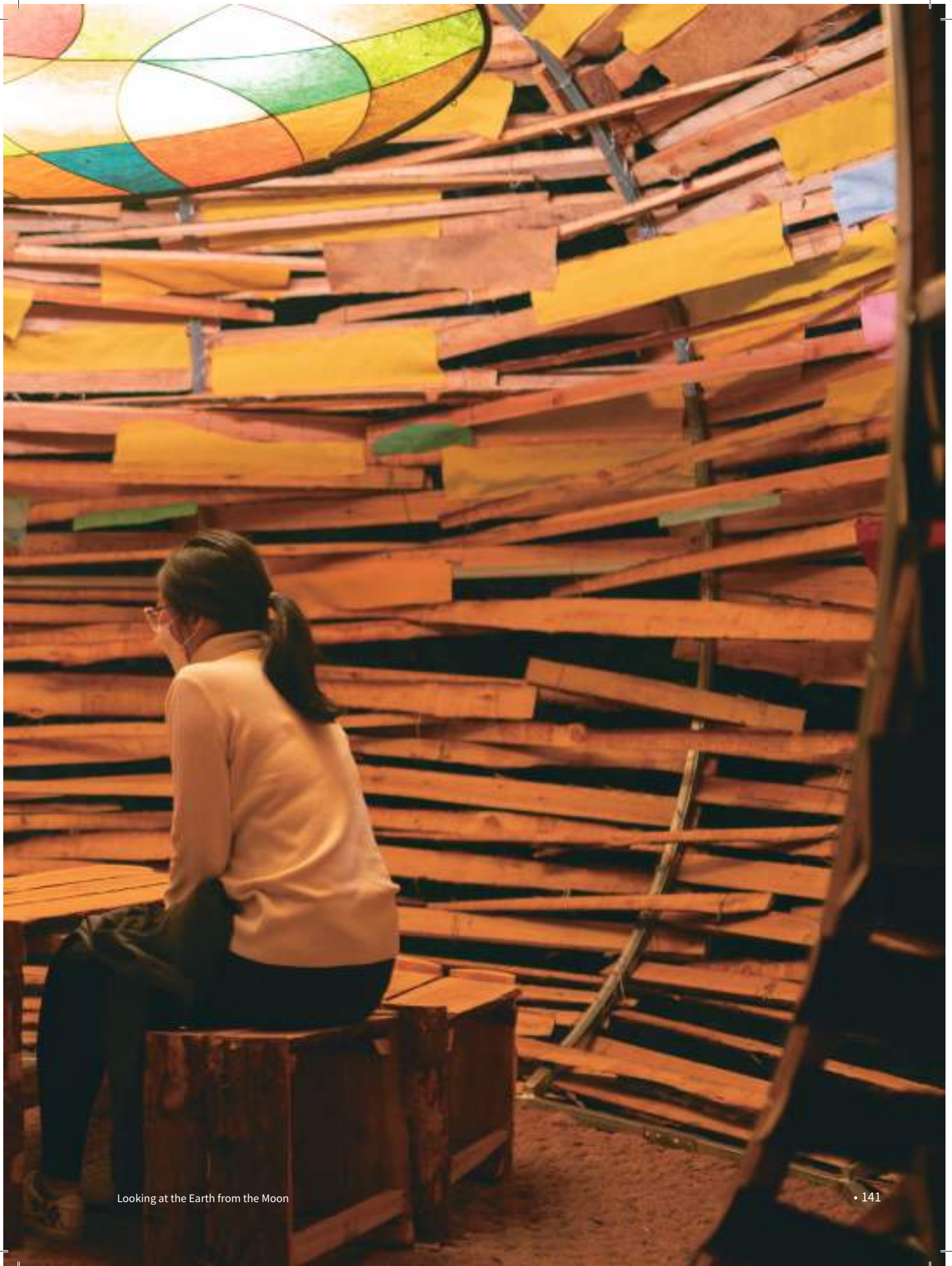


A person wearing a light-colored cap and a white face mask is sitting in front of a wall made of wooden pallets. The wall is decorated with various colorful papers and a large, abstract, colorful circular artwork. The scene is dimly lit, with warm light coming from the right side.

대화 참여자 | Participants

박 찬, 이재환, 김민영, 정수호, 김태영, 김명란, 모은빈
이로아, 조건우, 이형렬, 차상아, 한영석, 최승구, 유명미
이보람, 구민정, 송상일, 한지원, 탁선희, 최미소, 유호이
박희영, 박대섭, 권은영, 염희선, 장명애, 박은경, 배현지
임지희, 김동현, 이상란, 이수현, 심억식, 김주진, 임윤희
전현숙, 이수은, 이지애, 김주미, 나미영, 김은서, 김은빈
윤 연, 김수희, 김도연, 박수현, 이주연, 김경희, 한상헌
유수정, 김재이, 방주현, 안재구, 김경수, 김정우, 최다솜
이윤직, 이우진, 민진아, 이윤진, 이남석, 조미애, 김인선
김희숙, 손현실, 임병제.

Park Chan, Lee Jae-hwan, Kim Min-young,
Jung Su-ho, Kim Tae-young, Kim Myeong-ran,
Mo Eun-bin, Lee Roa, Cho Keon-Woo,
Lee Hyung-ryeol, Cha Sang-ah, Han Young-seok,
Choi Seung-gu, Yoo Young-mi, Lee Bo-ram,
Koo Min-jeong, Song Sang-il, Han Ji-won,
Tak Seon-hee, Choi Mi-so, Yoo Hoi,
Park Hee-young, Park Dae-seop, Kwon Eun-young,
Yeom Hee-sun, Jang Myung-ae, Park Eun-kyung,
Bae Hyeon-ji, Lim Ji-hee, Kim Dong-hyun,
Lee Sang-ran, Lee Su-hyeon, Shim Eok-sik,
Kim Joo-jin, Lim Yun-hee, Jeon Hyun-sook,
Lee Su-eun, Lee Ji-ae, Kim Joo-mi, Na Mi-young,
Kim Eun-seo, Kim Eun-bin, Yun Yeon, Kim Su-hee,
Kim Do-yeon, Park Soo-hyun, Lee Joo-yeon,
Kim Kyung-hee, Han Sang-heon, Yoo Soo-jung,
Kim Jae-i, Bang Ju-hyeon, Ahn Jae-gu,
Kim Kyung-su, Kim Jeong-woo, Choi Da-som,
Lee Yun-jik, Lee Woo-jin, Min Jin-ah, Lee Yun-jin,
Lee Nam-seok, Jo Mi-ae, Kim In-sun,
Kim Hee-suk, Son Hyeon-sil, Lim Byeong-je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달, 희망을 노래하다

The Moon, sings of Hope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구민들의
창작시(詩)와 짧은 산문 출품작 중 10편을
선정하여 한지조명에 담았다.

The citizens of Nowon-gu created
poems and short prose in the theme
of overcoming COVID-19, and among
the entries, 10 were chosen to become
lighted Hanji artworks.

선정 작가: 전용숙, 도경원, 이순지, 윤슬, 오미애, 홍, 박순자, 임정원, 김명원, 송명희
Selected writers: Jeon Yong-sook, Do Gyeong-won, Lee Soon-ji, Yoon Seul, Oh Mi-ae, Hong,
Park Soon-ja, Im Jung-won, Kim Myeong-won, Song Myung-hee

사람과 발발이 밟는 거리
 꽃을 밟을 먼 길은 수리가 새겨진 사리였다
 사리를 만나는 시간보다
 만나지 않는 시간이 정답이기에 만났어
 얼굴에는 다연하듯 웃음
 미소애신구한 지막이 기억되어
 이속에서 내가 되찾는 것은 사랑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너무 우거진 숲사이로 흐르는 길에 만났어
 그 길에는 나를 수련하는 단풍이 줄이 되어
 희마는 밝고 맑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미처 잊고 있던 시간이 돌아왔다
 그저 간헐적 기억만 있었어
 노닐고 싶었어 너에게
 "힘내라 힘내라"라고 치꾸만 밟을 건가
 권선과 미를 수련하고 싶고 생각했는데
 미친 보너스 그 길에는 희마가 있었어
 이순기

마스코 시대 기록
 우리는 지금가면 어디로 갔어
 모두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면서
 밤이 온다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바뀌어
 입술이 붉어지고 눈이 멀어 버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본래의
 피로한 쓰임새였던 것은 분명해
 마음은 열매나 울렁거리고 싶어
 침묵이 곱아 타면 밤새 울고 싶어
 손을 떼어서라도 떠나고 싶어
 조명을 켜고 싶을 때
 건들지 마세요 새하얀 하늘을 대충 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갔어
 그대를 알아야 하네
 손을 흔들어 주거나 나우고 싶어서
 아픈 내 마음을 저를 믿는 아이들에게
 꼭 대충 물어주세요
 우리시대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노원달빛산책의 점등 시간은 저녁 6시이므로, 5시 30분 무렵 운동화 끈을 확인하고 중랑천을 향해 현관 문을 나선다. 북쪽을 마주하고 중랑천 옆길을 걸으니 동부간선도로는 주차장인가 싶다. 차 안에 꼼짝없이 잡힌 채 도로 위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이 생에서 없는 것인가’를 한탄하고 있을 운전자들에겐 미안한 마음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퇴근길 운전자들의 수고로움 덕분에 붉은색 꼬리등의 행렬이 가을 단풍이나 크리스마스 조명처럼 느껴진다. 중랑천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건다가 하계역 인근 한내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당현천을 만나게 된다. 당현천을 따라 동북 방향으로 올라가면 상계동으로 이어진다. 당현천은 상계 수락산에서 시작되어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는, 폭도 좁고 물 깊이도 무릎 아래까지만 오는 하천이지만, 길이가 6킬로 이상 되는 제법 규모가 큰 하천이다. 이 당현천 가운데 당현 1교와 2교를 중심으로 약 2킬로에 걸쳐 <노원달빛산책>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를 함께 보러 오기 위해 삼삼오오 걷는 사람들의 마스크 쓴 얼굴들은 작품들이 내뿜고 있는 은은한 달빛 조명 효과를 받고 있어, 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도 마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다.



수학문화관 앞.



한국성서대학교 앞.
성동훈 작가의 <바람의 울림-소리나무>,
<불의 울림>, <달빛 속의 울림> 전경.

1_이 글의 제목은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김재성 옮김, 뮤진트리, 2016)이라는 소설의 제목에서 따왔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평생 동반자와도 작별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 70대 전후의 노인들이 주인공이다. 주인공들은 낮에는 그럭저럭 은퇴자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밤이면 2층 침실(집의 다른 방들의 주인들은 모두 떠난 상태다)에서 매일 혼자 자야 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소설은, 어느 초저녁 여자 주인공 애디 무어가 남성 주인공인 루이스 워터스의 집에 찾아가 매일 밤 한 침대에서 같이 잘 것을 제안하는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애디의 제안은 성적인 니앙스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순전히 “침대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준다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 밤중에,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 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필자의 <노원달빛산책>의 전시 비평도 주제 면에서 밤 산책, 연대, 대화, 공동체의 공간, 예술 전시의 공유 등 글의 주제에서 이 소설의 모티브와 맥을 같이 하므로 소설의 제목을 빌려오기로 했다.

이 전시와 인연이 있으려고 했는지 마침 나는 노원구에 살고 있다. 비평 글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다. 망설인 이유는 이 전시를 작년부터 내가 사는 동네가 주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로 경험한 터라, 비평의 관점보다는 별다른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눈을 즐겁게 하는 데 만족했기 때문이다. 제안에 대해 기뻐던 다른 이유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보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 전시가 가진 의미의 층위들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싶어서였다. 노원구민이므로 전시를 한두 번 보고 글을 써야 하는 다른 비평가들과는 달리,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노원달빛산책>의 작품들을 보았다.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작품들을 다각도로 볼 수 있었다.

<노원달빛산책>이 진행되는 당현천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하철 하계역이나 상계백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가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백병원 옆, 야구 연습장과 오래 살아 키가 훌쩍 큰 소나무들로 그늘이 많은 근린공원을 통해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방법이 좋다. 계단을 내려가며 점차 보이게 되는 작품들의 빛은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천 중앙에 봉 떠 있는 커다란 지구와 달, 그리고 이름 모를 행성을 재현한 <달빛 풍선> 작품은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문지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따르기 위해 작품 간 거리가 작년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 이러한 조건적 제한은 작품들을 지속해서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온전히 전시 전체를 한 호흡으로 끌고 가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작품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눈과 태도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선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계가 새로운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노원달빛산책> 전시의 중심은 하천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의 자연 및 인공 환경도 포함된다. 전시 환경은 말 그대로 당현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곳에서 단연 눈에 띄는 환경은 바로 당현천을 가파르게 둘러싼 20층 내외의 줄지어 선 아파트들이다. 당현천의 가로 폭은 겨우 50미터 내외이고 양옆의 도보와 자전거 도로를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다. 당현천의 양옆은 깎아 지른 듯한 높은 아파트들이 하천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세다. 작품들을 보며 걷다 보면 깊게 파인 계곡을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다. 청계천은 그 주변을 둘러싼 자동차 도로들 때문인지 고층 건물들이 청계천에서 조금 물러나 있고, 저녁이 되면 대부분 불이 꺼지는 상업 공간들이 밀집해 있다. 당현천은 청계천보다 폭도 좁고 양옆으로 자동차 도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주택 밀집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저녁 거실에서 스며 나오는 불빛들은 또 하나의 스펙터클이다.

노원구는 메트로폴리스로 팽창해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서울 내 신규 택지

개발 사업 대상지였다. 단순히 주택만 공급된 것이 아니라 각종 기반 시설이 제공된 대단지 주공 아파트 지역으로, 상계 주공 아파트의 성공 이후 중계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들어선 기실 아파트 공화국의 대표지이다. 당현천의 시작은 상계 주공을 거쳐 중계 주공 아파트들까지 이어지며, <노원달빛산책>이 전시되는 곳은 그야말로 양 옆 아파트 숲 한가운데이다. 모두가 노동을 끝내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노원달빛산책>은 점등한다. 전시장인 당현천의 한편에서 작품들과 주변 환경을 담은 사진을 찍어보면, 베타타운으로서 노원구의 아파트 숲이 내뿜는 거실 조명을 역시 이번 전시에 숨은 주인 공임을 실감할 수 있다. 이미 당현천 주변의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전시로 인한 인파의 소음과 빛 때문에 많은 양해와 배려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비평가이자 기획자로서 개인적인 욕심을 내보자면, 이 당현천을 둘러싼 노원구의, 또는 더 크게는, 서울의 아파트 대단지의 형세를 전시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싶은 욕심이 난다. 이번 전시 역시 노원구민의 참여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영일 작가와 구민들이 12지신을 모티브로 협업한 <12가지 동물>과 <우리 집> 시리즈 등이다. 전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전시 일색을 탈피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12가지 동물>의 구상 작업은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며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백남준의 전언을 실천한 작업이다. <우리 집> 시리즈는 스마트폰을 반납한 참여 가족의 퍼포먼스가 작품의 완성을 구성하는 보다 현대적인 작업으로, 참여하거나 보는 관객들은 미술관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예술 퍼포먼스를 친숙한 동네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이 전시가 구의 일 이회성 이벤트가 아닌 노원 지역만의 뚜렷한 자기 색을 주장하는 전시로 성장해 나가려면, 소규모의 시민 참여 작품들 몇 점 전시되는 것을 넘어 노원구의 지리, 정치적 특징을 이용한 보다 큰 규모의 전시 작업이 재현될 가까운 미래를 기대해 본다. 아마 그때 다소 과감한 작가들은 당현천 주변의 아파트를 외벽을 이용한 작품을 시도해 볼 수도, 이 지역의 지정학적 층위들을 드러내는 대지 예술 등등의 다양한 예술 형식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당현천은 수심이 아이 무릎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데다 맑기도 해서 조그만 물고기들이 떼 지어 다니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들어가서 놀아도 어른들이 굳이 말리지 않는 맑은 물이다. 맑디맑은 하천의 정 중앙에 놓인 작품 중 일부는 그 맑은 물속에 굴절된 이미지들과 빛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천의 정 중앙에 설치된 권민우 작가의 <수학의 이모티콘>은 주변에 있는 수학문화관이라는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이다. 바로 옆에 설치된 김현준 작가의 <물속에 뜬 도시와 달>은 낮과 밤에 따라 설치 거울에 굴절된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주된다.

각 작품이 말을 거는 대상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촘촘히 나뉘고 대상의 스펙트럼 또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관객의 대상층이 다양한 만큼 그 반응들 역시 다채롭다. 오가며 듣는 감탄사와 식견들도 재미나

고, 개인적으로 시도한 지인들의 감상 인터뷰도 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양한 결과를 끌어낸 이유는 무엇보다 작품들의 형식 자체가 다양했다는 사실이다. 야외 조각과 달빛이라는 주제는 기획자를 포함한 작가들에게는 예술적 자유의 손발을 묶는 한정적인 과제였을 수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노원달빛산책>에 등장하는 전시 작품들의 형식들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균적인 예술 이해도를 넘어서는 더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올해 전시 역시 조각,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를 보며 걷다 보면 아이들과 노인들의 감상은 거침없이 솔직하다. 산책로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의 솔직한 반응을 지척에서 들을 수 있다. 그중에 아이들이 (조형적으로) 만족하면서도 인상적인 반응을 보인 작품들이 꽤 있다. 이기일 작가의 <달집>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토끼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화학 공업용 액체를 담았다가 폐기된 IBC 탱크를 소재로 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버려진 것들이 아름답고 동화 같은 예술이 될 수 있다니, 하면서 놀랐던 어린이들의 반응이 사뭇 몽클하게 다가온다. 윤제호 작가의 <큐브에 달빛을 담다>는 빛과 사운드를 이용한 작품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푸른빛이 그려내는 비정형의 형태와 다리 위에서 들리는, 일상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시 중간 지대의 작은 광장 같은 곳에 설치된 조영철 작가의 <Quadruped>의 소재는 태양광 LED인데,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형식적으로는 신소재가 지닌 현대성과 내용으로는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조형미가 균형을 이룬 작품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청계천 등 축제에서 빌려온 작품들 일색이었다. 테마파크의 귀여운 캐릭터 인형을 진열한 포토존의 역할이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이번 전시에는 조영철 작가와 이기일 작가처럼 친숙한 내용인 듯하지만 새로운 소재와 형식을 가지고 시도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등 축제라는 이름을 떠나 새롭게 명명한 달빛산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다른 행사에 쓰이던 작품들을 대여해 오는 관행을 벗어나 이곳만의 독자적인 전시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물가 나무 아래 설치된 박석희 작가의 <황소>는 특히 노인들의 점퍼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작품을 두고 앞다퉈 나누는 노인들의 옛이야기를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도시의 조용한 산책길 저녁에 만나는 과거와의 조우이다. 과거 농촌이나 황소를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황소라는 우리나라 동물의 역동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예술감독이자 이번 전시에 꽤 많은 작품을 출품한 전영일 작가의 작품들은 사찰 연등과 전통 주택의 창호지 문에서 드러나는 빛에 익숙한 우리에게 반갑고 정다운 반응을 끌어낸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비단 노스텔지여에만 국한할 수 없다. 특히 현대적인 소재들을 다룰 때 작가의 그러한 역량은 빛을

발하는데, 조각보 문양과 계단식 논밭을 모티브로 해석한 <산보>는 어떤 대상을 조형적으로 잘 해석했느냐를 떠나, 형식적으로 이미 아름답다. 전통을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꿰뚫어 본 작가의 심미안이 전통을 넘어 현대성까지도 포함한, 확장성 있는 미의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내일>과 <치유의 꽃>은 ‘눈속임(trompe-l'œil)’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작가가 의도한 위치에 서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인송자 작가의 <Redcide 2018>과 최성균 작가의 <물소리, Moon>처럼 다리 아래에 설치된 작품들은, 평소 다리 아래 공간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는 주민들에게는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다. 다리 아래 공간은 버려진 공간, 보여주지 민망한 도시의 후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어두운 지대이다. 작가들의 편에서 보자면 이런 공간들은 도시가 가진 여러 의미의 층들을 건드리고 집중해 볼 수 있는 공간이자, 대형 야외 전시에서 그나마 자기 작품을 집중해서 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유대영 작가의 <Flat Earth>와 <Moonlight Garden>은 이 공간을 작가들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볼 수 있다. 매해 다채롭게 시도하는 다리 아래 작품들의 변천을 지켜보는 일도 지역 주민으로서 가지는 예술 특권이 아닌가 싶다.

인송자 작가의 <꽃피다>라는 작품 앞에는 마침 벤치가 놓여 있어 작품을 한참 바라보게 된다. 작년 겨울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높았지만 어김없이 봄은 오고 꽃은 피었다. 우리는 외출을 감행하고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간절한 공동체의 낙관이었을 테다. 수면 아래 비치는 작품의 빛은 수면 위쪽의 빛보다 더욱 선명한 색채를 나타낸다. 희망은 그렇게 아래쪽에서 시작된다.

산책과 걷기란 행위를 통해 우리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산책은 혼자 홀연히 걷기, 친구와 함께 걷기 등 목적 없이 걷는 행위이다. 공동의 선이라든가 공동체의 방향 보다 지금의(팬데믹 때문에 더욱 심화된) 자본주의는 자기애가 낳은 보신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산책이란 나르시시즘적 자본주의의 결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산책하면서 우리는 내적 자아를 탐색한다. 자아의 안쪽을 지나가는 목소리와 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이것은 비단 기_승_전_자기로 귀결되고 마는 유아론적 자기애가 아니다. 내적 자아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은 결국 자아 바깥의 내가 세계의 어디쯤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지도를 읽는다는 행위는 내가 서 있는 ‘현 위치’에 점을 찍는 일에서 출발한다. 출발점으로서 현 위치의 의미는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심점, 또는 더 멀리 혹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점이기에도 중요하다. 산책을 통해, 걷기를 통해 우리는 나, 출발점, 멀리 갔다 오기, 자기를 넘어 우리로 확장하기, 연대 등등을 모색한다. 아고라[광장]에서 천천히 걸으며 동료와 시민

들과의 대화를 기꺼이 반겼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시작으로, 역사 속의 빛나는 사상가들은 당대의 관습과 불화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작지만 큰 방법으로 걷기와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현재 한국의 철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새로운 인문학적 글쓰기를 시도하면서 산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자 김영민은 『산책과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와 기능주의 대열에서 상처받고 곁을 거스르는 주체들의 대안”으로 ‘산책’을 꼽는다. “걷고, 연대하며, 배우며, 바꾸는” 산책은 “자기-생각과 싸우는 실천의 방식”이다.²

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과 계몽을 상징하는 태양의 비교 대상이자 태양보다 낮은 인식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아폴론 남성이 이성의 상징이라면 아르테미스 여성은 달로 표현되었다. 서구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이성-남성의 도그마가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오늘날은 서구보다,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를 달성한 아시아의 대안적 사유로 감성-여성적 사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 대 감성이라든가 태양 대 달이라는 이분법적 사유에 매몰되거나 둘 중에 우위를 점치는 일 자체가 성급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필요한 사유는 더 이상 이성과 합리, 근대화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인과 예술가는 과학자들이 주장한 합리와 이성과 태양의 진보 개념 뒤에 가려진 달의 탈현대적(혹은 탈근대적) 전위성을 놓치지 않았다. 지구에는 태양의 존재가 더없이 중요하지만 달 역시 소중한 존재이다. 달은 바다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업이었던 농사에 더욱더 유용한 시계는 달의 움직임을 쫓는 음력이었다.

작년 전시에서는 지구에서 달을 봤다. 올해 전시는 달이 지구를 본다. 달에서 보는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지구에서 달을 보는 상상력보다 훨씬 더 큰 상상력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보기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전제된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뒤덮은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모두 더는 움직이지 않은 채 자기 집 안에 웅크리고 있는 달팽이 군집처럼 보이지 않을까? 경제와 국가적으로는 해외에 나가 있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국의 영토에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리쇼어링(reshoring)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 논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촌 마을,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라는 표현은 무모한 처신으로 평가되고, 모든 유용한 것들은 자국으로,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한정시키기에 바쁜 세상이 돼 버렸다. 소통과 대화는 오로지 매체(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에 의한 온라인 정보 공유로 한정돼 버렸다. 이 난리 통에 집의 안락함을 더해 줄 각종 인테리어 상품과 공사가 줄기차게 늘어나고,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은 집 안으로 속속들이 들어차기 시작한다. 각종 SNS에는 우리 각자의 집이 자본을

2_ 김영민, 『산책과 자본주의』, 늘봄, 2007, 17쪽.

들인 상품의 진열대가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어쩌다 지갑을 갖고 나오지 않아 돈 한 푼 없이 집 밖을 나서면 어디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도시의 자투리땅에 겨우 자리 잡은 공원은 그야말로 돈 몇 푼 없는 노인들이 겨우 영당이 붙일 데가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서울은 그야말로 돈 없으면 갈 데가 없는 막막한 곳이다. 공유 공간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병을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위험 지대가 돼 버린 지금, 노원구의 공공 지역과 그곳에서 열리는 전시는 그래서 뜻깊은 기획이 아닐 수 없다. <노원 달빛산책>의 정치적 함의는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므로 공공미술은, 아니 거창하게 공공이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곳에 버젓이 서 있는 작품들은, 그것을 보는 이의 수준과 평가에 따라 작품이 만족스럽든 부족하든 후지든 간에, 또는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전위적이거나 신선한 미적 충격을 안겨주든지 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낮의 분주한 수고로움 때문에 나 자신을 점차 상실해가는 우리는 밤에 불안하고 외롭다. 밤에 우리 영혼은 위태롭다. 밤은 다가올 낮의 바지런함을 준비하는 안식의 시간이지만, 도시의 밤은 각종 여흥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관계의 열등감으로 몰아세우거나 자본주의의 대열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또 다른 노동시간이 되었다.

비평가로서 나는 <달빛산책>을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본래 당대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거나 거스르는 식으로 시대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예술에서 정치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이미 정치적인 말³이라는 조지 오웰의 말을 새겨듣는다면, 예술은 진정 정치에서, 한 사회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달빛산책>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정치성은 바로 이러한 예술 전시 형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 전시는 노원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지만, 민간의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노원문화재단이 긴밀하게 협력, 진행하는 전시이다. 대형 야외 전시에는 갈등과 사건 사고도 많다. 게다가 하천 한가운데 불을 밝혀야 하는 전시 작품 대다수는 날씨와 하천의 물기,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기 작업 등 해결해야 할 제약이 많다. 전시의 총 길이는 무려 2킬로미터가 넘는다. 설치의 제반 사항을 진행하고 감독하려면 하루에 최소 5만 보 이상은 걷힐 수 있는 체력과 주변 보다 약간 낮은 물가 온도의 밤 추위를 버틸 수 있는 건강함이 요구된다.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유쾌한 팀워크를 보여준 전시팀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나에게 비평 글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전체 전시의 스케치를 현장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틈이 나면 이번 전시에 관해 대화의 시간을 할애했다.

3_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나는 왜 쓰는가』, 한겨레출판, 2016, 294쪽.

전시 오픈 초반 주말에 있었던 연계 세미나의 내용은 이번 전시가 무언가 예쁜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관 주도의 연중 사업 그 너머를 보고 있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장애인들의 전시 접근성에 관한 한 발표문은 전시 기획자이기도 한 필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장애인의 접근성은 큰 규모의 전시에 장애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알팍한 선심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보다 정확히 말해, ‘한시적 비장애인’일뿐이다.⁴ 굳이 불행한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특수한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는 걷지 못해 유모차를 타야 하고 나이가 많아져서는 보행기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야말로 생의 일정 주기에 한해서만 혼자 걷기가 가능한, 한시적인 비장애인이다.

그러므로 전시된 작품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고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작품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접근이 매우 쉬워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작품을 보는 것에 제한을 두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근대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시대로의 퇴행이다. 일찍 하늘나라로 간 엄마를 내내 그리워하던 <플란다스의 개>의 네로는 어린 나이가 감당할 수 없던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 생의 마지막 즈음에 성당 안 벽 휘장에 가려져 있는 화가 루벤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을 꼭 보고 싶어 한다. 그 그림을 보려면 당시 평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화 한 개가 필요했다. 다행히 성당지기의 친절로 네로와 파트라슈는 성당 안의 루벤스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림을 본 다음 날 아침 성당 앞에 꿈꿨던 채 죽음을 맞이한 네로와 파트라슈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 감당키 어려운 커다란 슬픔의 경험, 게다가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한 (누구에게는) 최초의 예술 체험이었을 것이다. 만화의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의 미술은 아무나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평민과 노동 계층은 예술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다. 20세기 영화가 등장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감상하는 ‘관객’이라는 특이한 방식의 감상 대중이 부각을 드러내자, 영화의 대중적 감상 방식에 고무된 미술은 (귀족과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비로소 작품을 공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술 작품을 보는 일에 소외된 존재, 계층은 어떤 이들인가?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해답을 구하기 위해 애쓴 노력만으로도 <달빛산책>의 세미나는 충분히 고맙고 뜻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군가는 오늘 상실과 상처에, 아니 더 크게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작품을 바라보고 상념에 잠겼을 것이다. 삶의 중요한 의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작품을 더 치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은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 작용 속에서 인간임을 다해 구원의 끈을 건져보려고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4_ 앤드루 솔로몬, 고기탁 옮김, 『부모와 다른 아이들 1』, 열린책들, 2015 참조.



작품설치





작품설치



시민참여 작품설치 <희망지구 만들기>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시민참여 작품설치 <재미있고 솔직한>





달빛해설사 교육



달빛해설사

Looking at the Earth from the Moon



작가와의 대화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시대,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줄여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속에서 두 번째 노원달빛산책이 개막했습니다. 전통적 등 축제를 현대적 빛조각 전시와 결합한 작년의 시도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도 단순히 미술품을 관람하는 전시를 넘어, 위축된 삶을 어루만지는 공공예술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듭니다.

작년 제1회 노원달빛산책은 약 3주의 전시기간 동안 누적 18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관람객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만한 관람객 규모는 10년에서 20년가량을 계속 개최하며 성장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첫 회부터 이만한 관심을 받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방역 기간 중 조심스레 진행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모객을 위한 부속행사가 없었음에도 놀랄 만한 출발이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의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의 끝자락에 있고 인근 다른 지역의 인구가 좀체 방문하지 않는 곳입니다. 또 노원달빛산책이 열리는 당현천도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계천과는 달리 상가나 지하철역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 가까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노원구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한 제 자신도 노원달빛산책이 열리기 전에는 당현천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관람인원이 오로지 노원달빛산책을 보기 위해 이 지역에 방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첫째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시 작품이 출품된 것입니다. 둘째는 시민 도슨트와 안내요원을 정밀하게 배치해, 관람객의 이해와 편의를 돕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에 소외되었던 교통약자의 접근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술 담론의 주요 논의가 아니었으나 작년 당현천 현장에서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코비드19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억눌려있던 문화 수요가 야외 전시행사로서 방역이 용이한 노원달빛산책에 쏠렸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로서의 노원달빛산책을 더욱 성장시킬 방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시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는 예술의 역할과 작동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전시장과 공연장에서 감상하는 예술보다 디지털과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문화콘텐츠를 훨씬 쉽게, 훨씬 더 많이 접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경향은 코비드19로 더욱 심화되어, 심지어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큐레이터로부터 뮤지엄과 전시기획의 패러다임은 팬데믹 이후 세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포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Nikita Yingqian Cai).

그러나 디지털 문화콘텐츠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여전히 예술은 할 수 있습니다. 감상의 기능이 디지털로 이양되었어도, 예술을 매개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모인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일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여전히 예술 고유의 성질입니다. 팬데믹 이후 훌륭한 예술은 모두 공공예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토론회가 노원달빛산책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예술의 공공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발제는 권태현 큐레이터가 공공성의 개념과 맥락을 다룹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변재원 활동가가 장애인 관점의 문화 접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창작자와 기획자, 실무자 여러분께서 꼭 귀담아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는 진한나 선생이 팬데믹 기간의 거리두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예술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발제는 신민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이 지역문화담론이 확장 변화한 현재, 지역 현장의 쟁점들을 다룹니다. 지역문화행정과 예술이 각각 맡을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영일 예술감독이 노원달빛산책을 이야기하면서, 문화 사업의 개선된 구조와 앞으로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공공미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공이 무엇인지부터 묻는다면, 너무 피곤한 방식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공공미술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과 논쟁들이 사실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미술은 미학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떠나서, 공공을 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떠안으면서 문제적인 대상이 됩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온당히 공공의 목적을 가져야 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 노원구에서 노원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했듯 문제는 ‘공공’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노원구민? 혹은 모든 사람들?

공공은 애초에 양가적인 개념입니다. 공공이나 공동체 같은 개념들은 항상 개인과 집단의 변증법 속에 존재합니다. 공동은 언제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을 하나의 공공으로 치환하면서 수많은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주의가 대표적이죠. 물론 이제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많이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공이나 공동이라는 관념은 단지 전체주의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하죠. 직역하면 공통 감각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관념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산책로에 아무리 멋진 미술 작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에 따른 미학적인 판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계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중산층 부부와 공원에 일을 하러 온 배달노동자가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감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모두가 같은 감각 기관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그 공원에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작품을 아예 볼 수가 없기도 하죠. 이렇게 어떤 공공이라는 것의 불가능성에서부터 공공과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린 모두 개인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사회라는 구성체에 살고 있기도 하고, 국가라는 체제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공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미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죠. 광장에는 언제나 기념비가 우뚝 서 있고, 소위 ‘건축물 조각’이라고 불리는 특정 양식의 조각들이 도시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번 행사처럼 공공의 기금 투입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계보를 찾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양한 예술 실천들이 교차되고 모이면서 공공미술이라는 관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술사학자 권미연이 그의 저서 『장소 특정적 미술』에서 분석한 공공미술의 계보를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의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한 조각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유명 작가들(특히 모더니즘 거장들)의 작업을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형식의 공공미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런 프로젝트는 다양한 관점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가장 큰 비판점은 공공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명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입니다. 심미적인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기능주의적 공공 미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디자인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이 흡수되는 경향을 말하죠. 차양이나 벤치처럼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미술 작업들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건축과 디자인과 융합되는 경향 속에서 확대 받기도 하죠.

또 다른 흐름은 수잔 레이시라는 미술사학자가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라고 이론화한 경향입니다. 공공미술이 정말로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행동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공공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위 ‘참여 미술’이나 ‘커뮤니티 아트’라고 불리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이 크게 유행합니다. 미술 작품의 의미나 가치가 어떤 미학적인 오브제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런 기치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들도 예술가가 지역공동체를 과도하게 재현/대표(represent)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면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죠.

이처럼 공공미술에 더 뛰어난 형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형식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만약 더 좋은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 판단을 넘어서 공공이라는 관념 자체에 대한 사유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은 단지 공공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공공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물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런 성찰 자체가 결국 공공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죠. 예술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예술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난달, 공연기획자를 꿈꾸는 대학생으로부터 들은 질문이다. 이들은 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해 여러 관련 교육 과정을 수강하며, 코로나19가 끝나면 곧장 공연을 올릴 예정인 것 같았다. 아직 실무 경험이 있는 직업인이 아닌 예비기획자였기 때문에, 경사로나 티켓박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들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보다는 접근성의 개념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대답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이들에게 당신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성에 얼마만큼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무대 앞 경사로가 하나 놓이는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하기 위해 공간 임대를 고려할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들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지, 추가 예산 또는 노력이 상당히 들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앞선 일화와 같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화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하지만, 접근성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중도 포기하고 만다. 이유는 다양하다. 인력, 시간,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다. 기획자 스스로 만족할만한 예산을 투입한 축제나 공연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몇 명이나 찾아올지 확신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접근성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자원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걱정 외에, 우리가 정말 접근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내 포기할 만큼 무지막지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성이라는 것이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 포괄적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자 문화 기획의 성공을 좌우하는 첫인상이라는 점, 즉 이것도 콘텐츠의 일부라는 점을 보다 깊이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당장 현장 시공자가 알아야 할 실무적인 지식을 논하기에 앞서, 기획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향유 접근성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이야기 나눔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화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공공시설 접근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변재원, 2019)를 참고하여 접근성 개선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겪는 어려움 및 기대점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접근성과 문화예술

접근성은 장소 이용에서 초기에 경험하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장소를 실제로 인식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곧 장소의 접근성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장소를 체험하는 데 있어 접근성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연구에서 접근성은 관람 체험의 만족도를 상승 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이한기(1991)는 박물관 방문자의 접근성 및 관람 동선을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의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소비자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술관 공간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권혁인, 2011; 윤해리, 2019). 심리적 편안함과 소비자 만족감 외에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공 교육의 의미에서 아동의 문화적 포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향상 정책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정혜연, 2014). 그 외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박물관 공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만족감을 확인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김경미, 2014).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성은 상호 주관적 경험의 밑바탕이자, 서비스 또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동시에 의미한다(이병욱, 2005; 최선경, 2013; 허우금, 2004;).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접근성은 1) 체험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본 전제이자, 2) 심리적 만족감을 좌우하는 문화 콘텐츠의 질적 깊이 일부이며, 3) 지자체 등에서 펼쳐지는 문화 예술 사업이 어떤 사회 계층의 참여 등을 전제하는지 정하는 제도적 가능성의 척도로 작용한다.

접근성을 둘러싼 난점

분명 접근성은 참여적 기능, 심미적 기능, 제도적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척도의 일종으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장시간 문화 예술 기획에 있어 실질적인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운 실무로 남아있다. 돈, 시간, 인력 부족 등의 이유가 가장 크겠으나, 이렇게 단정 짓고 말면 접근성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미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공연기획 과정 중 주요 행위자별로 상이하게 이해하는 접근성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 공연 기획자의 경우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하는 공연 기획자가 접근성 개선 관련 업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다. 1) 법률 관련 문제, 2) 인적 자원 관련 문제, 3) 예산 문제이다.

법률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분명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법 등을 참고하여 접근성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맡은 공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괴리가 크거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

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일컫는다. 특히나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 및 길이 등의 세부 지침은 상당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전반을 신경 써야 할 공연 기획자에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세세한 법률 및 매뉴얼 학습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적 자원 관련 문제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력이 있더라도 접근성 관련 학습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실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끝으로 예산 문제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확보 또는 경사로 확보, 수어 통역 및 문자 통역 등을 추진할 만한 실질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한계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공연 기획자들은 민원에 한하여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대부분 띄게 된다. 단, 관련된 경험이 숙련될수록 점차 능숙도와 재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 현장 스태프의 경우

공연 당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지원해야 하는 현장 스태프의 경우 접근권 보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 1) 통제 불가능한 자원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 2) 예측 불가능한 문제 등을 꼽는다. 먼저 통제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 공연이 열리는 공간 또는 지역의 지형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동약자의 접근권 향상에 대한 민원을 받았을 때 문제 해결 의지를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예측 불가능한 문제의 경우, 자원봉사 또는 일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참여하게 된 현장 스태프의 경우, 이동약자가 관객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사전에 학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난처함을 느끼며 자신의 재량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한다. 여러 현장 스태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현장 스태프들은 주로 몇 번의 사전 경험을 통해 관련 매뉴얼을 학습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또는 지인 중 이동약자가 있어 그들의 ‘몸’을 상상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 장애인 관람객의 경우

앞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본 바, 관련 매뉴얼의 부족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연기획자와 현장 스태프 등이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곤경에 취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조직에서 타협적으로나마 ‘대체 가능한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의 업무를 ‘자원 통제’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관객으로서 찾아오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접근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이동약자가 느끼는 접근성 제약은 1) 생리의 위협, 2) 안전의 위협, 3) 자립의 위협, 4) 선호의 위협, 5) 자존감의 위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생리의 위협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했다. 이들은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원 한계상 불가능할 시, 지원 인력 등이 있거나 사전에 일반 화장실 이용 계획을 세워 ‘휠체어를 타거나 부피가 큰 사람’이 변기 등에 접근할 수 있다면, 타협적으로나마 생리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안전의 위협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공연 등을 관람할 때 타인으로부터 밀쳐지지 않고, 인파 속에 휩쓸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 안전의 위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장애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된 휠체어석”이 아니라, 공연 및 전시 관람 시 타인과 다소간의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립의 위협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공연 참여에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애기한다. 특히 페스티벌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넓은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음식 섭취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지원 가능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애인 관람객이 자립하여 스스로 공연 관람 및 참여할 수 있을지 등을 좌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선호의 위협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원하는 공연을 보려 해도 볼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 축제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데, 장애인의 경우 A구역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고 싶음에도, 장애인 접근성을 B구역에만 집중하여 설치했을 시 장애인 관객은 선택권 없이 B구역에 메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가급적 장애인 관람객의 선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을지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자존감의 위협의 경우, 장애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공연장에 접근하는 데 무리가 없으나, 현장 스태프 또는 주변 관람객들의 눈총 등으로 인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굴욕적인 느낌을 받을 때를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스태프에게 장애인 관객에 대한 사전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고, 주변 관객들이 눈총을 주지 않도록, 현장에서 사전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화 향유를 위한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공연 기획자뿐만 아니라, 현장 스태프와 관람객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나,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문자 통역”을 갖추었는가, “엘리베이터”를 갖추었는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가로 생각하고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 과정에서 인식하는 구성된 여러 위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협을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장애인인은 자신이 모든 공연장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손님임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공연장이 갖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 예술 향유를 갈망하며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는 완벽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참여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협을 받지 않으리라는 희망과 함께 공연장에 찾아오는 것이다.

가장 고단하고 지루한 실무로만 느껴졌던 문화 예술 향유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오늘 토론을 계기로 당사자 중심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권혁인, 주희엽, & 이재화. (2011). 한국 미술 전시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 측정 항목 도출. *대한경영학회지*, 24(4), 2347-2364.
2. 김경미, 임경란, & 고은정. (2014). 박물관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자 평가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0(2), 199-219.
3. 변재원. (2019). 공공시설 접근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4. 윤해리, 정유진, & 조택연. (2019). 접근성에 따른 미술관의 예술 후원을 위한 대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8, 11-22.
5. 이병욱, & 이승재. (2005). Space Syntax를 이용한 서울시 버스개편의 접근성 효과 분석.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49, 493-499.
6. 이한기. (1991). 박물관 공공관련공간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1(1), 99-102.
7. 정혜연. (2014). 다름에서 다양으로: 아동의 문화적 포용력 증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교육. *예술교육연구*, 12(4), 33-46.
8. 최선경. (2013).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8(10), 1523-1528.
9. 허우금. (2004). 교통지리정보시스템 (GIS-T)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 *지리학논총*, 43(1), 1-31.



판데믹의 시대, 공공예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흔히 코로나19 판데믹을 두고 “유례없는” 사태라고 표현한다. 그 규모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 맞지만, 국가 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조류에게서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는 것이 처음 밝혀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범유행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왔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조류인플루엔자(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2014), 메르스(2015년), 지카 바이러스(2016년) 등의 크고 작은 감염병이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기후변화, 환경파괴,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인수 공통감염병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새로운 판데믹이 찾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판데믹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쌓은 방역 노하우와 의료인들의 헌신, 눈부신 시민의식의 총합인 K-방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정서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21년 상반기 전체 우울증 환자가 32% 증가했고, 같은 기간 25-29세 여성 우울증 환자는 172%나 증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건강은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곧 맞이할 또 다른 판데믹과 싸우며 완전한 의미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K-방역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감염병의 검사, 추적, 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적이므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따르면서도 건강 유지를 위한 신체활동을 지속하고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판데믹으로 인한 물리적 제약 속에서 시민들이 신체 활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판데믹 초기에 도시의 공공 공간들이 우선적으로 폐쇄되었는데, 판데믹과 공존해야 하는 미래에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여가활동 공간이 확충되어야 하고 단순히 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고 이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과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높

은 위험성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지켜내는 데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감이 중요하다. 공공예술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공공 공간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는 생활 공간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예술 작품으로 재생산·전달하고 공간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 예술 프로젝트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노원구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노원달빛산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작가들의 공공 미술 작품 설치를 통해 공공 공간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이끌어 낸 훌륭한 예시라 생각한다. 공중보건학적 가치가 뛰어난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나 그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가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주당 75분 걷기는 1.8년의 수명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원달빛산책”과 같이 참가자의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의 공중보건학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과 공중보건 및 건강연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만들어내야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맞이할 또 다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K-방역모델에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공공예술 정책과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Influenza pandemic preparedness plan : the role of WHO and guidelines for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Geneva, Switzerland, April 1999.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66155>
2. 고재우. (2021.9.26). “20대 여성 우울증 심각...상반기 진료인원 ‘4만명’”. Dailymedi.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4555>
3. 보건복지부. (2021.5.6).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82&page=1
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6). Constitution. New York, United State, June 1946.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about/governance/constitution>
5. Maggie Thomas. (2017.3.3.) “Public Art as Public Health”. Public Health Post. <https://www.publichealthpost.org/research/public-art-as-public-health/>
6. Steven C. Moore et al. (2012)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of Moderate to Vigorous Intensity and Mortality: A Large Pooled Cohort Analysis. PLOS Medicine 9(11): e1001335.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1335>

신민준

시각예술가
문화운동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민간위원)

확장하는 지역문화 담론 속 공공과 예술의 쟁점과 대안



급격한 성장의 반대급부로 발생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지역 분권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 분권의 흐름은 문화정책 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지역 문화 정책”은 문화정책 중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종합적인 문화 정책 비전인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수립하는 과정 중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지역 문화 분권 실현>을 선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문화 분권과 지역 문화 정책은 서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 서울 내에서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서울 내 자치구 문화재단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로 자치구별 고유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함께 서울 내의 문화 분권과 협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지역문화 담론 속에서 공공과 예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역 문화의 정의

지역 문화란 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속에서 수도권과 대비되는 지방의 문화를 연상시키지만 개념적 정의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활동, 자원을 의미한다. 지역문화를 개념적, 행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한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역사회나 지역 공동체를 담당자로 하는 문화(심응섭)”, “지역주민의 구체적 생활기반인 지역의 고유한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정(이중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임정희)”, “대안적 거점으로서의 지역 문화: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민공동체의 생활을 바꾸는 과정(이현식)”,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존의 문화를 바탕으로, 부상하고 생성하는 새로운 문화를 진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며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문화(구모룡)”. 학자들의 정의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정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여기서 살아가는 ‘주민’ 그리고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들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문화 정책의 확장

지역 문화 정책은 국가 문화정책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립 당시 「헌법」(1948)에서부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른바 “문화국가의 원리”로 해석되는 조문을 통해 문화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문화

정책이 실행된 것은「문화예술진흥법」(1972)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이 시기 문화정책은 독재 정권이라는 속성상 민족문화에 기반을 둔 정체성 확립을 통해 통치의 강화라는 수단적 목적이 있었다는 한계를 지녔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이 전제되었기에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1983) 등의 지역 문화 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화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은 6월 민주 항쟁으로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6차 「헌법」개정(1987)이 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독립부처로 문화부가 출범하였으며 문화에 관한 세계적 조약인 UNESCO 「국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국내에서 발효되며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복지라는 패러다임이 국내 주요 문화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법(1987)과 지방선거의 재시행(1991)은 지역 자치와 분권의 흐름을 만들었고, 곧이어 광역 문화재단과 기초재단 역시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에 출범하고 ‘지역 문화의 해’(2001)가 지정되며 지역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화정책 영역이 되기에 이른다. 2010년대에는 「문화 기본법」 제정(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 「문화다양성법」 제정(2014) 등 전반적인 문화 법제가 재정비되며 지역 문화 정책이 다시금 강조되었고, 이후 생활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진흥원 변경(2017)과,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2018) 중 문화분권 실현의제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서울 내 지역에 관한 관심은 홍대의 관심(2002)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서울문화재단이 설립(2004)되고, 최초의 자치구 기초 문화재단인 중구문화재단 설립(2004)되었다. 이어 민선 3기~4기에서는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경제 중심에서, 민선 5~6기에 이르러는 시민 중심 문화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지역문화진흥법」제정 흐름과 맞물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4개의 자치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자치구 문화재단의 출범 가속화는 서울시 민선 7기에 이르러 광역·자치구 내 문화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역 문화의 가치와 의미

문화정책은 예술정책에서 시작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 속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즉 문화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창되었다는 것이다. 구미권은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해체하고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인간의 존엄을 재고찰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인권적 차원에서 문화권과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근현대사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과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과거와 단절하는 상황에서 문화 정책이 공보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문화적 권리와 감수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오늘날 시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주창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현실과 문화정책이 부차적 정책이 취급되는 원인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지금의 예술계의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예술계는

예술을 통해 예술이 존재하는 지역적 ‘위치’가 아닌 국공립 미술관, 공연장 등의 예술의 ‘위상’을 가진 곳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일반적인데, 이는 현재의 예술 교육과정과 체계가 지역 문화 현장을 예술의 현장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은 그 자체로서 고유성을 가졌기에 의미 있는 곳이며, 비교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역 혹은 그보다 더 작게 동네는 개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실체성을 가진 가장 가까운 문화현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현장은 문화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현장 중 하나라는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지역 문화 현장 속 공공과 예술의 쟁점 : 공공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의 한계

공공과 예술의 접합점을 논할 때, 등장하는 논의나 쟁점들은 공공지원의 정당성, 팔 길이의 원칙, (자기)검열, 공공미술, 사회적 가치, 도구주의, 공공의 책무에 대한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 예술의 노동 인정 여부 등이 있을 테지만, 최근 발생한 공공과 예술의 쟁점 중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코로나19”일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문화 융성’이라는 표어와 함께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을 제정하고 문화재정을 확충하여 문화정책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전국의 지역 문화재단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그 역할을 확장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양면적으로 블랙리스트 역시 발생했는데, 이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료적 조직과 지원금을 기준으로 문화현장을 통제하려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급 중심의 문화정책의 가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비단 특정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공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공급 중심적 문화정책 환경에서는 지원과 배제라는 도구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좁은 사회를 구성하기에 다양한 구성원 간 견제가 되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현장 속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코로나19는 블랙리스트가 가시화한 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의 상황에서 역설 중 하나는 문화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취약 고리 중 하나로 예술인이 (다시금) 부상한 것이었다. 현실계의 문화예술 현장이 방역을 위해 섰다온 된 상태에서 문화예산은 재난위기 속에 취약 고리로 드러난 예술인의 직접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기존의 지원 사업을 변형해서 속행되거나 문화예산 자체를 아예 불용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변용하여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회와 문화정책이 상정하고 있는 것이 질 좋은 문화 서비스였지,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이후의 문화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노원문화재단을 비롯한 몇몇 지역 문화재단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예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는 예술인과 재단의 관계를 발주자와 도급자적 관계로 정의하거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자
신들의 역할로 상정하지 않던 다수의 기초 문화재단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 현장 속 공공과 예술의 쟁점 : 시민과 예술가의 이분법

자치구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영역 중 하나로 생활문화 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재단이 있을까?
그런데 예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생활문화 정책에 대해 반감을 품는 예술가들도 존재한다. 이는 예술
가 중에서 생활문화 정책으로 인해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생활예술인 때문에 전문 예술인의
지위와 위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동안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한계인 탓이 크다. 앞서 말했듯 국내의 문화정책은 예술인을 지원하기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 중심
으로 시행되어 와서 생활문화사업과 전문예술사업이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생산
자와 향유자를 구분하는 정책 기틀 속에서 공공 서비스 기관들은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시민
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책임을 예술인에게 일부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월성 증진을 목표로 한
실기 및 실연 교육을 중심의 전문예술교육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예술가들을 육
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은 예술가가 스스로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그리고 다른 이들과 다
를 바 없는 시민이 아닌 시민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 권리가 특권층의 권리에서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
요가 있다. 고도로 자동화되어가는 산업체계 속에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낙관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예술인들은 창작자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매개자라는 주요한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의
문화현장은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 서비스’가 아닌 주체와 주체로서 만나는 구체적인 삶이 일어나는 시
공간으로서 유의미하다. 지역, 그보다 더 작게 동네는 시민, 예술인, 기획자, 사업가, 행정가, 정책가, 활동
가 등이 삶의 반경 속에서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정
체성 속 서로 다른 것들이 포괄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만들어가는 문화 생태계를 ‘문화민
주주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축제는 축제의 환호와 열기 속 서로를 인지하고 참여를 통해 공통의 감각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민과 예술가라는 이분법 속에서 벗어나 상호 공동체로서 가장 의미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예술형식
중 하나이다. 2년간 진행된 <노원달빛산책> 역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축제가 더 발전
하길 바라는 마음에 덧붙여보자면 이 축제가 짧은 사업 기간 동안 목적을 위해 관계자들을 동원하는 프
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을 비전에서
도 구체적 내용에서도, 그리고 만들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면, 노원문화재단을

포함한 노원의 문화적 공동체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을 넘어 공통으로: 커먼즈

활동가의 관점에서 서울의 자치구 문화재단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면, 지역 내의 문화시설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있는 반면, 지역의 문화 주체들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 현장을 만들어 가는 곳들도 있다. 사실 지자체별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자원, 문화적 주제, 문화자원 등은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고유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로 등의 구시가지의 풍부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가진 지역, 마포구의 홍대 일대 등의 (과거)대안문화 자원을 가진 지역, 중구나 성동구 등 산업 쇠퇴와 맞물리는 문화적 재생자원을 가진 지역의 문화재단들과 달리 서울의 확장에 따라 배후 주거지 형성의 목적으로 개발된 노원을 비롯한 몇몇 문화재단은 다른 방향의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고유하게 형성된 문화적 자원이 없는 경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의 힘이다. 동북4구로 노원구와 인접한 성북구는 역사적 문화자원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대다수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특색적인 지역문화 자원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성북문화재단은 2018년 세계지방정부연합으로부터 국제문화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미아리 극장에서 제작된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가 공공극장 최초로 백상연극상을 수상하였다. 또 성북은 자치구 내 거점들을 형성하여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 동네 만들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성북문화재단이 오늘날 한계로 지적한 공공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즉, 위임된 공공의 사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라는 점을 자각하고 지역 내 예술인이나 지역주민 등과 함께 역동적인 관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북문화재단 내 지역 문화팀은 커먼즈(Commons)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활동 지향으로 삼았다.

커먼즈(Commons)는 영어 ‘Commons’를 음역한 것으로 오늘날 시민사회나 공공정책 그리고 예술에서까지 주목받고 있는 담론이다. 커먼즈는 ‘공통적인’, ‘공통적인 것’을 뜻하며 ‘누구에게나 속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공통성’을 사회의 원리로 개념화한 것이 ‘커먼즈’라고 할 수 있다. 커먼즈는 전통적으로 나누어 온 ‘공적인 것(the Public)’과 ‘사적인 것(the private)’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공통적인(Commons) 것으로 재정립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국유화된 공공영역이 존재하고, 이가 (대의 된) 정치와 (위임된) 행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커먼즈는 시민의 사회적 협력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커먼즈의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자 중 하나이자, 정책, 사업, 예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이 재정립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코로나19 이후, 이전까지의 문화 정책 패러다임의 급속한 쇄신이 요구되는 오늘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현장은 시민과 예술가가 분리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는 대안적 삶의 시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 가능한지 아닌지는 지역의 문화재단이 공공과 예술이 충돌하여 쟁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질 좋은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주체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의 문화생태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생태계 내에서 예술가를 포함한 시민과 함께 공통의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원재, 「'문화 커먼즈'와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실험」, 문화과학 114호, 2020
2. 하장호 등,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기초연구」,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2019
3. 김진환, 「서울+지역+문화정책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서울청년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자료, 2020



전영일

조각가,
노원달빛산책
예술감독

한국의 공공미술에 대한 견해 - 노원달빛산책을 중심으로 -



문화 균형 발전의 흐름을 타고 중앙에 집중되던 문화행정이 지역으로 이전되는 추세다. 여러 문화행사가 지역에서 열리고 있으나, 아쉽게도 많은 지역축제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상업적으로 진행된다. 각종 미술전시회와 비엔날레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향상이나 시민의 여가보다 미술품 재테크를 위한 통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전시가 있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는다. 이런 현실을 보노라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축제의 미술적 요소들이 대중적 호응에 목을 뿔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가 당연하게 느껴진다.

모순된 구조 속에서, 한동안 국내 각 지역마다 등(燈) 축제가 우후죽순 나타났다. 그 축제들은 등불로 보여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미술적 기법으로 오로지 가벼운 볼거리만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등의 가능성은 단지 연등놀이에서 발전한 전통예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지라는 독보적인 소재는 등을 야간 조형물로 확장 발전을 가능케 한다. 등은 서구식 화려한 조명 기술과 섞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특징들이 있다. 현대화의 상징인 도심 속에 설치한 은은하고 정감 있는 빛들은 그 자체로 조용한 예술적 반란이라 할 만하다.

등 축제를 넘은 빛조각으로의 이행. 이것이 노원달빛산책이다. 가벼운 볼거리 행사가 아닌 다양한 기법으로 예술적 창작을 보여주는 것이 노원달빛산책이 제시하는 방향이다. 오늘날 야간은 과거와 달리 시민들의 생산과 사회활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간대가 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밤을 밝히는 빛조각이 대두되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공공미술에서 빛의 활용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이르자 이제 빛 공해에 대한 비판도 따라온다. 피곤할 정도로 화려한 인공조명, 많은 비용을 쏟아 건물을 장식하는 상업적인 빛이 아닌, 밤의 도시 공간에 고요히 어우러지는 전시를 노원달빛산책은 추구했다.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눈높이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예술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과 안목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첫 회부터 열띤 반응을 이끌어낸 작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노원달빛산책이 보여준 다양한 실험적 창작이 대중과 심히 통하는 지점이 많았던 것은 현대미술이 놓치고 있는 공공미술로서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과의 미술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당현천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무엇인가가 한국적인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공공미술의 새 가능성 아닐까.

노원달빛산책은 공공미술의 모순된 구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 했다.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더 많은 시민들을 아우르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술을 선보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우선 지자체와 미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열어 공공의 영역과 미술의 원활한 협업을 유도했다. 종종 발생하는

문화예술과 행정 시스템의 충돌이 직업의 성질상 공통분모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술가가 작품 생산을 공공기금에 의존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처하므로 생기는 문제다.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미술가를 선택하고 과업을 부여하는 기존의 틀에서는 상시적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마찰은 공공과 미술의 논의구조가 안정적일수록 줄어든다.

행정공무원과 미술가가 상생하는 방식을 더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원달빛산책을 준비하기에 앞서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하게 될 미술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공공미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할 행정의 질과 폭도 넓혀야 한다. 준비된 행정가들을 통해 작가를 장기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로 노원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고 한국의 여러 도시들의 모델이 될 진일보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도 중요하다.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유명 작가의 전시회를 찾아가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밖에 꺼내 놓아서 시끄럽게 하느냐”는 식으로 나타난다면, 애초에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들의 체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전시방식,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공공성 때문이다. 공부 지옥으로 미술에 대한 체득이 현저히 줄어든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사회와 더욱 심오하게만 나아간 현대미술이 점점 더 괴리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형식적인 공공사업으로 수박 겉핥기 식의 단기적인 체험 이벤트를 벌인다.

시민과 미술의 괴리를 해결할 열쇠는 공공미술에 대한 심도 깊은 모색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도시의 재생과 마을단위 예술 프로젝트를 꾸릴 수 있는 작가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현장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예술적 취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시민문화 전체를 향상시킴으로써 대중의 깊이 있는 관심과 참여를 꾸준히 끌어내는 것도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지점이다.

예술은 마음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실질 이윤을 만들어내는 경제적 기반이며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민주주의 정치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공공미술 사업의 모순된 구조는 도외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예술을 도태시키는 길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이루려면 공공행정과 미술가 집단의 유기체적인 결합들을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노원달빛산책과 같은 공공미술의 형태도 대안의 한 축이 될 것이다.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사
람
·
사
람
들



작품설치



달빛해설사가 말한다

문희길: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구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달빛산책은 작년에 시작하여 벌써 두 번째로 올해 주제는 ‘달에서 본 지구’로 빛과 등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은 노원구 수학문화관에서 당현3교까지 약 2km 구간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거리두기도 하면서 작가님들의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공간적인 장소 이미지로 수학문화관 앞에서 권민우 작가님의 ‘수학의 이모티콘’을 설명하는데 관람객들이 “아하” 하면서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어하는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곳은 전영일 작가님의 “지금과 내일”이라는 작품인데 신기하면서 서로 공감을 느끼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작년에 히트 작품으로 올해는 더 많이 더 크게 전시한 ‘월인천강’ 향아리는 올해도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으며 향아리 안에 뜬 달을 찾아 사진에 담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달빛산책 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해설하면서 관람객과 함께 공유하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함께 즐거운 달빛산책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해설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설은 도봉문화재단에서 오신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함께 한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용안: 달빛해설사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소회를 표합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 기회가 적었다. 오리엔테이션 6시간으로 전 작품을 이해하고 현장 설명회 1회로는 해설하기에 너무나 정보가 부족함을 느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작가와 사전 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달빛해설사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필요했다. 달빛해설사 간 서로 작품에 대한 설명 포인트를 서로 상의 공유하면서 진행한다면 해설의 수준과 눈높이가 맞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참여 관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설사에게 피드백이 되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달빛해설사 전문화가 필요하다. 매년 행사 시 신규 해설사 모집보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 수행했던 해설사가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설의 수준과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참여 관객에게 선물 수준 상향이 필요하다. 단순 키홀더 증정을 떠나 작품 해설집, 작가와의 대화 기회 부여 등 수준 제고와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staff진의 수준 높은 업무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 수학문화관이란 장소성을 보여주는 ‘수학의 이모티콘’ 우리가 흔히 대하는 수학의 기호들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다니 감동과 감탄이 지어진다. 어찌 보면 단순한 듯하지만 들여다볼수록 예술성의 깊이와 기술력이 느껴졌다. 그러나 해설 프로그램 첫 작품에서 회전 작동이 되지 않을 때와 불빛이 꺼져서 기호가 까맣게 보일 때는 관람객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다. 작품이 보여주는 감동을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고장률이 많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인송자 작가의 ‘붉은 학살’, ‘혼돈과 균형’ 들꽃에 강인함을 담았다던 ‘꽃피다’ 등 감동으로 적혀진 작품들이 나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확장시켜 주었다.

공감 달빛으로 가장 인기 있던 작품은 ‘월인천강’의 향아리 속의 달이 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작품은 ‘불치무귀’의 술 향아리였다. 정조대왕의 역사적 스토리와 함께 여행한 듯 흥미롭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달빛해설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불치무귀’의 수원화성 ‘팔달문’을 찾아가 보련다. 나는 요즘 달빛산책에서 얻은 잔잔한 감동으로 코로나 위드의 시간을 씩씩하게 살아간다.

“고마웠다 달빛 산책~ 수고했어~~~”

한정자: 안녕하세요? 달빛해설사 한정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구민 해설사로 참가자에게 해설하면서 스스로 더 많은 기쁨과 치유의 시간으로 보람을 느껴서 올해도 달빛해설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의 달빛산책은 특별전과 초대전에 많은 작가가 수준 높은 스토리와 다양한 작품으로 당현천을 찾아온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많은 분과 공감하며 서로 소통하면서 저도 마음 한구석에 큰 울림을 주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협업했던 작품들이 반응이 좋았고, 저
도 예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가님들의 메시지를 잘 전달
하고자 노력하며, 참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일들이 참
좋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시각장애를 앓는 친구들에게 해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즐거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빠듯지만 소중하게
카메라에 작품을 담는 모습을 보며 용기 내 찾아와 준 그 분들께 감사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을 초대해 달빛산책으로 가슴 따뜻한 위로
와 희망의 시간을 함께하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했던 달빛산책 해설
사 선생님, 이수 큐레이터님, 이권화 PD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관: 올해도 가을이 오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달빛산책이 있어 행
복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당현천에 가을 단풍과 코스모스, 많은 작품
이 전시되고, 주민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기대를 하며, 달빛해설사
에 참여하였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전시공간마다 뜻있고, 보는 이를
배려한 작가님들의 마음이 느껴졌고, 애쓰신 감독님, 큐레이터님 등
재단 직원분들 등 그간의 노고가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해설을 하며 즐겁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의 가족 관람객과 어르신들
모시고 나온 자녀들의 따뜻한 모습이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해마
다 오는 가을이 늘 새롭고 아름답듯이, 내년 달빛산책을 기대하게 됩
니다. 행복했고, 감사한 달빛해설사 백선관이었습니다.

강주승: 잘 할 수 있을까? 달빛해설사에 무턱대고 신청한 후 후회가
늦게서야 밀려왔다. 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한
경험은 많았지만 예술 전시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한 경험은 없
었기 때문이었다.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해설사 교육에 참여했고, 잘
정리된 교육을 들으며 다소 자신이 붙었다.

교육을 들으며 느낀 점은 노원문화재단의 지역 주민에 대한 열정이
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예술 문화를 향유 할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재단 직원분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달빛해설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못 접했을 소중
한 기회였다.

나를 포함한 달빛해설사를 위해 진행되었던 늦은 시간 교육, 쏟아지
는 비 속에서 진행되었던 현장 교육 등 달빛해설사를 통해 겪은 모든
경험이 소중하다. 많이 준비했지만 서툴렀던 해설 진행에도 따뜻한
박수로 감싸주셨던 주민들의 모습도 아직 눈에 선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당현천을 빛냈던 수습여점

의 전시물 덕분에 우리 노원구민들의 얼굴이, 마음이 조금은 더 밝
게 빛나지 않았을까. 그 빛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뿌듯했다.
그리고 그 기여할 기회를 주신 노원문화재단 모든 분께 감사의 말
을 전하고 싶다.

정혜선: 달이 떴다. 어느새 내 맘 속에도 커다랗게 떴다. 오색빛으로
빛난다. 작년에는 지구에서 달을 봤는데 올해는 달이 지구를 쳐다봤
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빛이 더해졌다.

2021년 가을 당현천은 빛나는 달빛이 있어 더 아름다웠으리라 봅니
다. 달빛산책 출판한 작가님들의 멋진 작품 덕에 오감으로 느끼며 해
설을 하니 내내 행복했습니다. 함께 했던 참가자들도 다양한 작품들
을 감상하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 연인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제목을 붙여주며 달빛산책을 즐겼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공공미술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과 예술작가의 작
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해설집과 설명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자 깨알같이 적으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좋은 추
억으로 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시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사는 세
상 속에서 현재의 고통을 이기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전해주는
작가들의 메시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을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통
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런 전시가 자주 있어 노원의 문화인으로
예술은 생각의 차이로 우리 가까이 삶의 일부로 존재함을 누구나 느
끼는 기회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올가을은 덕분에 풍요로운 달빛산
책이었습니다. 달과 더 친숙해지듯 이웃과 정을 더 나누며 소망이 피
어나길 바랍니다

문득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내 손엔 지구본이 매달려 돌고
있는데 해설을 다 마친 선물인 듯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
빛산책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설 마지막 날 물가에서 올라
온 고기를 보며 삶의 보금자리에 대한 의미를 더 생각해 봅니다. 분명
우리는 함께여서 행복했던 거 같습니다. 당현천 텅 빈자리에 우리들
의 따뜻한 마음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2021 노원달빛산책과 함께한 사람들

2021년 “노원달빛산책 - 달, 지구를 보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하 무순)

주요스텝 및 운영·홍보스텝

예술감독	전영일
큐레이터	이수
디자이너	김영철
사진	송호철
영상	정동구
번역	박은주
제작·운영	이현범
홍보·운영	이권화, 김가람
온라인디자인	한아름

특별전 작가(가나다순)

권민우, 김현준, 오종선, 인송자, 최성균

초대전 작가(가나다순)

김현준, 성동훈, 유대영, 윤제호, 이기일, 조영철

전영일 공방

심은희, 이성열, 김문숙, 이동철, 장지호, 허광표, 이정석, 이기범,
한주예, 박민지, 현재열, 신승용, 장유나, 최경선, 최인수, 김수현
크레인: 김영춘, 윤반: 김균남(피닉스로지스틱)

협력작가: 김리웅(JIN LIXIONG)

전시개괄 아티클

김수정

전문가 세미나

기획: 손이상

발제: 권태현, 변재원, 진한나, 신민준, 전영일

소우주

인덕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x VRduck

이상화(학과장), 이철승(교수), 심효영(교수)

오희!산대

예술꽃화랑 광창성(대표)

달빛풍선

가고파애드벌룬 정명국

미디어글라스

구공일엠(901엠) 윤현정(대표)

성서대학교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홍보 및 콘텐츠제작, 광고, 디자인 등

(주)에스지아이소사이어티 김영철(대표)

(주)한국학술정보 채종준(대표)

콘텐츠제작_그리는도시/(주)어반콜라보 이유미(대표)

운영용역_(주)포컴페니언 김동연(대표)

운영집기렌탈_(주)미스터크리에이티브 김도영(대표)

에이알스튜디오 한아름(대표)

조롱박전시(노원놀이마당)_최은경(회장)

당현천 환경조성(식수)_(주)한수그린텍 한재혁(대표)

사진용역_디자인.씨 강수경(대표)

포스터제작_디자인감 백지성(대표)

온택트 전시_크로노토프 유웅중(대표)

지구불시착_김택수(대표)

홍보탐·현수막_프로이경 강우원(대표)

현수막_새롬애드 박종호(대표)

홍보영상제작_콜라보협동조합 김은수(대표), 박찬영, 손성은, 유지현

온라인 홍보_네오룩 최금수(대표)

작품평판 제작_남이디자인 조남이(대표)

서울문화투데이, 안마을신문, 노원신문, 지역연합신문, 퍼스트신문

전기차렌탈_(주)티케이글로벌 구경열(대표)

집기렌탈_(주)알투컴 차동필(대표)

현장용역_(주)두들로 박선애(대표)

무대제작_(주)더라인커뮤니케이션 민상영(대표)

전기안전점검_(주)한국안전관리 박경중(대표)

자전거렌탈_찬성MTB 변찬성(대표)

거리두기 팻말_(주)티알큐 염재현(대표)

자전거통제 스티커제작_디자인아띠그래픽 이태희(대표)

달빛해설사(가나다순)

강주승, 김용안, 문희길, 백선관, 정혜선, 한정자, 황혜경

달빛백일장 심사위원회

배덕정(노원문인협회장), 이정종, 진영희

달빛백일장(달, 희망을 노래하다) 양지교 전시시민작가(가나다순)

김명원, 도경원, 박순자, 송명희, 오미애, 윤슬, 이순지, 임정원,

전용숙, 홍이

참여 시민작가(가나다순)

각시붓꽃, 고준, 김경자, 김동익(우봉), 김미경, 김미진, 김보규, 김소향,

김지혜, 김현서, 나원준, 날아라 병아리, 단아, 명원, 박숙영,

보름달, 상낭자, 새로운위쪽학교, 성연규, 세레나, 오수정, 우귀옥,

은정, 이명주, 이범자 제노비아, 이세나, 이양, 이현주, 임정은,

장혜경, 정선화, 정혜선, 조세령, 지평선, 최영호

캘리크라피 작가

최예진(록연)

시민, 어린이, 청소년 참여작가

희망의 집 짓기(무순)

김예정, 이형노, 박상규, 박찬, 유재영, 유채연, 이상훈, 이준민, 이재욱, 이은호, 금상철, 금도경, 윤현주, 조문규, 조건우, 이정훈, 이재민, 김재란, 지영우, 지상욱, 김은, 김주영, 이경화, 신성일

희망의 집 짓기(무순)

김혜진, 신원석, 신주환, 서나영, 황유준, 황지유, 임서윤, 임도윤, 나희원, 김이안, 김아인, 오수정, 장하늘 장하니, 최예리나, 이재욱, 이서윤, 김지혜, 이채원, 황연주, 차하윤, 최진숙, 조혜연, 조훈, 양혜경, 이하은, 이하영, 진선정, 고은찬, 박지선, 이윤, 신나영, 이영진, 이채울, 두미소, 두서경, 김혜성, 이연우, 이현주, 이민호, 공경남, 강정우, 강윤식, 임서준, 유이현, 김한울, 황현수, 채하린, 채예린, 김시은, 유주훈, 황현수, 조원희, 서나영, 이은주, 이동하, 이서오, 박미희, 주가연, 주은호, 박동순, 최원환, 최윤석, 최인희, 김주영, 김주홍, 김도엽, 김도훈, 박미경, 임태원, 임주원, 김연희, 조정희, 박성진, 박서빈, 박서린, 이연정

학생참여작가(희망의 집 짓기, 희망지구 등 만들기 참여, 가나다순)

강이슬, 공시윤, 김서윤, 김현수, 김혜진, 노규진, 박예은, 박재우, 성민지, 소혜미, 신희정, 양도훈, 유은서, 이수빈, 이예지, 이현경, 임하은, 전유빈, 정성민, 정예진, 정재영, 조현민

등 제작용역 제안 평가위원회(가나다순)

김미화(은평문화재단), 김보연(하남문화재단), 김수미(중랑문화재단), 김정현(강북문화재단), 김진만(중구문화재단), 배동범(송파문화재단), 최성지(성동문화재단)

행사운영

(주)윙플래닝, 포컴페니언

김완겸(대표), 김동연(실장), 윤상원(팀장), 이인애(팀장)

(주)중앙전기공사(전기팀)

천수중, 오진현, 이정쇄, 황정호, 김유창

구급대(응급대기)

서울129구급대 남기정(이사)

노원구 자율방범대

조필구(대장), 최미경, 정종빈, 김분남, 박현순, 곽영숙, 이봉돈, 김형수, 이정숙, 오정임, 오순화, 하미희, 김은정, 김미례, 김화자, 이용구, 신재인, 박용희, 이현경, 이정희, 김금숙, 조성자, 심길선, 김진우, 정만호, 이상복, 이복심, 김미라, 최석양, 김성재, 이현정, 최명호, 백인숙, 김용석, 손준기, 김정희, 김동윤, 이재욱, 원성목, 김막순, 김춘심, 김명애, 김형근

행사진행요원

임정민, 정관섭, 정성진, 김정현A, 박용우, 김이슬, 서정은, 전인우, 이상훈, 박초휘, 최미진, 강현구, 김정현B, 유지은, 백수빈, 김정민, 안혜경, 이선경, 김예림, 정성희

▶노원구청

최미숙(행정지원국장),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문화체육과: 박홍성(과장), 이해중(문화예술팀장), 남예운, 정다정, 윤보미, 이승윤(문화정책팀장), 윤은미, 김수정, 김윤선, 정민아, 오시영, 김수연, 신희재(체육정책팀장), 이교범, 김지선, 장마리아, 양현웅(체육시설팀장), 정영선, 최성수, 윤경선, 조민철

자치안전과: 안태유(과장), 송창훈(자치행정팀장),

송재혁(재난안전팀장), 박우진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언론팀장), 방희진, 엄창현, 김유신, 조윤희, 박은영, 홍정아(홍보팀장), 김권식, 정용재, 임수경(뉴미디어팀장), 서형철, 한유진, 문수경, 김인형, 윤정록(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정정수, 이현주,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김소희, 전승민, 이정무

감사담당관: 홍성범(감사담당관), 김동석(조사팀장), 채대경

교육지원과: 남미숙(과장) / 장세창(수학문화관장), 유재희(운영팀장)

교통지도과: 이병용(과장), 김제훈(주차지도팀장), 천세진

자원순환과: 송창규(과장), 김덕수(폐기물관리팀장)

치수과: 이충신(과장), 김상동(물관리팀장), 심명숙, 윤선미, 이수용, 유광선, 안경은, 홍상훈, 곽병호, 박종현(하수팀장),

김정호(하천설비팀장), 당현천관리반장

푸른도시과: 이용수(과장), 김응주(하천조경팀장), 박유하,

김혜량(조경팀장)

▶노원문화재단

김승국(이사장), 원응호(사무국장)

행정지원부: 김광득(부장), 박한준, 오진호, 백승표, 정경희, 김보은, 도용현, 허종국, 국영일, 범선민

공연전시부: 엄국천(부장), 김혜련, 최종희, 오승은, 최승이, 김보영, 윤혜인, 김춘술, 박지예, 정인철, 장은웅, 김영일, 이승용, 박소현, 이다빈

정책기획부: 김성곤(부장), 김유미

문화진흥팀: 윤금노(팀장), 김용식, 이셋별, 양은규

축제사업부: 홍철욱(부장), 곽규태, 김준, 김동현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KB국민은행 (물심양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서대학교 이은광 님 (해마다 성서대학교의 많은 도움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수학문화관 (행사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시민기자단, 구민감사관, 당현천 살피미 모니터링단

(품평이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노원달빛산책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안전요원, 안내데스크 진행요원, 그리고 행사 운영진, 당현천을 가꾸고 다듬는 많은 분들, 구청과 재단의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공연수, 최진석, 박리아 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
Nowon
Moonlight
Walk

달,
지구를
보다

노원달빛산책

2021. 10. 20 - 11. 07

주최/주관 노원문화재단

기획 전영일, 이수

진행 홍철욱, 박규태, 김준, 김동현

협력 노원구청, 국민은행, 성서대학교, 노원수학문화관

사진 송호철, 정동구

디자인 (주)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인쇄 총무로 북토리

발행인 김승국

발행일 2021. 12. 30

발행처 노원문화재단

017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최/주관 :  노원문화재단 후원 : 노원구  청정노원  KB 국민은행 협력 : 한국성서대학교

© 노원문화재단, 2021 | NOW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1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작품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